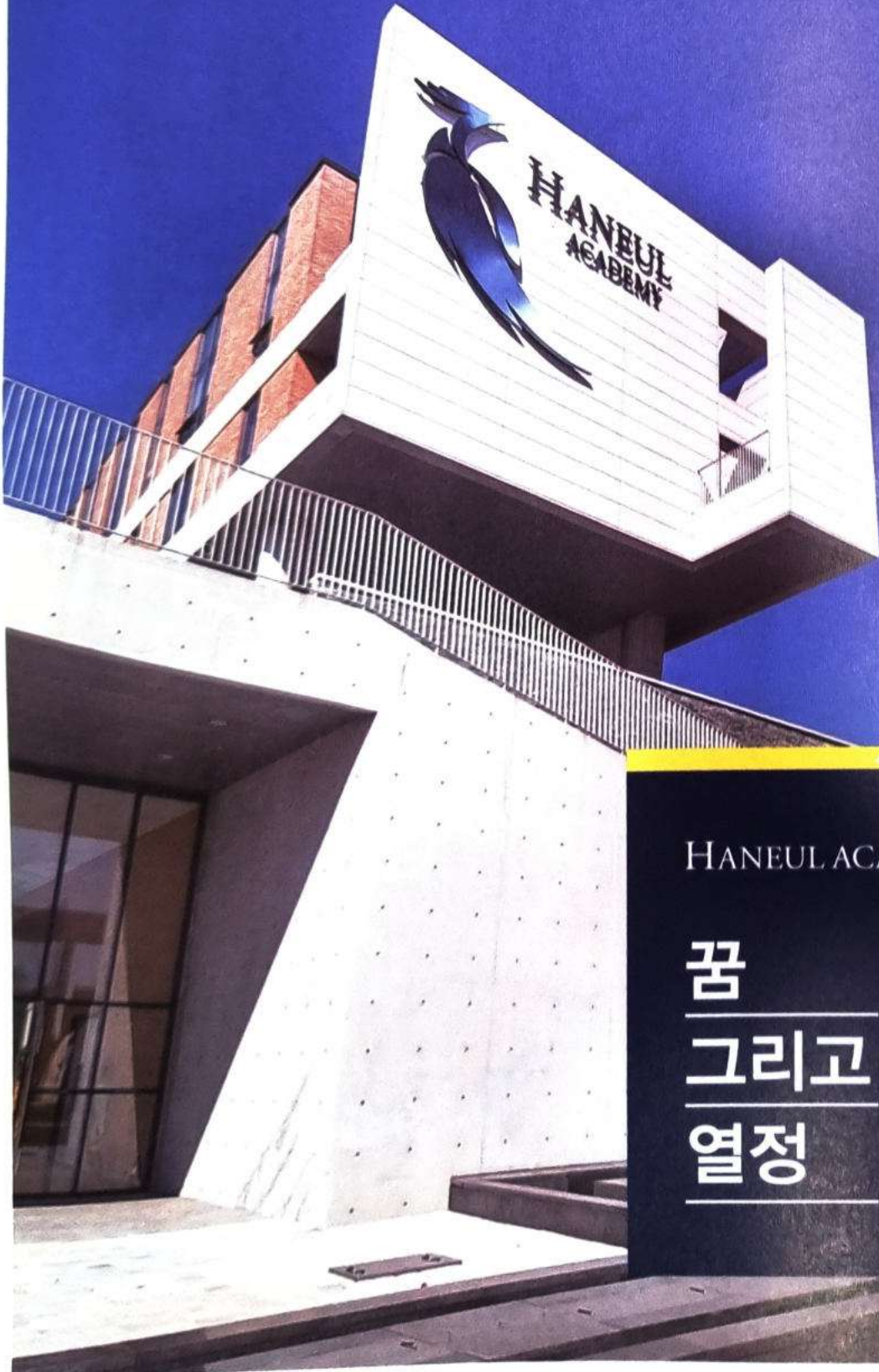


응답지원

제 8회



HANEUL ACADEMY



HANEUL ACADEMY

꿈
—
그리고
—
열정

Contents



4 / 교장선생님 인사말	72 / 개인사진
6 / 세계시민교육	76 / 잠
7 / 항공교육	80 / 에타
8 / 논리학	84 / 저녁 도비라
9 /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86 / 선배선배선배
10 / IIP	92 / 개인사진
12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96 / 나는 어떤 하늘인?
13 / R&E	100 / 플레이리스트
14 / 10대 학생회	104 / 개인사진
24 / 아침 도비라	108 / 밤 도비라
26 / 하늘고 동아리	110 / 1학년 학급별 콘텐츠
50 / 개인사진	126 / 2학년 학급별 콘텐츠
54 / 오후 도비라	158 / 3학년 학급별 콘텐츠
56 / 교사 콘텐츠	174 / 잉클링
68 / SH컵	208 / 발행인
70 / JH컵	



교장 선생님 인사말

제 8호 교지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소 대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소 대나무'는 농부들이 씨앗을 뿌려놓고 매일같이 정성 들여 키우지만 4년이 지나도록 불과 3cm밖에 자라지 않는 대나무를 말합니다. 하지만 반전은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5년째 되는 무렵부터 모소 대나무는 하루에 30cm가 넘게 자라기 시작해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되고, 그 대나무 자리는 순식간에 뻑뻑하고 울창한 대나무 숲이 된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모소 대나무의 성장은 단지 6주 동안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 4년 동안 '모소 대나무'는 땅속에 수백 m에 걸쳐 뿌리를 뻗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소 대나무'를 봐 왔던 그 지방의 농부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땅속에서 뿌리가 열심히 뻗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에 정성을 다해 돌봐왔던 것입니다.

우리 학교도 어느덧 2021년 개교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모지 같았던 영종도에 인천하늘고등학교를 세우면서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국내 최고의 명문 학교로 만들겠노라고 10년 전부터 외쳐왔습니다. 그 외침에 많은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졌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인천하늘고등학교는 당당히 유수의 명문고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모소 대나무가 급속히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땅속 뿌리가 묵묵히 뻗어 나갔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학교가 단기간에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지런히 내적 성장을 이루어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교 10주년을 맞이하여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여러분께 “사과 속에 씨앗은 셀 수 있지만, 그 씨앗 속의 사과는 어느 누구도 셀 수가 없다.”라고 한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모두의 땅속에 뻗어 나가고 있을 뿌리의 힘을 믿고 매 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또 한 번의 10년이 지난 후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최고의 학교와 최고의 사회인이 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교장 선생님도 여러분과 우리 학교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멋진 교지를 만드는데 수고하신 김승우 선생님, 편집장 강예빈을 비롯한 모든 편집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세계시민교육

우리는 누구나 같은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시민입니다. '시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서 우리나라 시민, 즉 국민에게 참정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납세와 교육의 의무 등 국민의 기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시민도 한 국가의 국민과 같이 권리와 의무를 갖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의 기본적 권리인 인권은 '세계인권선언'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의무와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세계시민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에서는 우리가 알고는 있었으나 주의깊게 바라보지 않고 넘기던 환경 문제, 빈곤 문제 등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는, 문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함께 생각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세계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함양하고, 진정한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여 여러분 모두가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나라 한 국가의 국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각을 갖고 세계 속의 문제에 귀를 기울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글 · 고별하

세계시민교육은 세계 여러 나라가 많은 것을 공유하는 세계화 시대에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입니다. 교육의 초반에는 생소하게 다가왔던 세계시민을 세계시민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자신만의 언어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15차시의 세계시민교육을 들으며 평소 인식했지만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바라보지 않았던 인권,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직접 사랑의 운동화 만들기, 그린라이트 만들기 등의 활동으로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는 raise uganda now의 대표이신 박근선 강사님께서 진행해주신 “문화다양성의 이해 우간다를 RUN하다”라는 강의였습니다. 강의의 도입부에서 사회적 임팩트 창출에 대한 열정은 전공, 본업, 경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크게 와 닿았습니다.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기 위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을 변화시킨 한 마디였습니다. RUN이 우간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해 많은 발전을 이뤄냈듯이 작은 관심들이 모인다면 큰 결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기 학생들도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글 · 사수현, 이서영

항공교육

전국에서 유일하게 항공기 일반 수업을 수강할 수 있다니!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설립한 학교임과 동시에 근처 인천공항이 위치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항공과 친밀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우리학교에는 항공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많았다. 항공기 일반 수업은 2학기 때 진행되었다.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사회 재난 속에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점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교수님에게 무척 감사했다. 주로 항공 경영에 초점을 맞추어 항공 사업의 발자취, 코로나19 속 항공 사업,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강의해주셨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위해 계속해서 원하는 수업의 방향을 질문하셨고, 외부에서 교수님 두 분도 초빙해주셨다. 특히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님께서 공부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 조언해주신 말씀이 뇌리에 강렬하게 꽂혔다. 마지막 시간에는 조를 편성하여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직접 자료를 수집하고 친구들에게 발표해보며 미래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고 예측해보는 일은 우리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가뭄의 단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항공기 일반 수업은 월요일의 시작 속 휴게소 같은 존재였다. 항공기 일반 수업은 희망 진로가 항공 분야가 아닌 학생이여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을 수강할지 고민하는 학생이 있다면 꼭 듣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본다.

이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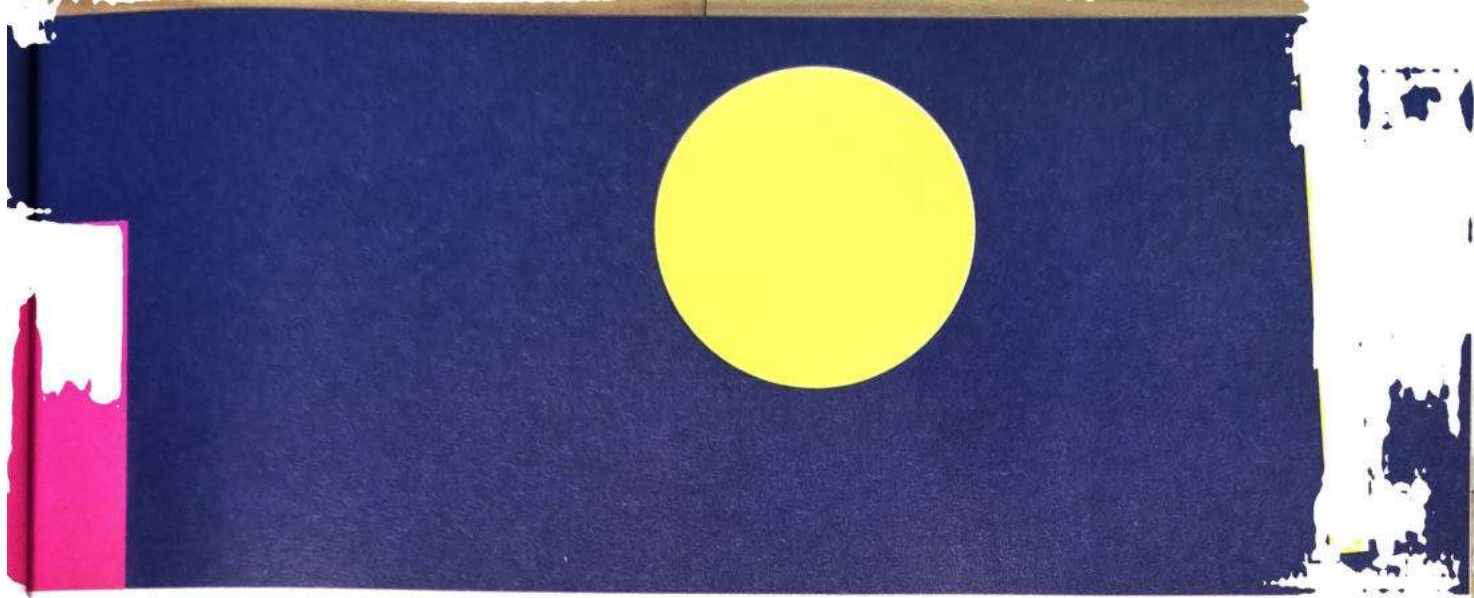
논리학

논리학 수업은 효과적인 논증과 논박의 방식이라는 대주제 아래에서 진행되었다. 논리학 수업의 제일 큰 장점이자 키워드는 상호작용이다. 수강생들은 강의식 수업 형식으로 전달된 이론을 팀별 활동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직접 적용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타인을 설득하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특히 토의 위주의 팀별 수업을 통해 논박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타인과 공유함으로써 비판적인 사고능력을 기르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타인의 주장을 수용하거나 재반박하며 올바른 토론의 자세를 갖추 수 있었다.

논증의 오류와 논증의 형식과 같은 이론에 대해서도 배웠다. 특히 논증의 형식은 직관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 논리학 수업은 다양한 명제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분석하여 논증의 형식을 분류하는 기준에 대한 뚜렷한 개념과 분류체계를 스스로 형성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논증의 오류를 통해 논증할 때 자주 하는 실수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논리학이 기술적 학문인 만큼 매 수업마다 바탕이 되는 소스가 있었다. '전쟁 중 민간을 죽여도 되는가?'와 같은 윤리적 딜레마뿐 만 아니라 미국의 2007 모기지 사태나 기본소득제와 같이 현실과 밀접한 사회적 주제도 다루었다.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한번 쯤은 다루어야 할 소재를 친구들과 함께 심층적으로 논의하며 주제에 대한 이해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까지도 정립 할 수 있었다.

글 · 권가인



생각하기와 표현하기

본 수업은 서울대에서 교양수업을 진행하시는 김광식 교수님께서 맡으셨다. 교수님께서 말하시길, 서울대에서도 발표를 논리적인 사고력이 부족하고 발표를 전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교수님은 우리가 본 수업을 통해 교과공부만큼이나 중요한 이 능력들을 발전해가길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수업의 주된 활동은 사회과학적 주제에 대한 연구이다. 1학기에는 ‘디지털 편지와 아날로그 편지 중 무엇이 인간관계에 도움을 주는가?’라는 공통주제를 가지고 각 모둠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학기에는 조별로 자유주제를 선정하였고 블라인드 생기부, 유튜브, 인종차별 등,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제재가 사용되어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하나의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차례의 발표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서로 논평과 질문이 오간다. 반복되는 발표 경험으로 우리는 높아진 ‘표현하기’의 수준을 체감할 수 있었다. 제스처, 시선 처리와 같은 작은 발표 자세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인 사고와 순발력 등에 이르기까지 수업의 모든 참여자들이 확연히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경험적 발전을 강조하시는 교수님의 가치관을 수업과정 내에서 온전히 체험할 수 있었다. 교과공부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간과해왔던 능력을 다시 돌이켜보며 발전시키고, 진정한 교양의 함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글 · 김현우

IIP - 자율주행자동차반

무한상상과정 자율주행자동차반은 하늘고 공학 활동의 최종 단계이자 꽃으로, 교내에서만 아니라 교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선 엄격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자율주행자동차 반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강의를 수강한 뒤, 조별로 활동을 진행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성공적인 자율 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자동차가 트랙을 자율 주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합니다. 조별로 개발한 알고리즘이 성공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자동차를 자율 주행시키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알고리즘을 수정합니다. 상기 과정을 반복하여 더욱 완벽한 자율주행자동차를 구현합니다. 2학기 말에 대회가 진행되는데, 자율 주행의 정확도, 주행 시간 등을 종합하여 순위가 결정됩니다. 교내 예선에서의 상위 팀들만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 학교가 참가하는 본선에서는 특별 미션이 주어집니다. 자동차가 새로운 정지선 앞에서 정지하도록 하거나 트랙의 한쪽 차선에 근접하여 정지하게 하는 등의 미션입니다. 당일에 공개되며, 알고리즘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이 주어집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반의 연중 활동에는 봉사 활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공학한림원에서 발간하는 논문집인 <청년공학>에 공학 논문을 투고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자동차 반에서는 풍부한 양질의 활동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은 선발 시험과 실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한상상과정 자율주행자동차 반에서 많은 것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글 · 배연욱

III - 기초반

무한상상과정 수업은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간단한 함수들을 입력하는 코딩 수업 위주로 진행되었다. void setup에 led핀에 반복적인 전기신호를 주는 함수나 스피커의 볼륨 조절을 하게 해주는 함수, 서보모터에 모터 각의 변수들을 입력하여 작동하게 하는 함수를 적어 보고 이를 실행해보았다. 이후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visual studio'를 활용하여 제작한 로봇의 아두이노에 이를 입력하였다. 또한 카메라 센서와 연결된 '라즈베리 파이'에 물체감지센서를 입력하고 가상 와이파이를 실행시켜 노트북 화면을 통해 카메라에 담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하였다. 이후 로봇을 작동시켜서 로봇에 부착된 집게로 물병을 들어 올리는데 성공하였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면서 여러 번 연기되게 되었다. 그로 인해 무한상상과정 수업은 토, 일 각각 8시간씩 4일로 단축되었다. 상당히 고된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가치있었던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글 · 최승호

III - 심화반

이번 무한상상과정 심화반에서는드론을 배웠던 작년과 다르게 로봇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로봇반은 로봇의 하드웨어를 직접 조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 동작 프로그래밍까지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서보모터, 스텝 모터, 댐퍼, 바퀴 등 로봇에 쓰이는 부품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듣고 프로그래밍을 통해 직접 로봇을 동작시켜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는 과정인 만큼 마지막 시간에 자신이 만든 로봇이 작동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자의수반을 수강한 후 로봇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 심화 지식을 얻고 직접 경험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활동입니다.

글 · 석채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일제강점기 대중문화는 일본에 의해 이식되었다.”

감정적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으나, 막상 이유를 떠올려보려 한 적은 없었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위 논제에 찬성 혹은 반대의 의견을 표하는 데에 있어 정당한 근거를 함께 들 수 있게 되었다. 학생들은 앞서 예능 PD, 드라마 PD, 경제부 기자님의 강연을 청강하였다. 미디어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쌓고, 대주제인 ‘대중문화’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각 부서의 과목과 관련하여 심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는 영어(E), 문학(L), 독서(R), 정치와 법(Po), 물리(Ph)와 수학(M) 3팀, 총 8팀으로 구성되었다. 신문과 광고, 대중가요, 유성기 등 연구를 위해 이용된 표본은 8팀 각각의 소주제만큼이나 다양했다.

본 프로젝트의 하이라이트는 CEDA 토론이 아니었을까 싶다.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조금은 생소한 토론 방식이었지만, 그동안 각 부서에서 연구해온 결과물을 논리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였다. 다른 부서와 함께 토론 팀을 이루고, 열띤 논쟁을 펼치는 과정에서 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카메라 앞이 낯설기도, 멋쩍기도 하였지만 토론을 비롯하여 촬영된 프로젝트의 영상은 장유정 교수님의 첨언과 함께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유튜브에 게시되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진행되며 우여곡절을 겪을 법도 하였지만, 열정 넘치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금까지 하늘고의 미디어 탐구 못지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글 · 이다빈



R&E

올해 교과기반 심화탐구 프로젝트에서는 ‘한글, 기계문명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문학팀은 한글 기계화의 시작인 ‘전보’의 소설 속 기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정치팀에서는 ‘한글 타자기 자판’의 표준화 논쟁에 대해, 독서팀에서는 ‘휴대폰 한글 자판’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또한, 역사팀은 미국, 일본, 한국의 ‘전신망과 철도망의 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수학팀은 한글 체계를 ‘프랑스 세마포어 신호기’와 ‘영국 셔터 신호기’에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한글 제자 원리의 체계성을 반영하여, 두 전신기의 경우의 수에 자모음, 띄어쓰기, 숫자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배치했습니다. 계산을 통해 정보 전달 방식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면서, ‘한글 입력 체계’에 대해 수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자판은 세벌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논제로 CEDA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기반으로 오탈자 관련 효율, 표준 선정의 정당성, 제도 변화의 사회적 비용 등을 고려하면서, 다각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글 기계화의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탐구하고, 직접 한글 신호코드를 제작하면서 한글이 기계문명과 함께 나아가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글 · 사수현, 이서영





[학생회장단]

1. 주 활동지 : 1층 행복안전부(울이쌤이 화학시간 중 오비탈을 비유할 때 설명하실 정도로 회장단은 행안부에서 많이 발견된다), 1-1 교실 앞(1학년 1반에 학생회가 무려 5명이나 분포해 있어 지령 전달에 용이하다!)

2. 주 담당 : 패밀리 소집 공지하기, 업무 분배하기, 행복안전부 방문 등

3. 일대기 : 9대 조직대표 선거가 치뤄진 직후 행복안전부에서 결성된 이 패밀리는,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하늘고 역사에 이례적으로 공약 총 14개(!)를 내걸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 8시 20분, 행복안전부에 얼굴을 비추었다. 사실 비밀이지만 그들의 최종 보스는 이지혜 선생님이다. 매 식사시간, 쉬는시간마다 학생회 조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일을 배분해 조직을 굴러가게 한다. 2020년 11월은 이들의 주요 활동 시기였다. 코세글자로 인해 가능한 활동이 다소 제한적이었기에 빠른 추진이 필요했다. 10기의 입학식을 대신한 10기 환영회에서 축사와 답사를 맡은 이들은, “할지 말지 고민될 땐 하세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등의 명언으로 9기와 10기를 매료시켰다. 또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JH컵의 건의 및 기획은 9대 조직대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노래방 예약제 또한 실시하여 점심시간과 간식시간에 노래방기계를 지날 때면 학생들의 피꼬리 같은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곤 했다. 이 외에도 생활관 자치조직과 매니페스토 실천조직에서 간담회를 진행하여 공약을 하나하나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 9대 조직대표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 계단, 특히 행복안전부로 가는 계단을 매일 오르내릴 수 있는 튼튼한 다리가 필요하다. 거의 뭐 9대 조직대표에겐 하체 운동이 필요 없다고 할 수 있다. 우리 9대 조직대표의 업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To Be Continued.



[기획재정부]

1. 주 담당 : 뽕 뜯고 다니기 (각 반 돌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하기)

2. 주 활동지 : 대회의실 문 앞에서 돈냄새와 함께 출몰함.

3. 일대기 : 이 패밀리는 돈을 벌어들인 만큼 써버리는 수익률 0%를 가진 의문 가득한 패밀리다. 1년 중 2번에서 3번 정도 이들이 뽕 뜯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다년간의 쇼핑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물건을 찾아와 현혹하곤 한다. 그러한 탓에 쿠팡, 1N번가 등의 사이트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다닌다. 이들이 일을 시작하면 주 활동지에서 돈을 아주 멋있게 세는 모습이 관찰된다. 하지만 이 때 이들에게 접근하면 안 된다! 그들은 몰아치는 지폐들로 정신이 없을뿐더러 지폐와 동전 냄새가 머리 아프게 만들 것이다. 이걸 하나의 짜라시지만, 이들은 ATM과 너무 친해서 돈을 들고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이들은 하늘고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만, 그 일을 절대 직접 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에게 파견되어 돈을 걷어오고 물건을 뿌리는 반장만이 그 실체를 알 뿐이다. 바야흐로 자율 동아리 모임이 활발했던 대회의실, 엄청난 토론이 휘몰아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천 원짜리 127장을 정확하게 세는 능력을 갖고 있다. 방대한 주문 수량으로 눈이 빠지도록 엑셀을 정리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숫자를 계산해 내며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 심지어 백 원짜리 하나 하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온몸을 바쳐 지켜냈다. 돈을 담은 봉투를 어디를 가든 들고 다니며 그들의 업무를 무사히 수행했다.



[학교안전부]

1. 주 활동지 : 하브루타실, 기숙사, 학교 구석진 곳들

2. 주 담당 : 냄새 맡고 다니기(탐지견), 마스크 채우기, 잠복근무, 쓴소리

3. 일대기 : 개꿀부서라는 소문이 돌았던 이 부서는 올해부터 기숙사 자치 위원회 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그러한 소문 또한 눈 녹듯이 사라졌다. 학교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교내 모든 행사들에 빠지지 않고 관련되어 있다. 부장과 차장이 자주 싸우는 듯한 모습이 목격되어 많은 이들이 분열을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부장의 일방적 갈굼에 불과하다며 차장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친남매 케미, 사실 우리 사이 좋아요 ㅎㅎ) 일 없는 부서 아니냐는 주위 친구들의 잘못된 인식 속에서 항상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서로 안전 부서 이외에도 다른 부서일 보충으로 바빠 날아다닐 지경이라며 한탄하는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모든 행사에 안전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 한층 일이 많아졌으며 이제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곳이 어딘지 궁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한다. 더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따끔한 잔소리를 날려 안전부는 무섭고 성질이 드럽다는 인식이 생기기도 했지만 사실 그들은 여린 마음의 소유자로 자신들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도 잔소리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에요...ㅠㅠ)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학교가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그들의 임무는 계속된다.

[학교홍보부]

1. 주 활동지 : 학생회실, 하브루타, 101

2. 주 담당 : 이미지메이킹, 인력모집(섭외...? 교무실에 가면 선생님 죄송한데요로 첫 멘트를 시작하는 우리들), 학생회의 기술자(손으로 하는 건 다 우리 담당이라구요), 현장관찰(always 카메라와 함께)

3. 일대기 : 1년치 일을 학술제 기간에 몰아서 하는 학교홍보부. 학술제에서 볼 수 있는 온갖 디자인과 영상 촬영 등 푹푹 손으로 제작하는 것들은 이들의 담당이다. 학술제 준비 기간이 되면 그들은 학술제의 막을 열 화려한 오프닝 영상을 위해 학생회실에서 열심히 콘티를 짜고, 촬영을 하러 카메라를 메고 온 학교를 뛰어다닌다. 교무실에 가면 영상 출연을 부탁하러 애절한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는 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목격담이 전해지기도 한다고... '학술제 기간이 아닐 때에 학교홍보부는 대체 뭘 하나'라는 억울한 백수 논란에 시달리기도 하는 이들은 평소에도 학교 페이스북 페이지로 들어오는 메시지에 일일이 정성스러운 답장을 남기며, 반짝반짝 멋있는 하늘고의 이미지를 위해 늘 애쓰고 있다. 외부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하늘고의 숨겨진 장소들을 알리고자 한 달에 한번 사진전을 열기도 하고, 솔깃한 정보들이 있으면 카드뉴스를 만들어 게시하기도 한다. 학교를 외부에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이들만이 차세대 학교홍보부가 될 수 있다. 중요한 타이밍에 꺼낼 카메라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은 필수. 꿈과 열정이 가득한 메리메리 하늘고의 이미지를 위한 선한 인상과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는 몸가짐을 지녀야만

한다. 뛰어난 디자인 능력과 손재주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있는 업무 때문에 뛰어난 시간관리능력과 다수의 섭외로 인한 화려한 말솜씨를 지닌 학교홍보부. 페이스북 페이지에 들어오는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남기는 이들은 오늘도 하늘고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1. 주 활동지 : 노래방, 체육관, 운동장, 행안부

2. 주 활동 : 체육인 양성, 현장임무 담당, 노래방 사업

3. 연대기 : 체육인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이 부서는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체육대회와 학술제 등 학교 행사를 총괄한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코로나 19 로 인해 실직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하늘고 노잼 라이프에서도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그들은 비밀리에 JH컵과 노래방예약제, 버스킹, 학술제 공연을 준비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19라는 거대한 장벽에 부딪혀 결국에는 많고 많은 계획 중 JH컵과 노래방예약제 밖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아쉬움과 상실감만 남긴채 코로나 19에 맞서 JH컵과 노래방 예약제를 진행시키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마스크를 외쳐대는 탓에 웬만한 선생님 못지 않게 마스크에 집착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고 한다. (텍스크는 마스크가 아닙니다라는 유행어를 밀기도 했다고...) 한창 노래방예약제가 활성화 되던 시기에 누군가가 마이크 선을 끊어놓고 뒷정리는 신경도 쓰지 않았기에 할 수 없이 경고문을 만들어 노래방 입구에 붙여야했던 마음 아픈 일들이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 조현정, 김민영은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달렸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계획한 행사들이 실행될 때마다 학생들의 행복도와 함께 그들의 피로도 또한 증가했다고 한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하는 이들의 활약은 어디까지인가...



[학습봉사부]

1. 주 활동지 : 웬지 지하인 듯 지하아닌 지하같은 1층 (행정실-하부르타실-행안부-101)

2. 주 담당 : 청소하기, 급습하기, 판별리기, 협상하기(feat.미인계)

3. 일대기 : 각자 활발하게 활동중이던 하늘고생 문소율과 이서영. 온라인 클래스를 무사히 마치고 학교로 돌아온 이들은 원대한 계획과 함께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학생회 진입에 성공한다. 공부라면 지치고 질리는 이 학교에서 이름마저 학습봉사부라니..... 라며 절레절레 할 수도 있겠지만 노잼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한번도 안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하브루타실을 들어봤는가. 하늘고 임대 사업인 하브루타실은 종류 불문 다양한 패밀리들에게 아늑한 아지트가 되고 있다. 요즈음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다던데... 출판 사업이라나... 그렇다 이들은 대장 패밀리의 공약 중 엄청난 인기로 당선 일등공신이 된 스티디 플래너를 제작한다. 하늘고인듯 하늘고 아닌 하늘고 같은 플래너를 만들어달라는 의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회실, 행안부, 행정실, 하브루타실을 돌아다니는 학습봉사부(ㅎ셋뚜셋뚜)는 본관, A동, 체육관동 등 하늘고의 1층이란 1층은 다 지배해버렸다. 어느날은 하고자 하는 일을 학교에 설득하기 위해 화려한 글솜씨와 엄청난 분량으로 계획서를 써내려가 사 회장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청소부터 디자인까지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하는 학습봉사부가 되기 위해서는 지치지 않는 체력, 넘치는 아이디어, 그리고 빠릿빠릿한 일처리가 필요하다. 대혼란의 2020년, 사전계획들이 한줌의 먼지처럼 사라지는 순간 속에서도 일중독으로 알려진 이들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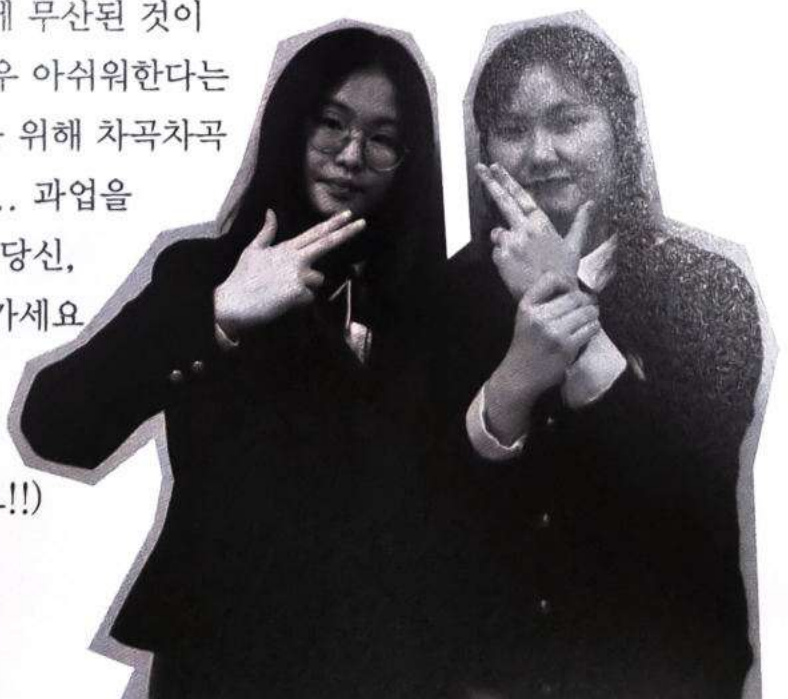
[학생활동지원부]

1. 주 활동지: 상시로 투입되는 행동대장 학활지는 한 곳에 고여 있지 않는다. 항상 당신의 뒤에서 함께 움직일 것이니! 당신의 무대, 그곳이 바로 학활지의 무대

2. 주 담당: 서포터이자 힐러 / 학생지원프로그램 관리자 / 학생회의 아이디어뱅크 / 행동대장: 그냥 하늘고에서 다수가 모이는 곳이면 일단 뭐든 하고 있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분들까지 지원한다는 소문이...?(하늘활동지원부) / 분위기 메이커: 왈르라라르 / 프리허그: 서로를 잘 안고 있음

3. 일대기: 학생활동 지원부 일대기

9대까지의 명불허전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활동지원부. 학활지를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학생들의 편의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자 융통성과 유들유들 유도리를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서 + 하늘 프렌즈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생활관/선생님들과의 의견을 조율하는 부서 (맨날 교무실가는 교무실 지박령 컨펌이 제일 무서웠어요.) 9대 설립이후 자칭 학생회 아이디어뱅크 겸 오지라퍼, 아무도 내향성이라는 거에 공감해주지 않지만 스스로는 격하게 공감하는 INTJ 부장과 세상에서 제일 야무지고 똑부러지고 귀엽고 적극적인!! ISTJ차장님이 만나 학활지 프로그램의 토대를 세우니,, 그 전설이 10대까지 이어지더라. 다만 9대 학활지는 학생지원의 전문화를 꾀하고자 주력 임무였던 자치법정에 더 나아가 <학생 명사초청 특강>, <책 읽어 드립니다>, <대회 및 학술논문 기록>, <학술제 외부인사 초청>, <실험실 및 특별실 대여 공식화> 등 학생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공식화하고자 하였으나 corona i nom ja sik 때문에 무산된 것이 한둘이 아니라 부장과 차장이 매우 아쉬워한다는 후문. (9대의 전설을 이을 10대를 위해 차곡차곡 기록해둘테니 뒤를 부탁하겠습당.. 과업을 완수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거기 당신, 불편한게 생기면 일단 학활지로 가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 해줄겁니다!(원하면 찐하게 뽀뽀 해드림_차장:언니 전 못해요!!)



|동아리연합부|

- 1. 주 활동지 :** 어디에서나 출몰함.
- 2. 주 담당 :** 얼굴마담, 선전포고(동아리 연합부에서.. 알립니다..^^), 독촉(N월 N일 N시 NN분까지 전송 안 하면 패널티 부여합니다.)
- 3. 일대기 :** 이 부서는 하늘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자율적인 학생 주도의 협업 활동이 보장되는 교내 동아리 활동의 근간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학생회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파로 학생회의 큰 축을 맡고 있다. 특히 매해 초와 말에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편이고, 그 시기에는 학생회실 구석에서 각종 계획을 분 단위로 짜며 행복해하는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심해라, 1초라도 늦는다면 당신의 서류는 소리소문없이 사라질 것이다. 매해 개학 시즌, 드디어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된다.

주 담당을 발휘하여 휘몰아치는 모든 업무를 해치운다. 언제나 바쁘게 뛰어다니며 신입생의 동아리 선발 업무를 한 치의 오차 없이 완수해내는 그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치열한 개학 시즌이 지나고 나면 동아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그들은 모든 동아리의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힘쓴다. 휴식은 그들에게 사치이기라도 한 듯 방학 시즌에도 다음 활동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는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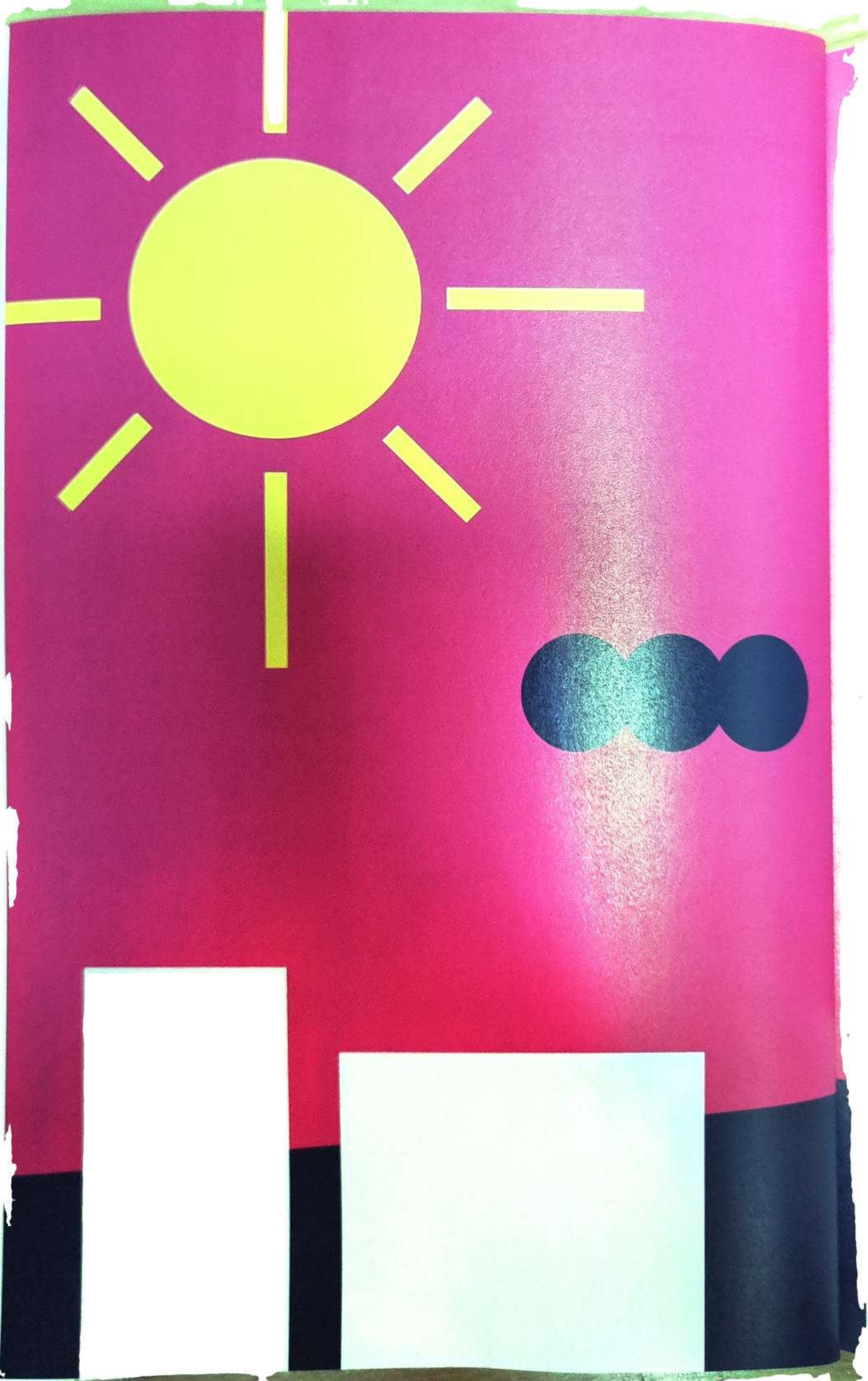


학생회에서도 뛰어난 업무 능력을 보유한 그들이기에 언제나 성공적으로 일을 끝마치는 '행동대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어디서든 신출귀몰하게 나타나 모든 동아리 문제를 해결한다. 이미 모든 동아리를 손에 넣어버린 패밀리.. 모든 동아리는 이들에게 장악된 지 오래다.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과 더불어 계단을 빠르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신체 능력, 어떠한 일도 견뎌낼 수 있는 단단한 멘탈 등 모든 것이 겸비되어야만 우리 패밀리가 될 수 있다. 즉, 이 멤버들은 이미 위의 능력을 갖춘 지 오래라는 뜻이다.~ 1층 학생회실과 행복안전부에서 5층 면학실까지 밥 먹듯 오르내리는 그들(층 이동 점유율 1위라는 소문이 있기도 하다.)에게 응원의 의미로 엘리베이터 카드라도 지급해줬으면.. 하는 소망을 품고 산다.

이제는 누군가의 그림자만 봐도 스캔이 되듯 그 사람의 정규동아리와 자율동아리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지정, 모든 학생의 신상은 이미 우리에게 파악됐다. 많은 업무를 언제나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패밀리 간 유대감이 매우 크며 단단히 결속되어 있다. 이들은 동아리 연합부의 부원으로서 강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모든 동아리인의 자치 활동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힘쓰고 있다더라.







朝

과히 찬란한 미소를 으레 보내주시다니
그 따스함이 눈물 나도록 시려워
햇볕의 향기 또한 만끽한 후
달궈진 나의 온기를 담아

벗어가는 나의 심장에 무뎠던 채 연명하였으나
사뭇 무뎠던 고단함이었을 뿐
아린 통증이 온몸에 파고들어 저러 왔지만
당신이 내 심장에 깊이 각인되어 있어
고통의 연속이었을지라도
함께한 모든 순간은 강녕하였기에
그 모든 순간을 담아

감사함과 미안함과
사랑을 담아

정채윤, 〈나의 마지막 사람에게〉



▶ 항공 동아리, AERO



항공우주공학의 메카, AERO

조회수 1,689,142회



AERO

항공동아리

AERO는 Mnj문화복지재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42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와 견학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AERO는 자체 동아리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에는 컴퓨터, TV 및 각종 공학 기자재를 완비하여 시뮬레이터 훈련과 공학 활동 지원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300W급 소형풍력발전기 실증 연구와 태양광 기반 장기체공무인기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 견학과 아세아항공전문학교 737, C172 FTD 시뮬레이터 교육 등의 외부활동을 진행했어요. 항공분야는 물론이고 동아리 합동 프로젝트를 통해 기계공학, 소프트웨어 분야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으니 항공분야를 지망하지 않더라도 Aero와 함께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



General Aviation 학술교육, 세계항공컨퍼런스 참가
태양광 기반 장기체공무인기 프로젝트 진행할 예정!

AERO

조회수 1,189,203회



▶ 화학 동아리, Alchemist



역대급 가족'같은 분위기 'Chemistry(화학)'실험하다가 떼려치고
'Alchemy(연금술)'로 갈아탈 뻔한 동아리 'Alchemist' 리뷰 | 알케맨 ep. 1

조회수 1,793,842회



Alchemist

화학동아리

JOB것들아~~~~♡ 인력소장이다,,,,~~~

오늘은,, 하늘고에서 유일무이한,, 화학실험,,~ 하는 곳,, 가봤는디,,~
친구들 수준이,, 장난 없더라,,~ 다양한 실험을,, 했더니,,~
생기부가 빵빵하네~~ 동아리 분위기도,, 그냥 미쳤어,,~~~^^
실험 계획부터,, 보고서 작성,,^^ 그리고 후속활동까지 하니,,~
바로 대학에서 채간다고 그러더라고,,ㅎ 뭐,, 그랬다구,, 역시 알케 최고라구,,~

#알케맨 #alcheman #형준쌤과_아이들 #ALCHEMIST
#알케리뷰 #동아리리뷰 #스튜디오하늘하늘

다음 영상



바팜 연합활동 타이레놀, 아스피린 합성 실험

☆이과 최강 동아리 총출동★ 월클동아리란 이런겁니다...
ALCHEMIST X BIOFARM 연합활동 리뷰

Alchemist

조회수 1,217,839회

▶ 건축 동아리, Archi



[Archi 유튜브] Archi 구독자 17억 명 축하 기념 QnA!

조회수 1,829,120회



Archi

건축동아리

하늘고등학교 건축 동아리 Archi입니다.

스웨덴 할머니와 잡초, 그루트까지.. 모든 것이 있는 동아리, Archi!

하늘고등학교 건축 동아리 Archi입니다.

+)

그들의.. 친-목

자타공인 자기들끼리만 친한 자발적 아싸 '아키'

오늘아눔(오~ 좀 놀 줄 아는 놈인가?)

그들의 친목.. 최초공개!

다음 영상



하늘고에 '토끼'가 있다?!

하늘고등학교에만 있다는 유일무이의 구조물,

'토끼장'을 재설계한 Archi

설계부터 제작까지 모든 것을 해내버리는

아키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Archi

조회수 1,273,184회



빅데이터 동아리, B.O.S.S



Based On Statistics, for Society; 보스를 소개합니다~!

조회수 1,489,102회



B.O.S.S

빅데이터동아리

B.O.S.S는 경제, 정치, 홍보등 다양한 사회 분야와 통계, 프로그래밍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빅데이터라는 도구를 통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배우는 '빅데이터 동아리'입니다.

한 분야에 국한 되지 않아 본인의 진로에 맞게 활동할 수 있고, 의미있는 동아리 활동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Rstudio, Python과 함께하는 동아리 시간

+) 언어계량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단어구름 만들기까지!

B.O.S.S

조회수 1,382,945회

▶ 생명과학 동아리, Bio Farm



안녕하세요. 생명과학 장인 바팜고입니다.

조회수 1,812,573회



Bio Farm

생명과학동아리

#바이오팜 #생물실_독점 #최고_최다_활동
#9년_전통 #지혜쌤의_후예들

실력, 전통, 수준 모두를 갖춘 바이오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정복한 후
지혜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신청은 힘이 됩니다.

****BioFarmGO YouTube channel subscribe please****

다음 영상



아스피린 - 타이레놀 합성, 추출 및 수득률 개선 실험

+) 교내 생활공간균 배양 및 비누의 항균효과 실험

Bio Farm

조회수 1,473,292회

▶ 경제경영 동아리, CiPiE



[CiPiE] 동아리는 씨피로 하세요... 제발

조회수 1,723,951회



CiPiE

경제경영동아리

#씨피 #동아리 #인천하늘고_최강_갓동아리

인천하늘고 문과최강동아리 씨피를 소개합니다.

엄청난 경제 경영 실력과 트렌드를 읽는 센스감 동아리로,
매년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진행합니다.

모의 창업, 컨설팅, 마케팅, 주식 등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대체불가 씨피를 지금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다음 영상



씨피는 돈벌어

\$\$

CiPiE

조회수 1,368,415회

▶ 지구과학 동아리, GAEA



[Playlist] 나른한 금요일 오후, 우리 GAEA에 와 있어

조회수 1,527,398회



GAEA

지구과학동아리

#지구과학_동아리 #생태동물부서 #천문천문부서 #환경보건부서 #GAEA

[00:00] Geo-scientical Advances within Environmentalogy and Astronomy 탄생

[06:26] 천체망원경 배우기

[07:03] 다중우주론, 멸종 동물 관련 토론

[07:10] 스웬바이, 해양산성화, 위치 추적 시스템 주제 발표

[09:25] 기본천문학 배우기, 환경호르몬 물질 해수 전파 탐구

[10:30] 주제 발표, Phospine on Venus, 생명가능지대 탐구

[11:20] 연간 천문현상 팸플릿 제작, Geo-locater 실험

다음 영상



직접 실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 멸종 동물, 복원해도 되는 걸까?

찬반 토론으로 유익함 뽐뽐!

GAEA

조회수 1,378,297회

수학탐구 동아리, GLON



GLON의 2020년

조회수 1,626,293회



CLON

수학탐구동아리

모든 학문의 교집합에는 수학이 있다!

공집합이 아닌 집합 GLON의 임의의 부원 N 에 대해,
 N 은 외모와 지성을 가지고, 수학의 美를 탐구한다.

하늘고의 위대한 동아리, 모두가 원하는 GLON으로 가자!

다음 영상



혼자서는 하기 힘든 수학적 주제를 함께 탐구!

+) 인천수학축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및 수학탐구발표대회 참가

GLON

조회수 1,482,57

▶ 컴퓨터 동아리, HAM



하늘고의 실리콘밸리! 인재를 찾습니다.

조회수 1,715,266회



HAM

컴퓨터동아리

열정과 실력이 넘치는 인재를 찾는 동아리!
하늘고 유일무이 소프트웨어 전문 동아리 HAM입니다.

컴퓨터를 좋아하거나 컴퓨터를 배우고 싶은 학생
누구나 지금 바로 HAM으로 들어오세요.

COME TO HAM!

다음 영상

django

Django - 기초부터 제작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소외되는 학생없이
Django를 통해 웹을 만들 생각입니다.

AERO

조회수 1,257,116회

▶ 물리 동아리, HIM



[힘이 솟는 HIM 유튜브] 힘이 솟는다는 물리동아리 HIM, 익히 소문은 들었지만, 과연?

조회수 1,793,842회



HIM

물리동아리

하늘고등학교 대표 물리동아리 HIM

행복한 물리동아리 HIM, 활동마저도 즐겁고, 새로운 것이 가득하다!

다음 영상



바팜 연합활동 타이레놀, 아스피린 합성 실험

오늘은 친구들과 주제를 정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날!
서로의 생각을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아, HIM이 이러니까 좋은 동아리, 잘 되는구나!

HIM

조회수 1,391,873회

문이과 융합 동아리, I-COM



우리는 대기업 I-COM

조회수 1,836,717회



I-COM

문이과융합동아리

원조 문·이과 융합 학술동아리로
인문사회·화학생명·수학물리 세부서로 구성되어있다.

'Innovative'의 'I'와 'Company'의 'COM'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기업형 동아리 활동 및 문·이과 분야를 넘어서는
4차 산업혁명의 인재 상을 추구함.

다음 영상



인천하늘고의 코로나19 방역법에 대한 논문 작성!

각 팀마다 보고서 및 논문 작성!

I-COM

조회수 1,378,133회



▶ 영자신문 동아리, INKling



(수시왕) 카워쌌게 깃잎을 드려봤습니다.

조회수 1,578,394회



INKling

영자신문동아리

#잉클링 #동아리_첫날은_당근케이크_made_by_카워
#영자신문동아리 #하늘고유일외국어동아리

잉크를 쓰는 사람들, linking!

1기부터 시작하여 지금은 11기를 기다리고 있는 전통 있는 동아리입니다.
하늘고 유일의 외국어 동아리인 만큼, 교내 다양한 소식을 영어 및 한국어로 전달합니다.
기사는 진로와 관련지어 자유롭게 작성!

진로를 구체화시키고 싶은 친구, 혹은 갑작스럽게 진로가 바뀐 친구 모두에게 안성맞춤인 이 곳!
'문과 + 이과 + 카워쌌 = 잉클링'은 국룰이죠!

다음 영상



(기사왕) 데드라인과 맞짱 뒀습니다.

하늘고의 TIMES!
매월 색다른 주제의 기사들로 영자 신문을 완성하는
잉클링의 간지, 월간지 제작 프로젝트!

INKling

조회수 1,416,782회

▶ 융합과학 동아리, ISHA



[VLOG] 하늘고 최강 융합과학동아리 ISHA를 소개합니다! | 인천하늘고등학교 동아리 | 갯
조회수 1,627,389회



ISHA

융합과학동아리

안녕하세요 하늘고 1기부터 내려온 정통파 동아리 아이샤입니다!

이과 최강 동아리를 찾고 계시다구요?
생기부 뽕뽕한 동아리를 원하신다구요?

그렇다면 저희 ISHA는 어떠신가요?
앞으로 보여드릴 멋진 행보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



[메이킹영상] 3개교 컨퍼런스 촬영 비하인드

(ft. 하나고, 용인외고)

ISHA

조회수 1,712,683회



법학 동아리, LAWgics



[로직스 선공개] 로직스, 베일에 쌓여 있던 그들의 인기 비결을 공개하다?!

오늘 밤 11시 EP.1 <로직스를 소개합니다>

조회수 1,711,829회



LAWgics

영자신문동아리

하늘고의 유일무이한 법학 동아리로,
전문성, 멋짐 그리고 재미를
모두 잡은 로직스의 비결을 파헤쳐 보았다.

그 비결이 궁금하다면?

오늘 밤 11시 EP.1 <로직스를 소개합니다> 본방사수!!!

다음 영상



[현장스케치] 2020 LAWgics 모의재판에 가다

실제 법정을 방불케 하는 열기,
LAWgics 모의재판 현장 속으로 가보았다.

LAWgics

조회수 1,578,192회



온에어는 하늘고 최고의 동아리입니다. 근데 이제 친목을 결들인

조회수 1,917,835회

레
조



ON 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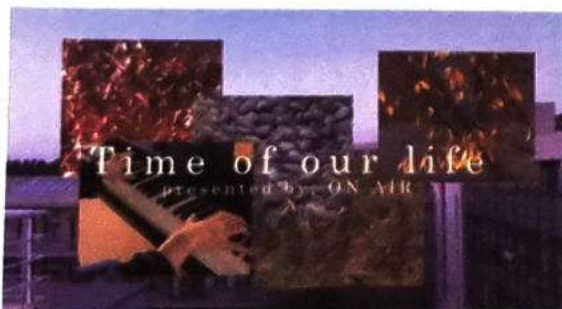
방송부

'가장 친구같은 동아리'
미래의 방송인들을 위한 활동이 많습니다.

연출자, 촬영감독, 조명감독, 아나운서 등등
방송에 관련된 직종은 무엇이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활동한 결과인 영상물을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업로드해서
눈에 보이는 활동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다음 영상



수능 응원 영상

+) 학생회장 선거 토론회

ON AIR

조회수 1,617,842회

▶ 자유전공 동아리, P.I.P



레전드 융합 갓동 P.I.P 파헤쳐 보고옴ㅋㅋㅋㅋㅋㅋ

조회수 1,670,385회



P.I.P

자유전공동아리

P.I.P는 'Possibility In Possibility'의 약자로,
가능성 속의 가능성이라는 뜻이다!

다양한 분야에 흥미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모여,
'자유전공'이라는 주제 속에서 깊고 다양한 연구를 진행한다고?!
무슨 부서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당장 ㄱㄱ!

신문 브레인스토밍, 월드 카페, 영화 파헤치기 등 다양한 융합 활동이 준비되어 있다고..?!
관심 있는 분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깊게 탐구하여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찾아준다!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적 사고력까지! 미래 인재상에 걸맞는 학생이 되고 싶다면 빨리 ㄱㄱ

다음 영상



역대급 조회수에 이어 2탄 '바이러스'로 돌아왔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탐구한 생명부서부터
백신의 운반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탐구한 환경부서까지! 신박했던 화학부서와
언론부서의 주제? 다음 레전드 3탄 키워드는 무엇일까?

INKling

조회수 1,481,925회

▶ 로봇공학 동아리, Pro.Passional



미친 동아리

조회수 1,571,893회

제
호



Pro.Pass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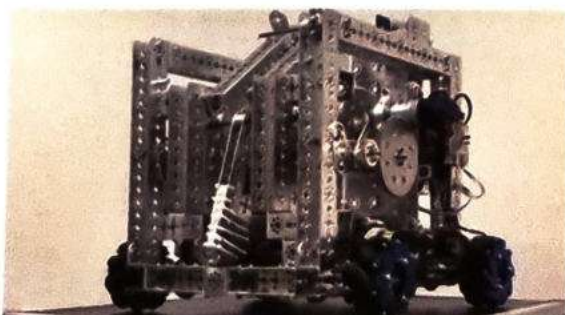
로봇공학동아리

로봇공학 동아리 '프로.패셔널'이다.

공학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모여
로봇 및 기계의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아리다.

들어와라.

다음 영상



테트릭스 로봇 키트를 활용한 농구 로봇 설계 및 제
+) BLDC 모터를 기반으로 한 전기자동차 연구 및 개발

Pro.Passional

조회수 1,417,892회



제목을 못 정하겠어요... 에쓱씨 짱!!!!!!!!!!!!!! 최곡!!!!!!!!!!!!!!

조회수 2,983,756회



S.O.C

광고홍보동아리

하늘고 유일의 광고홍보 동아리 S.O.C
부원끼리의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
늘 화목한 분위기인 그들은 뛰어난 기획력과 아이디어로
하늘고를 놀라게 할 무궁무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올해는 더 많고 툭툭 튀는 S.O.C만의 활동이 11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문이과 상관없이 자신의 다양한 관심 분야를 펼칠 수 있으니
색다른 아이디어와 함께 가족력 넘치는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다면

S.O.C.로 쓱~

다음 영상



자신이 인상 깊게 보았던 광고를 분석?!

광고 기법을 스스로 연구하여 습득하는 이 쾌감!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이 짜릿함!

S.O.C

조회수 2,381,374회

▶ 융합학술연구 동아리, Scholar



내신, 연구, 예체능까지! 다 잘하는 사기캐만 모아놓은 동아리가 있다?!

조회수 1,846,701회



Scholar

융합학술연구동아리

꿈이 없는 소년들이여, 또 꿈이 너무 많아 못 고르는 소년들이여, 스콜라로 오라!

2021 융합동아리 스콜라입니다:)

문과와 이과는 극과 극? 놉.

요즘은 두 능력이 모두 어울어진 융합형 인재가 대세!

T자형 인재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스콜라 지원은 필수!!

매년 학술제를 휩쓰는 스콜라의 주제 탐구 세션!

각자의 분야에 대하여 기존의 방식을 넘어선 새로운 시각으로

깊은 연구를 진행해온 스콜라는 언제나 엄청난 주제로

모두를 깜짝놀라게 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다음 영상



2019 Scholar의 자체 제작 활동인 Scholauréal

스콜로레아를 통해 비판적 수용 능력을 기르고 확장적 융합까지 실현한다고?!

Scholar

조회수 1,591,824회



국제사회 동아리, UNESCO



아이돌 윤애슬, 유네스코 엔터와 재계약 '의리' "유네스코 아니면 아무데도 가지 않겠다." 화제
조회수 1,826,731 회



UNESCO

국제사회동아리

댓글 39,102개



윤애슬의...

언니 보고 싶어서 사육 갔다가
내가 언니 이번 유네스코 레인보우 프로젝트 완성시켰잖아ㅜㅜㅜㅜ



유네슬짱!

오늘의 유튜브 알고리즘은
나를 바른 곳으로 이끌었군...

다음 영상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Memory of
the World

제 3차 모의유엔 11월 20일 열려...

오늘의 화제

UNESCO

조회수 1,483,921 회

▶ 정치외교 동아리, VANK



여름의 독도 현수막을 든 9기, 10기 반크

조회수 1,571,893회



VANK

정치외교동아리

하늘고 유일무이한 정치/외교 동아리로서

2년 연속으로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관하는
'독도지킴이' 활동을 따내

정치/외교/역사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활동을 할 수 있다.

다음 영상



독도와 관련하여 책자 작성 및 제작

독도에 대한 객관적이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책을 제작했다.

VANK

조회수 1,468,173회



[인기 급상승 동영상] 죄송합니다....

조회수 1,826,371회



Volunteacher

교육동아리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잘할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 갖동이 되어버렸네요.

완벽한 상규 선생님과 기장, 부원들 모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희는 그저 토론, 교육 단체 기부, 굿즈 제작, 두드림 학교 정도의 활동에서 마무리하려 했는데....
어쩌다가 10년을 갖동으로 지내버렸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미안해.

- 교봉 일동-

다음 영상



열띤 토론으로 젖어버린 마스크

자유학기제 찬반 토론

Volunteacher

조회수 1,341,299회

▶ 인문학 동아리, 너비



감성을 자극하는 '너비' [playlist]

조회수 1,628,189회



너비

인문학동아리

" 조금 급하더라도 조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

각박한 생활 속에서 여유와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는 밴드 '너비'

다음 영상



인문학 뽕차게 하는 '너비' 포럼 영상 모음

+) 저희가 코로나로 답사만 못 가게 되었습니다..

너비

조회수 1,573,821회



▶ 의료봉사 동아리, 카리타스



교내 유일 의료봉사동아리 카리타스 VLOG

조회수 1,736,103회



카리타스

의료봉사동아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교내에 유일한 의료 봉사 동아리 카리타스입니다 :)

확실한 진로가 없어도! 중간에 진로가 바뀌더라도! 걱정마세요 :)

다음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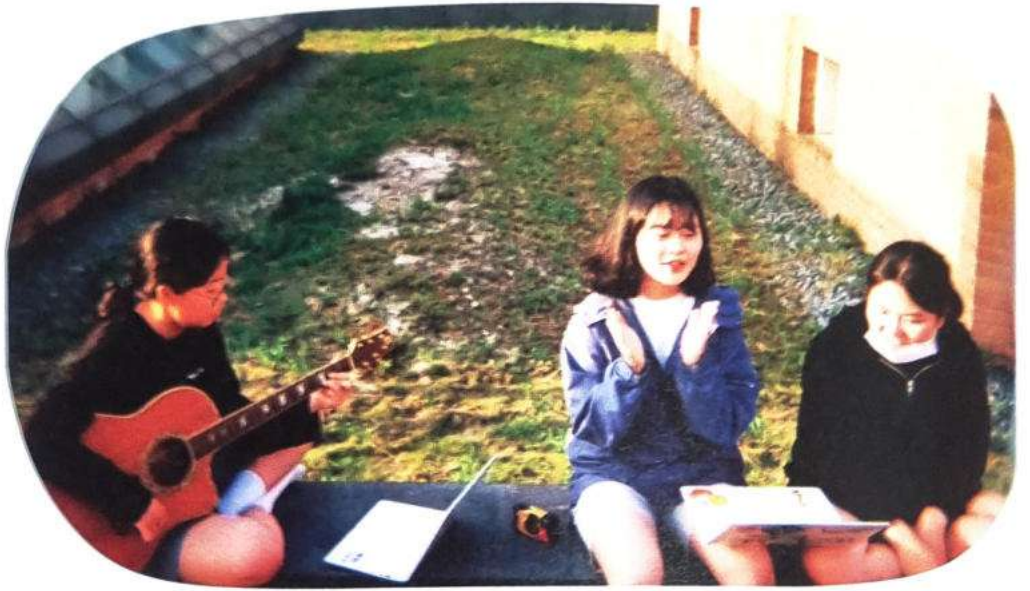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이하여 야심차게 준비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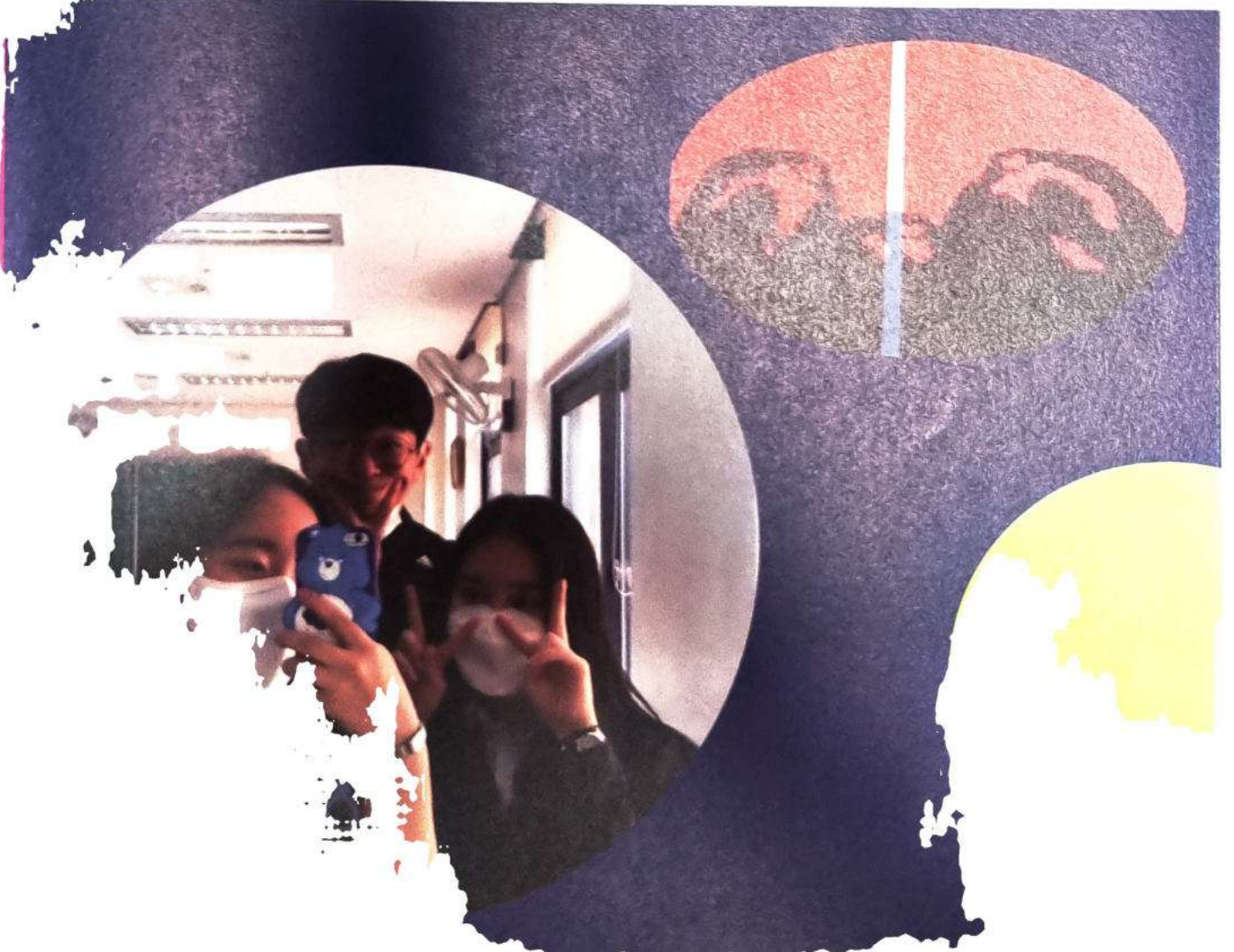
바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물품을 제작하여 기부하는 캠페인 활동입니다.

열심히 도안도 만들고, 제작 맡기고 홍보 포스터까지 직! 접! 제! 작! 하는 카리타스 부원들, 보기 좋죠?

카리타스

조회수 1,548,192회









午

뜨거운 햇볕이 마당을 태우고
열린 창문 앞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맞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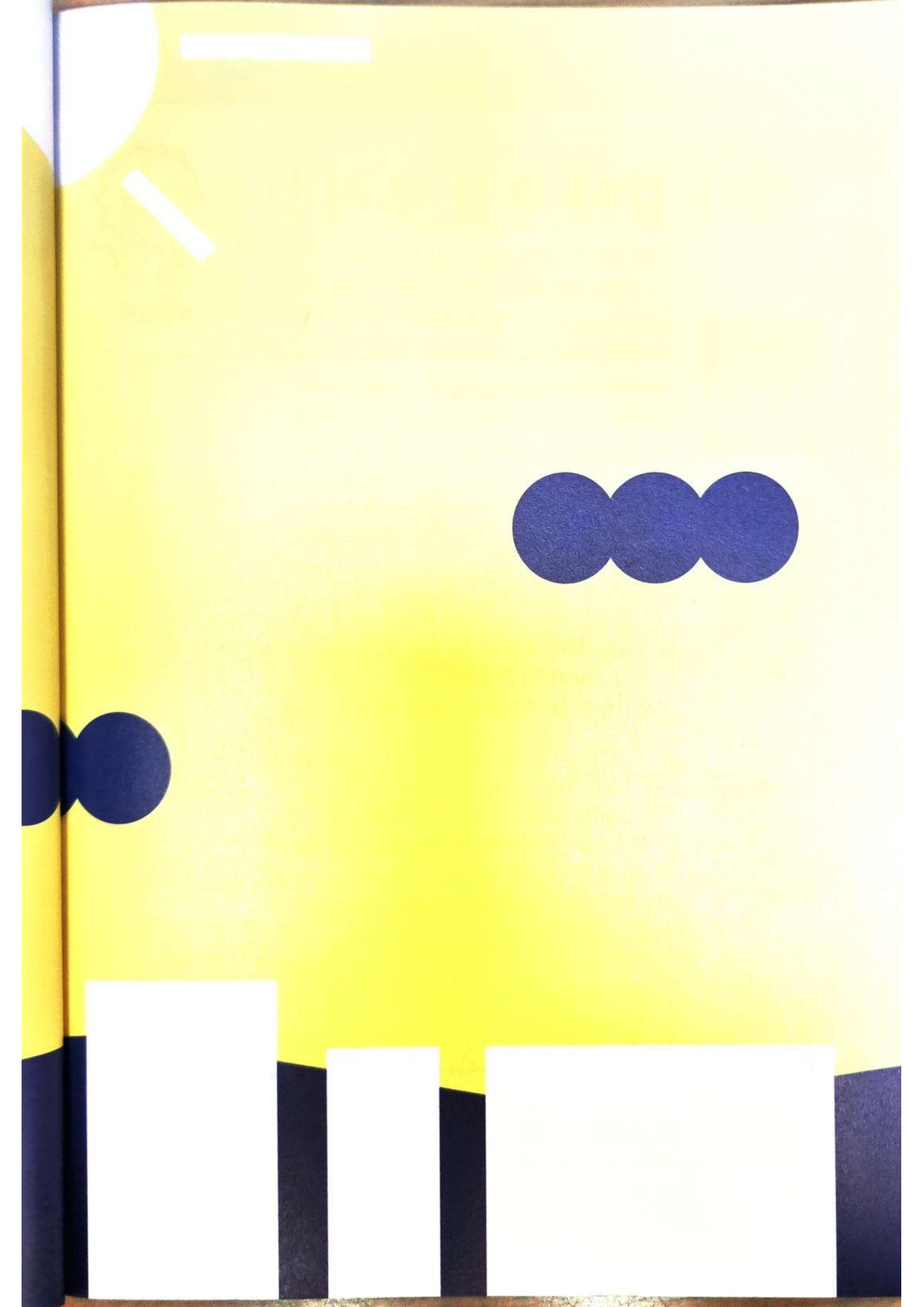
여름 바람 실컷 맞으며
그림일기에 두 사람 열심히 그려내고
수박 먹으면서 얼굴에 씨 붙여대던

지금은 다 녹은 아이스크림 같은 그 시간

언제 다시 그림일기를 쓰고
수박으로 연주할까

이번 여름도 그냥 지나간다

권하진, 〈三夏的我〉



일타 강사 수강 후기!



정주원 선생님

-
- 1) 내가 말했지? 부교재만 돌려도 70점은 나와~
 - 2) 수업 시간에 즐았던 적이 한 번도 없음. 진심임.
 - 3) 부교재 열심히 반복하세요. 그냥 열심히 하세요.



송남영 선생님

-
- 1) 수업하다가 '음 근데 있자나 애들아.' (꼭 창문 보면서 해야 함.)
 - 2) 수업이 체감상 빨리 끝나서 진도 잘 안 나갔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공부해보면 정반대.
 - 3) 이현영 선생님 성대모사... 꼭 들어보시길.



배성규 선생님

-
- 1) 쌤이 그러니까 군대에 있을 때~ 흐허 군대에 이제~
 - 2) 마침내 국어가 재미어짐.
 - 3)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 아직 잊지 못합니다.



박영주 선생님

-
- 1) 영주쌤과 함께하는 윤리와사상 수업시간~~~
 - 2) 탄탄한 스토리텔링과 자료로 이해가 매우 잘 됨!
 - 3) 쌤 프린트 잘 보고 사료를 중심으로 볼 것!



최상규 선생님

-
- 1) 자아~ 한다~ 애들아~ 잘 보라아~ 진짜~ 한다~
 - 2) 매우 꿀잼. 인생의 길을 찾는 의미 있는 말들이
매우 많으니 기대해도 좋다!
 - 3) 웃다보면 수업이 끝나있으니 정신 똑바로 차릴 것!



고현정 선생님

-
- 1) 굉장히 우아하시고 따뜻하신 말투이다.
 - 2) 현정쌤 말대로만 하면 반고흐 레오날도 다빈취
따라잡기 가능이니 팁을 따를 것!!
 - 3) 그림 그리거나 만들기 성의만 보여도 점수 빵빵하게 주심!!



최한림 선생님

-
- 1) 자 모여보세요~ 오늘 할 거는 츄크보올 할 거예요~
 - 2) 첫 인상은 강렬하지만 속은 굉장히 우유와 같은 부드러우심.
 - 3)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만 보여도 점수 굉장히 잘 주시니
못해도 열심히 참여하길!!



배준범 선생님

-
- 1) 제가 옛날에 전 학교에 있을 때~ (하늘고 박찬호)
 - 2) 탄탄한 설명과 설명과 설명을 통한 안전한 스포츠 활동!
 - 3) 육상선수 출신다운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갖고 계심.

일타 강사 수강 후기!



강선이 선생님

-
- 1) 한본어의 정석, 여러분~ 깃세키(けっせき)하면 안돼요~
 - 2) 프린트를 통해 심화 개념을 배울 수 있음.
그러니까 프린트 잃어버리지 마세요.
 - 3) (기말고사 하루 전날 하신 말씀) 발등에 불떨어졌다데스~



김지훈 선생님

-
- 1) 연습실 불이랑 난방기는 꼭 끄자.
 - 2) 참여 위주의 수업으로 음악에 흥미를 느낄 수 있음.
 - 3) 알고보니 첼리스트.



이현영 선생님

-
- 1) 자~ \요런/거→본 적/있나\ 라고 하시며 예시를 들어주심
 - 2) '수학을 언어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선생님!
 - 3)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난 다 이해했어!' 라는 착각이 들 수 있음.



하정선 선생님

-
- 1) '따~지아 하\오/'
 - 2) 중국어를 처음 배워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 특히 발음!
 - 3) 중국어 벼락치기하려면 생각보다 죽어납니다...



천도현 선생님

-
- 1) 수업 중 썰을 풀어주시다가 '어~?! 수업 몇 분 남았져~?'
 - 2)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됨!
 - 3) 방송보다 먼저 학교의 여러 소식을 '그럴 것 같아여~'라며 말해주심ㅎㅎ



김경희 선생님

-
- 1) 여러분... 졸리시나요? 5분 남았네... 쉬세요!
 - 2) 특유의 털털한 말투와 4차원 유머코드로 재밌는 수업.
 - 3) 즐기지만 마세요~



김경훈 선생님

-
- 1) 수업할 때 눈을 엄~청 동그랗게 뜨고 말하심.
 - 2) 학생들한테 친근하고 다정하게 해주셔서 힐링되는 수업.
 - 3)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두 배로 힐링됨!

일타 강사 수강 후기!



이지현 선생님

-
- 1) 수능. 에 나오는 얘기들. 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2) 구글어스를 백분 활용하여 완벽하게 이해시킴.
 - 3) 자고 있어도 안 깨우신다...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공부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황혜경 선생님

-
- 1) 자~ 이어서 같까요? 어뜨케~ 가~ 말아~?
 - 2) 지문 관련 썰들과 영상자료 덕분에 재밌고 기억에 오래 남음.
 - 3) (1)에 신중하게 대답해야 함.



박수민 선생님

-
- 1) (매우 애정이 넘치신다) 애드라~ 주말 잘 지내셨어??
 - 2) 발표 이후에 질문하실 때 정말 무서우시다 ㅎㅎ...
 - 3) 차가워 보이시지만 매우 따뜻하심^^



박형준 선생님

-
- 1) 중저음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너무 재밌으심
 - 2) 쌤의 한마디 한마디가 웃음 포인트
 - 3) 매우 재밌는 썰들이 많음!!



이중언 선생님

-
- 1) (매우 부드러움) 97페이지에서 보시면요~...
 - 2) "같은 뜻, 다른 표현" 100% 체화
 - 3) 꼭 선생님께 절권도 체험 받아볼 것. 요리 수업 받을 것.



이주호 선생님

-
- 1) 주호쌤의 문장은 !, ㅋㅋㅋ, * 3가지로 구성됨
 - 2) 온라인 클래스 콘텐츠가 매우 다채로움. 특히 사격 수업.
 - 3) 어둠 속에선 치아를 통해 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승주 선생님

-
- 1) 자↑ 애들아→→여기 보자↘→↑ (문제를 풀며) 그종??
 - 2) 수업만 잘 들어도 전교 1등 할 수 있는 엄청난 수업!!
 - 3) 선생님이 썰 푸실 때 격하게 공감하며 조르면 더 풀어주신다.



서연희 선생님

-
- 1) 글 본문 읽으실 때 항상 물걸을 붙여서 읽으신다 ~~
 - 2) 물리 설명하실 때 직접 뛰고, 몸으로 표현해주심.
 - 3) 형광펜이나 색깔볼펜 필수!!



이채영 선생님

-
- 1) 안녕하세요 여러분~
 - 2) 다양한 색깔로 필기하시기 때문에 다채로운 프린트를 볼 수 있음
 - 3) 하늘고 졸업생이셔서 하늘고 과거를 자주 들을 수 있음

일타 강사 수강 후기!



이상미 선생님

-
- 1) 오~OO씨 내가 더 잘 읽을 수 있는데 하는 저 눈빛! 읽어주실까요~?
 - 2) 다양한 시청각 자료들과 함께 하는 영어수업! (인생교훈은 덤!)
 - 3) 처음엔 당황스러워도 듣다보면 언젠간 도움이 됨.



김지연 선생님

-
- 1) 그지.
 - 2) 뭐든지 빨리빨리.
 - 3) 질문하러 갈 땐 무턱대고 이 문제 모르겠다고 하지 말기!



최성태 선생님

-
- 1) 수업 거부? > (업그레이드) > 지식 거부?
 - 2) 개연성 있는 스토리로 정체적인 정세를 알 수 있어 이해가 쉬움!
 - 3) 수업 듣다 중간에 놓쳤다면 간간이 고개 끄덕이기라도...



정창희 선생님

-
- 1) 딸~ 아들~
 - 2) 항상 꿀떨어지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수업하신다. 쏘스윗...
 - 3) 복도에서 언제나 학생들의 질문을 받아주고 계시는...



김원석 선생님

-
- 1) 음, 깨워주자.
 - 2) 원석쌤의 꿀보이스와 1교시의 콜라보 : 여기가 바로 스탠딩 맛집.
 - 3) 원석쌤의 조언은 뼈가 되고 살이 돼요. (11월 금방 간다.)



김승호 선생님

-
- 1) (아무튼 연기 대사.)
 - 2) 깔끔한 판서와 승호쌤의 연기가 인상적인 수업.
 - 3) 휘황찬란 색볼펜과 형광펜은 승호쌤 수업 필수템이에요.



김민수 선생님

-
- 1) ^^ (분필이 송~)
 - 2) 선생님이 웃으실 땐 저게 진짜 웃음일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
 - 3) 우리 민수쌤은 딸기우유를 좋아하세요.



김창재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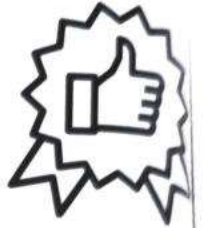
-
- 1) 아싸~~! 유후~~
 - 2) 무엇보다 현란한 형광 분필과 미친 도형의 완벽함...
 - 3) 초집중해서 쌤의 풀이를 따라간다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



김명비 선생님

-
- 1) 이해되실까요? 아시겠어요?
 - 2) 발표 준비가 덜 되어있으면 절대 안 됨.
 - 3) 일단 고개를 끄덕이고 보는 게 좋음.

일타 강사 수강 후기!



이현주 선생님

-
- 1) 애들아 생선은 꼭 먹어야 해요. (마스크 만지작...)
 - 2) 마스크를 뚫고 나오는 저 세상 차분함...
묘하게 빨려드는 수업.
 - 3)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영어 학습법에 대한 꿀팁도 팡팡...!



노혜정 선생님

-
- 1) 와 너무 재밌지 않니 애들아?? 아 나만 재밌니...?
 - 2) 교과서에 없는 것들도 세세하게 다 증명해주신다!
 - 3) 혜정쌤은 지현쌤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셨다.



심주석 선생님

-
- 1) 누구보다 우리 입시에 진심이신 선생님! 걱정에 악몽도 꾸신다고ㅠ
 - 2) 선생님이 아재 개그 하시면 무조건 소리내서 웃기!!
 - 3) 한 번 썰을 풀기 시작하면 끝이...



이형주 선생님

-
- 1) 자! 봅시다! 여기는~ (말의 시작에 느낌표가 많다)
 - 2) 종치고 바로시작 종치면 거의 바로 끝 하는 깔끔한 수업
 - 3) 학생과의 주먹인사는 마치 하이틴 드라마의 한 장면과 다름없었다.



김승우 선생님

-
- 1) 항상 부드러운 경어체. 가끔 드립을 시도하시긴 하는데...
 - 2) 나긋한 목소리로 수업을 부드럽게 이어가심.
 - 3) 자신이 조리있다고 생각하면 그를 찾아가도록...



전민호 선생님

-
- 1) what?!?!
 - 2)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헷갈리면 타동사로 찍고 기도하기.
 - 3) 그러면 일 년 또 공부할 수도 있음^^!



정율이 선생님

-
- 1) 목소리가 매우 크시지만 결코 화나신 것이 아니다!
 - 2) 발성과 발음이 매우 좋으셔서 귀에 쏙쏙 박힘.
 - 3) 복도에서 선생님을 마주치면 사랑스러운 눈으로 인사할 것.



김민철 선생님

-
- 1) 체육쌤이라는 이미지와 다르게 부드러운 목소리.
 - 2) 처음엔 서먹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장난이 많아지신다.
 - 3) 가끔 썰렁한 개그를 하셔도 당황하지 말자.



박은지 선생님

-
- 1) (매우 짧고 간결하게) 안녕 애들아! 우리 세지들
 - 2) 재밌는 줄임말 암기 (타로 보니 카사노바암)
 - 3) 마주치면 손으로 "o o"을 만들어서 보여주심 (의욕)

일타 강사 수강 후기!



전유림 선생님

-
- 1) 오늘은 진짜 금~방 끝내줄게여~
 - 2) 하지만 항상 짹짹 채운 풀수업
 - 3) 수업 시작 전에 쌤과 최대한 대화하여 시간을 끝자



조기성 선생님

-
- 1) 표준어 맛 부산 사투리.
 - 2) 다양한 예를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쉽다!!
 - 3) 영화를 많이 알면 더 유쾌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음.



김민연 선생님

-
- 1) (양팔로 엑스자 표시) 오개념!
 - 2)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치신다.
 - 3) 오로나민씨를 좋아하심!



이강봉 선생님

-
- 1) 안녕하심파~... 이강봉임파~...
 - 2) 듣는 학생마다 감탄하는 수업.
 - 3) 적극적인 참여를 "매우" 좋아하심.



이지혜 선생님

-
- 1) C.H.O.N.S 촌스. 거기~~!! 자는 사람 다 일어나세요!!
 - 2) 분명 어려운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설명해주심.
 - 3) 요술봉을 갖고 계십니다. (심지어 불빛도 남.)



최정우 선생님

-
- 1) 간~접 쓰기의 경우에는... 요런 표현드을~
 - 2) 단어 몇 개를 선별해서 영-영 뜻풀이를 해주심.
 - 3) 짹짹이신데 이메일 주소도 그에 걸맞다 ㅎㅎㅎ



김민희 선생님

-
- 1) 으이그 이 자식들아. (짜.) 내가 못 살아. (짜.)
 - 2) 온클 들을 때 볼륨 크기 최소는 필수.
 - 3) 귀여운 걸 좋아하심. (짤랑이, 마멜)



류대곤 선생님

-
- 1)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신 채 말씀하실 때가 있다.
 - 2) 수업의 목표는 항상 따뜻한 인간상의 발산.
 - 3) 첫인상 굉장히 무섭지만 원칙만 잘 지키면 한없이 부드러우심!



임혜연 선생님

-
- 1) 여러분~ 오늘은 별로 안 나갈 거예요. 자면 죽는다~
 - 2) 어떤 수학 질문을 해도 답변 가능.
 - 3) 국내 유일 경제수학, 고등수학을 병행하며 가르치심.

Sky

High

CUP



하늘고에 들어와 학교 생활 적응하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우리 반 친구들에게 승호컵은 하늘고 생활에 한줄기 빛이었다!

아직 친해지지 못했던 친구들끼리도 함께 단합하여 같이 땀 흘리고 경기하다 보니 어느새 가까워졌다. 한 경기 한 경기 씩 이겨 나갈 때 마다 우리 반은 점점 승호컵에 몰입했고 특히 남자 애들은 다들 승호컵에 진심이었다. 그 덕분인지 우리 반은 1학년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를 내었고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었다. 비록 2학년 선배님들과 학년 결승에서 아쉽게 졌지만 돌이켜 보면 재미있는 시간들이었다. 쉬는시간마다 전술을 짜겠다고 칠판에 그림 그리고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추위 죽겠는데 밖에서 연습하던 것들이 떠올랐다. 이 밖에도 우리 반의 이런 단합은 실제 경기 결과에도 영향을 주었다. 5반과의 경기에서 우리반은 예상보다 어려운 경기를 이어갔고 그러던 와중 우리 반 키퍼 준혁이가 큰 실수를 해서 골을 먹었다. 그래서 동점이 되었지만 결국 우리 반이 만회해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다. 경기가 끝나고 준혁이가 실수를 한 것에 대해 자책하고 슬퍼하자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위로해 주며 괜찮다해주었고 이렇게 더욱 끈끈해졌다. 1학년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 해 승호컵은 힐링이 되었던 재미있는 추억이었다.

글 · 남현우

학교에 들어오자마자 들이닥쳤던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외 여러 요인들로 인해 굉장히 바쁜 학기를 보냈었습니다. 2학기가 되었지만 아직까지 어색한 친구들도 보였고 친하지 않는 친구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정신없는 스케줄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일정대로라면 롯데월드와 체육대회 등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이 준비되어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 공부만 할 수 밖에 없는 지희였던 것입니다. 허나 이번 SH컵을 통해 친구들간의 사이가 가까워진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활동을 준비하며 점심시간 저녁시간마다 친구들과 서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장난도 치고 음료수도 나눠먹을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꼭 축구를 잘 하는 친구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반 전체 아이들이 참여한다는 점과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SH컵은 굉장히 의미있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글 · 서현호



Jump High CUP



이주호 선생님의 지도 아래 진행된 JH컵(Jump High CUP), 일명 주호컵이 1,2학년 학생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었다. 피구와 농구의 두가지 종목으로 학급 친구들 모두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던 시간이었다.

스포츠 경기만으로도 꿀 같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었던 것은 면학 시간을 대체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주호 선생님께서 특별히 만드신 경기 룰 아래 여자 피구가 행해졌고 남자 농구는 5:5로 진행되었다. 간발의 점수 차로 4차 경기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당시 SH컵(Sky High CUP)이 함께 진행되고 있던 상황이라 체력이 많이 소모되었지만 학생들의 승부욕이 넘쳤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를 즐길 수 있었으며 학생들 모두가 학업스트레스를 잊고 웃을 수 있었다.

최종 우승은?

1학년에서 준결승까지 진출한 반은 4반과 6반이었다. 아쉽게도 최종 결승전에 올라오지 못했던 반들도 있었지만 모두 쉬는 시간에 짬을 내어 연습하는 모습에서 열정과 열기를 엿볼 수 있었다. 각 반들을 위한 4반과 6반 학생들의 뜨거운 응원소리와 함께 경기가 시작되었다. 모두 땀 흘리며 열심히 참여했고 결과적으로 1학년 경기에서는 1학년 6반이 JH컵의 우승컵을 쥐게 되었다.

코로나 준수!

코로나가 지속되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경기에 안전을 준수하며 행해지기 위해 질서를 잘 갖추도록 열심히 노력해준 학생회의 몫도 매우 컸다. "학생, 마스크 써주세요!"라고 꾸준히 주의를 주어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하고 원활하게 경기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글 · 정예지



코로나 19로 인해서 체육대회는 물론 다른 행사도 없던 우리 학교에 지난 11월 JH컵이 학생회가 주관하고 이주호 선생님의 지도 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SH컵과 일정이 겹치고 경기가 일주일 동안 쉬는 날 없이 계속 진행된 탓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근 1년간 특별한 이벤트가 없던 우리에게 열정을 불어넣기에는 충분했다. 종목은 농구와 피구 두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체육 수행평가 종목이 농구임을 고려해서 2학년의 경우 여자 종목에도 농구가 채택되었다. 여자 농구에 대한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JH컵이 끝난 이후에도 농구를 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농구 모임이 생겼을 정도. 2학년 결승에는 3반과 6반이 올라왔다. 남자 농구와 여자 농구에서는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치열한 접전이 계속되었다. 결국 마지막 4쿼터 여자 피구에서 결판이 났다. 쿼터 중반까지도 비슷비슷한 경기 양상을 띠다가 6반 선수들의 정확한 패스와 깔끔한 마무리로 균형이 깨졌다. 3반의 마지막 선수가 공에 맞는 순간, 우리 반의 모든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고생 끝에 찾아오는 승리의 짜릿함. 이것이 바로 스포츠 경기의 묘미가 아닐까?

우승을 했다면 그에 알맞은 상품이 따라와야 하는 법. JH컵의 우승 상품은 치킨, 피자, 떡볶이었다. 스페셜 데이도 사라져서 이런 특별한 음식이 간절했던 때에 반 친구들과 함께 맛있게 먹었다. 이렇게 우승 상품까지, JH컵이 모두 종료되고 우리들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때로는 격한 경기 때문에 다친 친구들도 있고 경기가 뜻대로 풀리지 않아서 속상한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우울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열정으로 불타게 만들어준 이벤트였다.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는 와중에도 JH컵이 취소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건, 우리의 재미를 지키기 위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려는 학생들의 노력이 매우 컸다. 학생회도 반끼리 분리해서 자리를 잡게 하고 응원하는 친구들이 과열되지 않도록 질서를 잡아주었고, 선수들도 경기 후에 땀이 나고 더운 상황이지만 학생회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잘 착용했다.

글 · 박현영









★★★★★

불면증 치료의 기원이 된 수면요법의 바이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잠을 정복할 수 있다!

하늘고적 허용으로 효과가 검증된 숙면의 기술



하늘고 불면증 수업

박주영 · 양선우 · 이재욱

1.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글 · 박주영

주영 : 제가 면학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애네들이 그냥 학교 시계를 바꿔 놓고, 분위기도 다 바꿔놓고 애들도 다 통제하고 그냥 완벽히 짝 다 완벽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지!

친구1 : ㅋㅋㅋㅋ그런 거 아니야~

주영 : 정말 다른 반 애들도 못 오게 못 들어오게 하고 시끄럽게도 못하게 하고...

친구2 :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가 짝수 교실 면학이었어요. 1학년 4반 짝수 교실 면학이었는데, 애가 잠을 들어서 면2 끝나는 쯤에 잠이 들어서 엎드려 있는데 제 룸메가 한번 깨웠거든요. 근데 안 일어나서 재를 포기하고 쉬는 시간에 '장난 좀 쳐보자' 해서 깨우지 않고, 연장 표에 동그라미를 몰래 쳐놓고 그대로 냅두고 위에 있는 시계를 내려서 돌려놨죠. 그러다가 연장이 시작되고, 저희는 연장이 끝난 척 가방을 다 싸고 불도 끄고 다 같이 나갔어요. 그때 애를 깨워서 '야, 연장도 끝났어~ 왜 지금 일어나~ 너 우리 아니었으면 별점이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속아 넘어가더라고요. (일어나서) 자기 손목시계를 보고도 몰랐어요. 그때 딱 애가 일어나는 순간 침이 진짜.. ㅋㅋㅋㅋ

친구1 : 저희는 안 나갈 줄 알고서 '아~ 설마 나가겠어?' 했는데 손목시계를 보고서도 짐을 주섬주섬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됐나..?' 하면서 돌아서 있었는데, 문이 끼익 열리고 나가는 거예요.

친구2 : 그래서 가방을 메고 그냥 중간 복도까지 나갔어요.

친구1 : 중간 복도까지 돌아 나가서 그때야 선생님이 오시길래 애들보고 좀 뜯어말리라고 해서 장난이었다고 뜯어말렸어요. 근데 주영이가 '뭔 소릴 하는 거야. 연장 끝났다며.'라고 해서... '아니 아니 연장이 끝난 게 아니라 연장 중이야' 이러면서 실랑이하다가 겨우겨우 데리고 왔죠.

2. (주영이가) 원래 이렇게 다구리를 많이 당하나요?

친구2 : 다구리를 당하기 보다는... 좀 예민.....

친구3 : 항상 자고..., 노트북 하고 있고..., 맨날 게임하고 있고...

친구2 : 다구리를 당하기보단 오히려 다구리를 까려고 그러면 반응을 이렇게 팍! 세우고 반응을 해가지고..., 조용한데 재밌는 친구ㅎㅎ 가끔씩 놀리면 재밌는 친구?

3. 하고 싶은 말?

친구들: 지각 그만해~

주영: (표정으로 욕함.)



1. 사건의 전말 좀 알려주세요!

방에서 누가 깨워서 봤더니 반 친구들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옷만 입고 나가면서 듣기로 아침 자습이 끝난 시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교시 이동수업 교실로 갔어요. 제가 안쪽 침대였기도 했고, 그날따라 일찍 일어난 룸메들이 저를 까먹고 나간 거죠. 룸메 들하고 싸웠냐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건 아녘어요— (그다음 주말엔가 는 파티도 했어요.)

2. 그래서 그날 컨디션은 좋았나요?

지각한 날 공감... 아침에 엄청 상쾌해요!! 또 한두 시간 많이 잤다고 한 번도 안졸고 컨디 션 좋았습니다.

3. 다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방 바꾸고부터는 제가 일찍 일어나는 편이라 다른 애들을 깨워주고 있긴 해요! 앞으로도 일찍 스스로 일어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글 · 양선우





1. 몇 시까지 면학실에서 잤나요?

다섯 시 반이요... ㅎㅎ

2. 어떻게 된 일인가요?

어... 일단은! 그날이 제가 '선배와의 만남'을 오랜 기간 준비를 해서 딱 행사를 마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 긴장이 하나도 없이 다 풀려서 쓰러졌죠! 그날 종일 면학을 다 날리고, 이제.. 연장 때도 연장 시작하자마자 잠을 잤어요. 시작하자마자 잠을 잤는데, 일어나보니까 밖이 밝은 거예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는데, '혹시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밖에 문을 열어봤어요. 근데, 진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불도 안 켜져 있고, 진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일단 ** 뛰었어요. 생활관 사무실까지 ** 뛰었는데 그때 딱 출석체크하는 카드 찍는 기계를 쌤이 설치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 마주친 쌤의 첫 마디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였어요. 지금은 교훈을 얻어서 연장 때 잠을 안 자고 있죠.

3. (연장 때) 그래서 공부를 하시나요?

어..... 그건 노코멘트.



4. 오래 자는 꿀팁같은 거 있나요?

오래자는 꿀팁이 있긴 해요. 이게 꿀팁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1학년 때 많이 자면 2학년 때는 자도 자도 잠이 계속 와요. 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1학년 때 하도 많이 자서 2학년 때는 잠을 자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약간 저절로 몸이 약간 잠을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잠을 잘 자는 건 재능이에요. 제가 봤을 때...

5. 면학실에서 가장 편하게 잔 자세가 무엇인가요?

최적의 자세..... 일단은 엎드려서 자는 건 너무 숨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일단 준비물이 필요해요. 담요랑 그 책 받침대 있잖아요, 세워서 보는.. 아, 독서대! 독서대가 높이 조절이 돼요. 독서대를 약간 좀 낮게 만들어요, 가파르지 않게. 그리고 그 위에 담요를 얹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는 게 진짜 개꿀잠.

글 · 이재욱



하늘인만을 위한 커뮤니티



(아님...)

하늘인 필수앱 에브리타임



익명

03/20 04:06

애드라.....

온클 때 뭐 했어??

학교 와서는??

ㅠㅠ... 녀 조용하다....



익명

10/10 02:11

A동 3층에서 2층 풀숲에

에어팟 두 짝 떨어뜨는데
도와준 세 명의 친구들아
진짜 고맙다...

하 나의 아이폰 찾기로
삐빅삐빅~빅빅 | 빅빅빅
소리 들으면서
풀숲 뒤진 거 진짜 레전드...



익명1

앵 폰 반입함???



익명(글쓴이)

ㅇ 그래서 소매에 넣고
몰래 후다닥 했어
는 뽕이고
맥북으로 했지롱



익명2

안 창피했냐 1학년들이 뭐래



익명(글쓴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반집 노렸지...
애들 없을 저녁시간에...



익명

06/13 07:09

아아ㅏ아ㅇ아각아ㅏ기악ㄱ

404호 사는 놈들 누구냐

어젯밤에 봉대랑 요가 매트로
간식 주고받던 의리 어디 갔냐고

아침에 정리 안 해서 어? 우리 테라스에서만 봉대가
펼려~ 펼려~

쌤이 우리 부르셔서
아:: 면도기 주고받느라 그랬어요 헛소리했잖아::
쥘똥만한 으리 자알 봤다
-504호



익명1

쥘가 큰가봐



익명3

애 404호넹ㅋㅋㅋㅋ



익명(글쓴이)

? 꼭 ㅇㅈ 기원...



익명2

아니 왜 하필 면도기임??



익명3

쌤 더럽다고 생각하셨을 듯ㅋㅋ



익명

10/11 09:17

1년에 영화 드라마 120편 정상 맞지??

아니 Rona Co씨 땀에 우리 집에만 있었잖아
 그래서 좀 폭주하긴 했는데
 넷플*스, 왓* 다들 끊었잖아 아냐??
 여기 없는 건 도서관에서 갖DVD로도 빌리긴 했는데...
 아무튼 멋진 교양인으로 성장한 기분ㅋㅋ

요건 내 추천작들~
 비포 선라이즈, 그래비티, 중경삼림,
 콘스탄틴, 말할 수 없는 비밀, 레옹, 마이,
 패왕별희, 메기, 리틀포레스트, 독전...etc.



익명

10/10 10:25

폰만 가지고 2년간 방에 갇히기 1억 vs 그냥 살기

에서 고민 0.0000001초도 없이
 전자를 택할 수 있는 멋진 인간이 됐당~~
 온를 기간 때 난 케이팝에 미쳐있었는데 너흰 뭐 하고 살았나



익명1

정상이냐고 묻는 것부터가...



익명(글쓴이)

그냥 넘어가



익명2

코로나 때문이 아닌 거 같은데??



익명3

킹리적 갓심 학교에서도 본 듯



익명4

새벽에 몰래 본 거 아냐?!?!



익명(글쓴이)

근데 진짜 다 그만하고 싶을 때마다
 케팝 덕에 무너지지 않았던 거 같음!!
 정말정말 좋아하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거
 하나 잡아두는 게 정신 건강에 엄청 좋은 듯
 다들 남 눈치 보지 말고
 내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거
 하나씩은 가졌으면 좋겠당



익명2

ㅇㅈ 좃대있게 살자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자



익명1

드디어 롤 1000시간 채웠다



익명

11/22 08:18

야매로 쿠키 2-30판 구웠다

유통기한 한참 지난 버터에
아몬드 가루 대신 미숫가루로 했는데 *맛
강 눈대중으로 때려넣어서 매번 맛이 다르긴 했음

얇든 짱재있었고 짱맛있었으니까 된 거 아닐까??
매주 5-6판씩 구워서 벌써 2-30판이다

수제 딸기우유까지 만들었고
가족들이 구워라 또 구워라 하는데 강 카페 차릴까...ㅋ



익명

12/25 06:13

14개월 짝사랑 끝났다

새벽 감성 좀 빌림
진짜 완벽했고 다정의 끝판왕이었는데...
노트북으로 러브레터까지 썼는데...

흔히들 열정이나 사랑을 '뜨겁다'라는 수식어랑
'타오르다'라는 동사를 활용해 표현하곤 하잖아
말 그대로다 활활 태웠더니 진짜 끝났다
그라데이션으로 마음이 정리됨

그냥 뭔가 좀 묘하고 허하다



익명1

르스프 줌



익명(글쓴이)

부침 밀가루(박력분보다 맛있음)
계란 흑설탕 백설탕 투게더 버터
미숫가루/아몬드가루 베이킹파우더
딸기우유는 딸기 2개 반에 꿀 2스푼



익명2

어디 안 아팠어??



익명3

애 가끔 헛소리 하던데
이거랑 관련 있는 건가 그런 거 가툼



익명1

러브레터 보냈어?



익명(글쓴이)

ㄴㄴ 쓰다가 천천히 정리했어



익명2

헐 14개월... 맘고생 심했겠다



익명(글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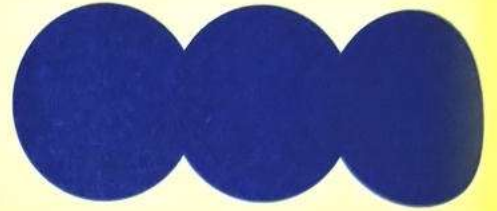
그래도 추억인 거 같아서 고마워



익명2

감동...

夕



자그만 손바닥
어느새 커져 바다를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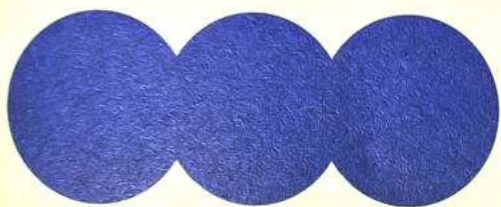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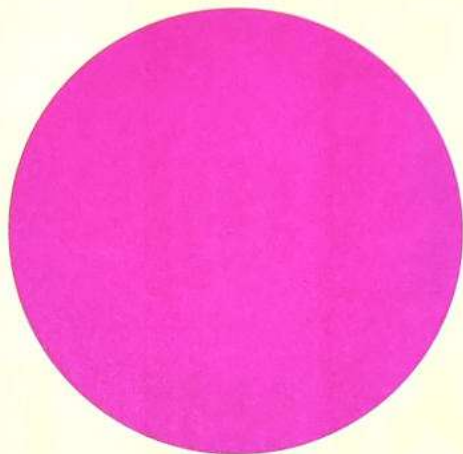
그 바다 위를 유유히 항해하는 너는 나를 닮았다

한참을 멍하니 바라만 보다
내가 너를 부르려 했을 때
갑자기 바다에 구멍이 뚫리고
그 속으로 바닷물이 다 빨려들어갔다

너도 그곳으로 사라졌다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다시 볼 수 있을거야
날 닮은 너
그런 네가 항상 짓고 있던 슬픈 얼굴

이채연, <손바닥>



선배 선배 선배 !



장유리 선배 !

1. 교내 활동들엔 항상 장유리를 볼 수 있었던 거 같은데, 그 도전 정신의 원동력은 뭔가요?

교내 활동에 많이 참여하진 않았는데 제 관심사에 맞춰 참여하다 보니 대외적으로 되게 많이 활동한 것 같이 보여서 조금 부끄럽네요. 교내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활동을 즐겼다는 게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1학년 때 교지편집부에서 활동하며 제가 무언가를 제작하는 일, 행사를 주도하는 일을 즐기고 잘한다는 걸 알게 된 후로 자연스럽게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게 됐어요. '재미'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단순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도전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었고 그 덕에 3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접할 수 있었어요.

2.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거 같아요. 어떻게 관리하셨나요?

저는 원래부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깊게 빠지는 편이라 힘들다고 느꼈던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제가 맡은 일들을 기쁜 마음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참여했던 활동들의 특성상 결과물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을 보며 느껴지는 뿌듯함 덕분에 다른 활동들을 더 열정적으로 해나갈 수 있었어요.

3. 예비 홍길동들에게 꼭꼭 전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예비 홍길동이 되고 싶은 친구들이라면 이미 알겠지만 어느 곳에서든 본인의 역할을 확실히 알고 그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활동이 협업이기 때문에 분업을 제대로 하고, 기장과 부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한다면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예요. 하늘고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은 정말 많으니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해 자신만의 특별한 하늘고 생활을 그려나가길 바라요. 후배님들 파이팅!)

이재현 선배 !



1. 수학을 어느 정도로 좋아하는 것인가요? (수학을 위해서 했던 것들)

또는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느끼거나 수학을 좋아하게 된 계기 같은 것?

지금도 수학을 제일 좋아하지만 제가 한참 수학에 빠져들던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정말 반쯤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9기 GLON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교육청 주관 수학체험부스&탐구 발표대회를 준비할 때 한참 연구하느라 이틀동안 한시간 밖에 못 잔 적도 있었어요ㅋㅋㅋ 정규동아리와 학습동아리가 모두 수학동아리였고, 둘다 제가 기장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학교에 수학을 알리는 데에 학교생활을 바친 것 같아요. 수학탐구토론(전공연구), 교육청 주관 행사, 수학창의력한마당 등 하늘고에서 '수학'이 있는 곳에는 항상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나 내신 시간에 너무 우울할 때는 시험이랑 관계없는 선형대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고... 여러모로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수학 선행은 어느 정도로 하는 것 인가요? (소문으로는 대학수학까지 정복하셨다는)

글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하늘고에서 배운 수학 과목 중 어떤 것은 중학교 때 미리 선행학습을 하고 왔고, 어떤 과목은 학기 직전 방학에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도 했는데 단순히 '먼저 공부했느냐'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어요. 이건 다른 친구들을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공부했느냐 보다는, 얼마나 충실히 공부했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전 방학 때 충분히 체계적으로 학습했을 때 어설픈게 선행만 한 경우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는 경험을 저도 해봤고, 친구들도 많이 겪어 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순간 해야 할 공부를 묵묵히 충실히 하는 친구가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예요! 그리고 대학수학을 정복했다는 소문은 좀 많이 과장이 된 것 같습니다ㅋㅋㅋㅋ 제가 평소에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분야의 전공서와 서적을 많이 독서한 것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신 것 같은데... 저는 낮에는 교과공부에 치여서 진짜로 공부하고 싶은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밤 기숙사에서 몰래 랜턴을 키고 현대대수학이랑 선형대수학을 공부하면서 새벽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선행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런게...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니고 일종의 취미활동(?)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ㅎㅎ

3. 고급수학의 답지를 만들기 시작해서 후배들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계기는?

음... 수업 중 김민연 선생님이 대학생 때 후배들에게 솔루션을 물려 받아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하신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솔루션을 만들어보자! 하고 친구들과 시작을 하게됐죠. 저와 김도원, 임세화 친구를 중심으로 많은 친구들이 집필에 참여했고, 각자 단원을 배정해서 집필했어요. 저는 전체 내용의 검토와 보충집필, 수정, 최종 편집을 담당했는데 이때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ㅋㅋ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2~3주 전부터 기숙사에서는 계속 해설을 연구하고, 검토하고 하고... 하루에 3시간 넘게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일차적으로 해설을 완성한 뒤에도 많은 의 도움을 받아 계속해서 수정을 거듭해 결국 책으로 인쇄까지 했지만... 계속 보면 볼수록 '저야 할 부분이 눈에 들어와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 고쳐야 하나... 하지만 이제 남은 몫은 후배들에게 물려 줄 때라고 생각했고, 역시 9기 친구들이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해주었더라고요! ㅎㅎ 11 전에 후배들이 만든 새로운 개정판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좋은 전통을 하나 만들고 졸업하는 것 같아서... 이제 이 전통이 10기, 11기를 통해 완벽한 책으로 완성되어 빛을 발했으면 좋겠네요!!^^



박예나 선배 !

1. 신입생들도 사랑한 그녀의 맛깔난 입담! 재능인가요? 아님 연구? 역시 부모님 피는 못 속여 타임?

: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죠, 제 어린 시절을? 진짜 너무 소심했어요. 상상 안 되죠? 말하는 게 어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굴도 잘 빨개지는 타입이라 대화 상황을 피하기 일쑤였죠. 이후 초등학교 전학을 하게 되고, 이렇게는 갑갑해서 못 살겠다 싶은 거죠. 연습했어요. 노력형입니당 아, 물론 유전의 도움을 받았죠. 논리는 우리 아버지, 유머는 우리 어무니께, 티키타카는 저희 언니와 연습했죠. But 인생은 뭐다? 꿈과 열정이다. 결론은 열정이죠, 화르르.

2. 재치있는 말재주 덕에 우와 이득! 이라고 외친 경험이 있다면?

이득...? MSG라도 쳐서 답변 주고 싶지만, 항상 떠들어놓고 눈치를 보는 편이에요. 나 뭐 잘못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은 임기응변이 잘 먹히더군요. 근데 전 스스로 때로(이런 말 써도 되나) 띠껍다고 느끼기 때문에 진지할 때 무거워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말 기술(?)이 있으면 이런 면이 좋더라고요. 저는 남한테 제 얘길 하는 걸 꺼려요. 대신 많이 듣죠. 모순 같지만, 오히려 누군가의 힘들음을 위로할 때 더 기뻐요! 물론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서 상담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 먼저 힘들다고 말해줄 때,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인생 헛살진 않았구나 싶죠. 대화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다 다르니 그런 면에서 눈치가 빠른 저는 좀 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와 깊은 관계의 친구들은 저를 말 많은 이미지보다는 듣는 위주의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믿어주세요.

3. æ - 박예나 생성을 위해 후배들에게 팁 좀 전수해주세요~ 아님 PR!

굳이 제2의 박예나가 되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하늘고의 좋은 예시로 적절하지 않아요. 저 말고 다른 선배의 글을 더 자세히 읽으세요. 다벌점에 갑갑한 성격이었던 저를 뭐하러 닮습니까! 하늘고 오고서 방황하고 1년,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방송부 기장, 도란도란 학동 기장, 연극부 기장, 창문 부원, 하임 밴드 리더, 하임 리더, 복면가왕?? 공부 빼고 다. 그러다가 책상에서 코피 한 번 못 흘려보고 수능. 그냥 이런 거 말고, 나 스스로가 됩시다! 하늘고는 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제일 좋은 공간이에요! 힘들겠지만 가끔은 맞닥뜨린 현실을 내 방식으로 즐겨보자고요! '와 멋진 선배!' 타이틀은 그냥 학년 올라가면 후배들이 그렇게 봐줘요. 내가 날 봤을 때 '와 멋진 인간♡'이 됩시다.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년! 할 수 있어! 라고 말♪ 을 나에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보아용.<

♥인생 상담 콜미 베이베♥

오동교 선배!

1. 왜 피꼬리가 되기로 결심하셨나요? 이후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피구 시험 중 소리를 너무 지른 탓에 상대 결절이 와서 수술도 했던 탓에 음악은 좋아했지만 부르는 건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까진 노래에 나라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음악 과목의 오솔레미오 가창 수행을 연습하러 아이들과 함께 갔죠. 수행 연습은 핑계고 그냥 놀러 간 것이죠. 그때 3명의 친구들이 더 있었는데, 그 앞에서 김범수님의 '보고싶다'를 처음 불러 보았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저에게 무심코 던진 "야 이 @끼 뭐야", "오 좀 한다" 이런 말들로 저는 노래 부르는 것에 점점 매력을 느꼈죠. 하늘고 체육대회 뒤풀이 공연 중 제가 이별 택시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때 1등을 했어요. 이때부터 몸에 가끔 새의 깃털이 자라기도 하면서 제가 피꼬리의 길을 걷게 되었고 제가 하늘 나래에 이렇게 저의 글을 실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늘고에서 있는 축제와 주작대로 가요제, 복면가왕 등 노래할 수 있는 무대에는 모두 참여하게 되었죠. 근데 1학년 이별택시 무대 이후부터는 저의 고질병인 무대 공포증과 가사를 못 외우는 이유로 하락세를 타게 되었죠. 제가 한 노력이라고 한다면 기숙사 화장실에서 정말 많이 불렀어요. 정말 화장실은 울림이 너무 좋아서 코인노래방보다 훨씬 좋고 나를 웹블리에서 노래하는 프레디 머큐리로 만들어주는 그 감성 다들 공감 하실 거예요. 그리고 면학시간에 제가 노래를 되게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창피하지만 혼자 책상에 앉아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음악실에서 2학년 때는 친구들과 보컬 소모임을 결성하여 일요일마다 함께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면학 끝나고 친구들과 기숙사 들어가면서 노래 부르는 것은 정말 국룰이죠. 하늘고 본관 건물이 되게 개방적이고 올려서 5층 면학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부르면 아주 카네기 홀에 온 것 마냥 잘 울리고 에코 처리도 잘되고 아주 좋아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복식호흡입니다. 학교에서 큰소리로 누굴 부르거나 교가와 애국가를 부를 때 항상 복식호흡을 사용하면 목도 잘 쉬지 않고 발성도 커지고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 본다면 꼭 메모하세요. 복식호흡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하늘고의 자랑스러운 대표 가수인 김경훈 선생님의 말씀처럼 감정이입을 매우 중요시했어요. 제가 슬픈 노래를 좋아하고 많이 감성적이라서 면학실에서 가끔 울기도 했죠...

2. 터벅터벅 나의 피꼬리 일상 중 좌절을 막아준 무언가에게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좌절할 때 저에게 힘이 된 것은 반 친구들과 하늘고의 모든 학생입니다. 친구들아 내가 가끔 수업 시간에 노래를 부를 때나 축제와 가요제에서 무대에 설 때마다 호응도 잘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잘하지 않았어도 보내주는 격려와 응원은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해줬고 노래뿐만 아니라 하늘고 생활에서도 많은 힘을 주었어. 3년동안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지만 항상 고마웠고 수고했다는 말 해주고 싶어. 졸업을 한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하지만 다시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3년동안 등교하고 기숙사에 들어가면 당연하게 있던 친구들 없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슬프다. 우린 학교를 항상 감옥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기억과 힘들었지만 기쁜 시간이 더 많았던 감옥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김가은 선배 !

1. 역사와의 첫만남? 어떤 매력에 반하신 거예요?

사실 제가 역사 자체를 좋아한다기 보다는 물리 화학의 벽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ㅠㅠ 문과로 전향한 후 잘할 수 있는 걸 찾다보니 역사의 길로 들어섰어요.. ㅎㅎ 그래서 뭔가 역사의 매력에 반했다기보다는 그나마 저랑 맞는 걸 찾다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역사를 배움에 있어서 쌤의 '내러티브 수업'도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즐거웠던 것은 성태쌤이 몰입하시면 가르치시는 것이었어요. 큰소리로 이야기하시고 가끔 반말도 하시고 ㅎㅎㅎ 성태쌤 특유의 동작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 친구 '리'가 역사가 아무리 졸려도 성태쌤을 보면 그냥 넋 놓고 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ㅎㅎ 잠깐 팁을 드리자면 가끔 졸릴 때 성태쌤특 모션을 따라하면 잠이 깎니다. 자연스럽게 진로도 역사 관련으로 정하고 비교과 활동도 역사 관련으로 하면서 성태초이랑 친해진 것 같아요. ㅎㅎ 한국사랑 동아시야사 세계사 2년 내내 수업에서 만나고 비교과 활동하면서 맨날 성태쌤 찾아갔어요. 뭔가 이렇게 수업도 재밌고 비교과 활동도 열심히 하다 보니 역사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2. (역사를) 어떻게 모셔서 사랑을 이뤄냈나요??(이렇게 공부해서 역사 지식을 이따만큼 쌓았다)

수업이 저랑 잘 맞아서 교과서 열심히 외우고 성적 잘 나오니깐 오 개대박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역사하면, 또 우리 학교 학생이라면 댄디태태 (8기끼리 부르는 쌤 별명입니다)죠! 쌤이 저를 입문시키고 도와주신 것이 아닐까하는.. ㅋㅋ 어찌다가 수능 선택도 동아시아사 세계사로 하면서 더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팁을 알려드리면 내신은 교과서 꼼꼼히 수능에서는 모두 다 외우기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해도 필수구요. 파이팅!

3. 번외 '어찌다보니 성태초이 애제자'가 맞나요 '드디어 성태초이 애제자'가 맞나요?? 답변 모두 다 합쳐서 1000자 내외입니다

'어찌다 보니' 같아요. 쌤을 너무 좋아해서 찾아간 것도 있지만, 탐구 주제나 대회 때문에 물어보고 컨펌받으면서 어찌다 보니 애제자가 된 것 아닐까요?? 사실 성태쌤은 쌤을 귀찮게 해서 절 싫어할 수도 있지만요. ㅎㅎㅎ 그래서 흑시라도 9, 10, 11기 친구들 중에 성태쌤을 찾아갈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예의를 갖추며 소정의 과자 항상 챙겨가세요. 쌤이 단 것 좋아하십니다 ㅎㅎ 특히 삼학년 자소서 기간에는 교무실 쌤들이 제발 좀 그만 찾아오라고 할 때까지 많이 찾아갔어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괴롭힌 것 같아서 죄송해요 ㅠㅠ 그래도 진짜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아이디어도 쌤이 먼저 내주시고 최대한 좋은 내용을 찾아주셨어요. 댄디태태도 역사 선택자 친구들도 힘내세요!!



정세민 선배!

1. 성적향상에 동기부여가 되거나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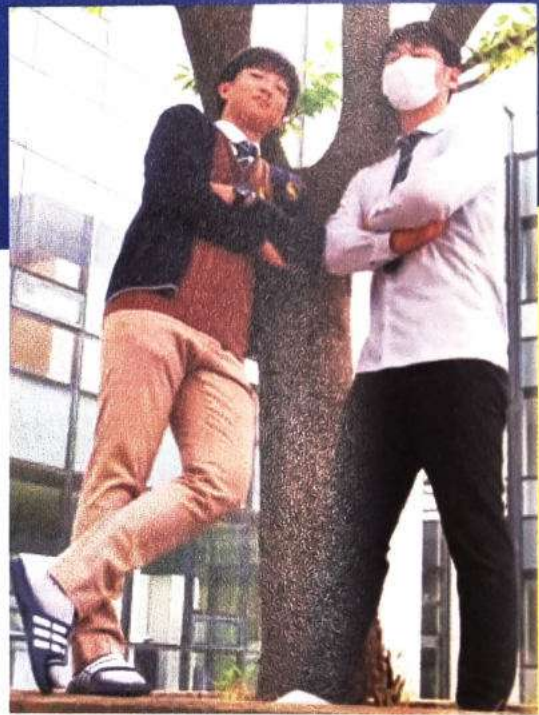
선생님들의 칭찬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받았던 열정장학금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서 받은 장학금이기 때문에 더욱 뿌듯했고 자신감도 상승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2. 성적을 되게 많이 향상시키셨는데 그 방법은?

진부한 이야기이지만 일단 면학실에 누구보다 오래 앉아 있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시간을 확보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또한 하기 싫은 공부, 어려운 단원 공부를 나중에 미루지 않고 공부하려고 하였습니다. 어차피 해야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러워도 계속 붙들고 있다 보니 눈에 점점 익고 나중에는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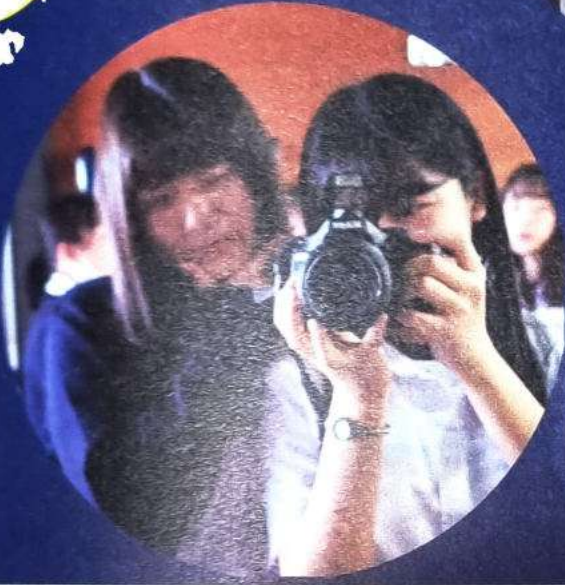
2. 공부와 하고 싶은 것(주로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은 활동 ex게임, 축구)을 병행하며 공부하는 법?

저는 3년 내내 누구보다 축구를 많이 했습니다. 1학년 는 축구 때문에 성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축구나 노는 것이 성적을 하락시키는 이유는 쉬는시간, 자유시간에 실컷 즐기고 면학시간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축구 후에 아무리 피곤해도 면학시간에 눈뜨고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좋아하고 계속 하려면 남들에게 공부에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면학시간에만 집중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적을 향상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으니 면학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운동이나 노는 것을 해도 좋으나 수업시간과 면학시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하늘인?

※ 자신에게 해당하는 번호를 체크한 후 합산해주세요! ※

01 나는 시험 공부를

- 1) 4주 이상
- 2) 2~3주
- 3) 1주
- 4) 하루 전

02 시험기간 주거지

- 1) 면학실
- 2) 교실
- 3) 201 또는 멀티
- 4) 그 외

03 내 면학실 책상을 본 친구들은

- 1) 와 진짜 열심히 하네
- 2) 깔끔한데?
- 3) 공부할 수 있냐...?
- 4)

04 나는야 기부천사 편의점에 (한 달 기준)

- 1) 1~3만 원
- 2) 4~6만 원
- 3) 6~8만 원
- 4) 8만 원 이상

05 만약 내 친구가 사족보행을 하려고 해,

- 1) 많이 지쳤구나 이거라도 먹고 힘내
- 2) 야악 뭐해액 일어나악 누구야악 언놈이 엘 이렇게 만들었어악
- 3) 아 쪽... (모르는 척)
- 4) 위아원 같이 함



06 범법 행위가 걸렸다! (배달 음식 같은 거)

- 1) 범법 행위따위 하지 않음
- 2) 죄송해요죄송해요담부턴어쩌구
- 3) 앗 헤헤... 그럴 수도 있죠~
- 4) (담엔 이렇게 해야 안 걸리겠다)

07 애들아 과제 제출 담주까지래~

- 1)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이따만한 결과물이 나오겠지?
- 2) 구상 먼저 다 굴리고 천천히
- 3) 악 벌써 이번 주네
- 4) 어라 벌써 내일이네

08 개가 너 별로래

- 1) 찾아간 다음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 오해를 풀
- 2) 그래...?ㅠ 나랑 안 맞았나보다
- 3) 야 네가 내 욕 했다며 혼자**한다 쇼를 한다 그랬었다며
- 4) 영 그르냐 글쿠나 (끝)

09 어라 나 설마

- 1) 애들아애들아 나 아무래도 개 좋아하나봐
- 2) (나만... 알고... 있어야지...)
- 3) 하하 그럴 리가 없지
- 4) 설렘? 그게 뭔데

나는 어떤 하늘인?!

0~14점

이 구간에 해당하는 교편이 없다. 따라서 정의한 타입도 없다. 그냥 나는 이 점수가 나왔구나 하면 된다. 끝.

15~19점

임별에 타입. 임수현, 고별하, 박인애에서 한 글자씩 따왔다. (점수 순, 오름차순) 다음은 자기객관화를 거친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타입 설명이다. 근데 이제 자백을 곁들인... 때문에 익명으로 적는다. 남들이 보기에 평타 이상의 준수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어딘가 손이 많이 감. 그냥 평범한 고딩이랄까 시험 기간에만 공부하는 늘고생임 마감 하루 전에는 풀려서 못하고 적어도 마감 3~4일 전부터는 준비함.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하늘고 생활에 임하는 것처럼 보임 다만 그 열정을 학업이 아닌 다른 곳에 쏟게 된다면... 어느새 놀라운 모습의 자신을 마주하게 될 것이니 기대하시길.

20~24점

윤성호 타입. 윤승환, 박성호인데 원래 동갑보다 후배가 더 예쁜 건 당연하므로 두 글자 넣어 줬다. 였는데 남한나의 버저비터로 윤성나가 됐다. 하늘고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학생들의 모습임 과제를 미루는 습관을 3년동안 가지고 가다보면 마감일 하루 전에 시작하는 스티를 느낄 수 있음. 항상 뭘 해야지 생각만 해놓고 막상 까먹거나 안 함 결국 간신히 일을 마무리 하며 뿌듯함을 느끼곤 함. 하늘고에서 생활하면서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는 중이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끄떡없음 행복하게 사는 중임.

25~29점

없음. 알아서 성찰 후 정의하면 된다.

30~36점

강예빈 타입. 재네는 서로 붙어있는데 나만 혼자다. 심지어 구간 하나를 점프했다. 조금 수치스럽다. 아무튼 실명제 급도입하여 이 타입을 설명해보자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늘고 라인을 보내고 있는 느낌이라 제법 하늘 인 더 헬을 즐기고 있는 편. 그러나 유사 갱스터의 모습이 보이므로 주의 요망.



안녕하세요, 교지편집부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지편집부의 짠 내 나는 서사에 감동과 재미를 담아 적어야 맞는 건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아무래도 둘 다 놓쳐버렸네요. 타입 설명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마시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가볍게 즐겨 주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어수선한 시기에도 열심히 협력해 준 교지편집부원들의 한마디 ♥

강예빈: 쏘hot한 지난 교지들 사이 돌연변이를 내보이게 되어 아주 부끄럽네요...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주시길 바라요. 끝까지 함께 해준 교지편집부원들, 교지편집부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준 친구들과 후배님들, 바쁜 와중에도 선뜻 협력해주신 선배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유리, 정은, 푸른, 정환 선배 짱! (이라고 맨날 외쳤음.)

남한나: 코로나 때문에 취소된 행사가 많아 교지에 실을 내용이 줄어들어서 너무 아쉽다. 그래도 아이디어 회의하느라고 매번 만나느라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더더 친해진 것 같아서 좋았다. 사실 좀 재밌었다 ㅎㅎ (유리, 정은, 푸른, 정환 선배 최고ㅠㅠ 보고 싶어요)

윤승환: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서로 힘들었을 것인데도 열심히 해준 편집부원들에게 너무 고맙다.

고별하: 나의 하늘고 라인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교지편집부...! (첨 학교가서 면학실 책상에 '교지편집부 지원하기!!' 라고 써서 붙여놨었는데 안 떼서 아직도 있음) 코로나가 방해해서 속상했지만 그래도 나름 교편 활동하면서 즐거웠었던 것 같다.

박성호: 코로나 때문에 주제도 많이 찾지 못 했고 만남도 적으니 서로 친해질 기회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다들 열심히 해줘서 잘 마무리한 것 같다.

박인애: 서로 만나서 교지 일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해 아쉽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하자면 누끼 따야 하는 사진 다 뺐는데 잘못 따서 첨부터 다시 했다^^(하지만 중간에 그만둬.)

임수현: 1학기가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올해 교지를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하나 아쉬웠던 건 학교에서 대면할 기회가 적어 콘텐츠 관련 연락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ㅎㅎ

사연이 담긴 하늘플레이리스트



Pink Sweat\$ - At My Worst

하정선 선생님

지치고 힘들 때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노래를 추천합니다! 하늘고에서의 생활이 즐겁고 행복할 때도 많지만 힘들고 지칠 때도 있죠~이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모두가 정말 소중한 존재이니깐요! 공부하다 지칠 때 이 노래를 듣고 힘을 내길 바랍니다^^



황규영 - 나는 문제없어

조기성 선생님

선생님이 고3때 나온 노래로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 마다 도움이 되었던 노래



타루(Taru) - Blah Blah

최성태 선생님

꿈은 항상 먼 곳에 있는 듯 잡히지 않지만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 Happy ending is mine! 걱정으로 가득 찼을 땐 "라라라라 blahblahblah~~~~~"



나훈아 - 테스트

이상미 선생님

우리 2학년 이쁜이들이 곧 겪을 고3생활의 힘겨움이... 샘 자녀가 곧 겪을... 그리고 어른들도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나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느낌에 다시 힘을 얻는 곡입니다^^





넥스트 - here I stand for you

최상규 선생님

1997년 11월, 대학 1학년 종강을 하고 우리 한문교육과는 제 1회 한교인 한마당 대회가 열렸다. 1등 상품은 무려 '시티폰'(수신은 안되고 송신만 되는 폰, 그것도 공중전화부스 인근에서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중전화부스 앞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되는 최첨단 전화기였음) 그 '시티폰'받으려고 내 친구 덩어리랑 하루 5시간씩 노래방에서 일주일을 연습한 노래입니다. 결과 당당히 지누선의 '말해줘'를 부른 95학번 누나와 공동 1등을 했지만, 잠에서 밀려서 '시티폰'을 빼앗겼던 그 노래. (덩어라, 뭐하냐, 너와 다시 '히얼아이스탠포유'를볼러보고 싶구나)



아이유 - 좋은 날

오대규 선생님

입대 다음 날 훈련소 가는 버스 창문에 기대서 하늘을 보는데 운전병 아저씨가 틀어준 이후부터 전두엽에 박혀 잊을 수 없음.



The Calling - wherever You will go

김민희 선생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 년 동안 여러분들을 깊이깊이 사랑해온 선생님이 5기 학생들의 졸업식 후 그날 밤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을 부여잡고 있을 때 사랑동이 5기 학생 한 명이 카톡으로 이 노래를 보내주었어요.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일 거라는 메시지와 함께 전해 준 이 노래는, 당시 선생님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때 느낀 위로와 사랑을, 특히 졸업을 앞둔 8기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I'll go wherever you will go



사연이 담긴 하늘플레이리스트



조관우 - 다시 내게 돌아와

정주원 선생님

7년 동안 좋아했던 여자친구가 군대에 있을 때 IMF가 와서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고등학교 동창과 결혼했는데 고무신 거꾸로 신을 때 군에서 보초서면서 나에게 한 번만 말할 기회가 있다면 하고 그때의 마음을 대변하는 노래임.



Spandau ballet - True

강선이 선생님

10대 시절 좋아했던 영국 5인조 밴드의 노래. 서정적인 가사가 매력적. 이 시절 새롭게 MTV라는 뮤직비디오 전문 케이블 티브이가 나와서 가수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기 시작했고 전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은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에는 획기적!) 이 노래를 들은 후 MTV에서 그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는데 정말 깜짝!!! 궁금하면 Youtube에서 확인해 볼 것!!^^



잔나비 -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이지현 선생님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랑 노래로 듣고 있겠죠? 가사를 제 맘대로 풀어 헤쳐 볼게요...

'언젠가 또 그날이 온대도 우린 서둘러 뒤돌지 말아요 마주보던 그대로 뒷걸음치면서 서로의 안녕을 보아요' 언젠간 끝날 것을 알아도 그 끝보다는 시작하는 지금 감정이 더 중요하고, 지금을 잘 살아내는 것이 언젠가 또 그날이 와도 잘 해낼 수 있을거라는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앞의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 됩니다. '피고 지는 마음을 알아요 다시 돌아온 계절도 난 한 동안 새 활짝 피었다 질래 또 한 번 영원히' 꽃은 계절에 따라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순환합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한 지금의 피나는 노력들은 언젠가 펼쳐질 비슷한 상황을 가장 이상적으로 버텨낼 수 있는 양분이 되겠지요. 지금 나에게 벌어진 일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삶의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해 슬기롭게 헤쳐 나갑시다-!!

Life goes on, Let's live on-!!





거미 - 기억해줘요 내 모든 날과 그때를

송남영 선생님

좋아하는 노래도 많고 애창곡도 많지만, 결혼하고 나서 남편과 함께 정주행한 첫 드라마라서, 모든 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3번씩 같이 봄 ㅎㅎㅎ



김광석 - 서른 즈음에

배성규 선생님

옛날에 자주 흥얼거렸던 것 같아. 나이가 깎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열아홉에서 스물로 넘어갈 때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열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물 아홉에서 서른으로 넘어가던 시기는 고민이 많았었어. 나를 치열하게 20대를 보냈지만 그다지 정답은 찾지 못하고 생각이 많았더랬어. 단순히 진로에 대한 고민 뿐만이 아니라, 의미있는 삶에 대해서 나를 진지하게 모색하던 시기였었지. 미로를 걷는 느낌이었고 어디서든지 위로를 받고 싶었던 때였었지. 강원도로 친구와 여행을 떠났었지. 아마 속초 인근 해수욕장이었는데, 마친 술 한잔 하고 해변을 걷고 있었고, 친구가 이 노래를 카세트로 틀더라고. 이미 알고 있었던 노래였지만 가슴에서 울컥하는 뭔가가 치밀어 오르더라고. 그렇게 친구와 한참을 말없이 해변을 걸었던 샘의 스물아홉의 어느 겨울날이 떠오르네. 해답은 줄 수 없었지만, 조금은 위로를 받았달까. 문득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오랜만에 다시 들어보고 싶은 날이네.....



신해철 - 민물장어의 꿈

김승호 선생님

승호쌤이 노래를 듣다가 하늘고 친구들이 생각나서 눈물흘린 노래예요. 가사가 하늘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 같은 생각이 매우 들었어요. 지금도 듣고 있는데 하늘고 친구들 생각이 많이 나네요. 노래를 들을 시간이 없더라도 가사는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이한철 - 슈퍼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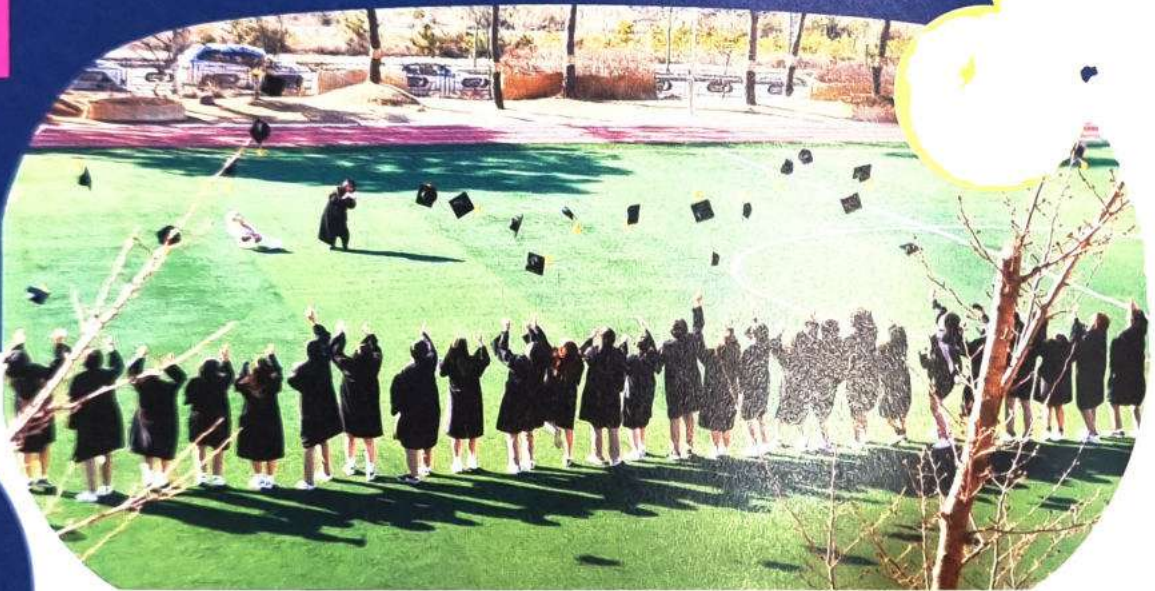
배준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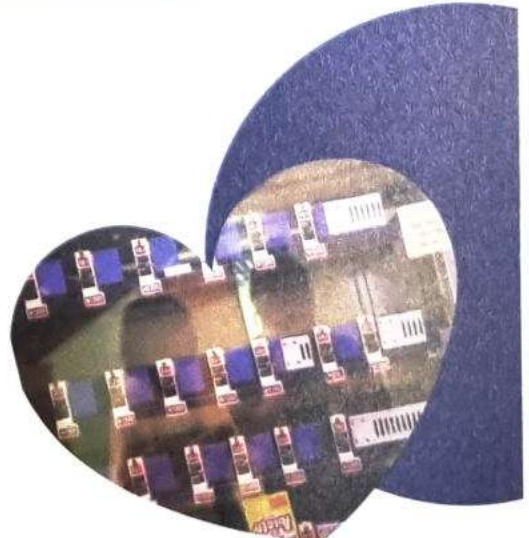
올해 교육부와 체육진흥회에서 주관한 전국 체육 교사 축전에서 각 시도 대표로 선정되어 코로나를 이겨내자는 의미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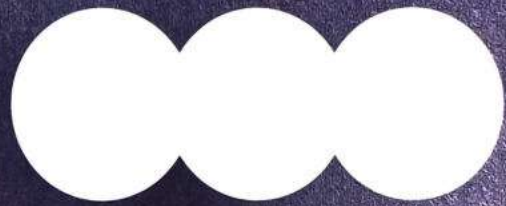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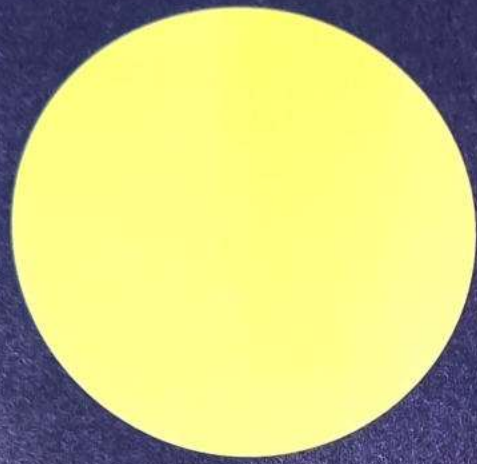
태양의 숨결이 다한 순간
달은 생명을 얻었다

고요한 정적 속
달은 태양의 마지막 숨결을 이어받아
세상을 비추었다

그 언젠가
달이 힘겹게 마지막 숨을 토해내는 순간
붉은 빛이 탕연(蕩然)을 감싸며 다시 타오를 테니

여린 풀잎이여, 멀어져가는 춘추를 두려워 말라
지는 달빛에 찾아온 여명이 그대의 눈물을 닦아줄 테니

손인서, 〈광음(光陰)〉



1학년 1반



정주원 선생님



MBTI - S

교감선생님 허락까지 받아
내고 결국 배달음식 시켜 먹
은 먹을 거에만 진심인 주원
쌤과 1반



MBTI - P

무작정 시작한 학급 프로젝
트 잘 마무리한 거 같아 다
행이다!

E

S

F

P

MBTI - E

이정도면
교복 모델은
우리 1반♥



MBTI - F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우
리 1반을 아끼시는 주원쌤
께 드리는 깜짝 이벤트!!



1학년 2반



I



N



F

P

송남영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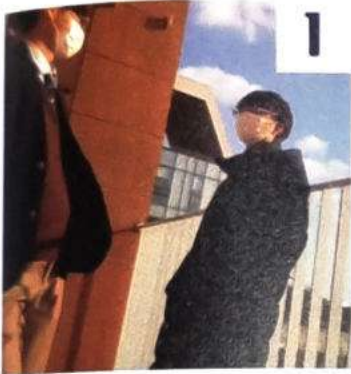


1학년 3반



강선이
선생님





MBTI - I

정말 많이 베란다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자신의 고민부터 잡다한 이야기 까지 속내는 여기서 다~털었다! 태양지는 노을부터 달빛무리 내려오는 밤하늘까지 고민을 함께해준 지난 1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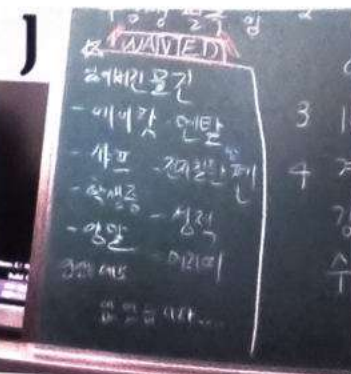
MBTI - S

S는 감각적인 오감으로 느낄수 있는 구체적 정보를 원한다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실은 정보를 위해 정리를 안한거겠죠? 정보를 얻기 위한 필사적(?) 모습!



MBTI - F

감각적이고 감정이 하나되어 공유한다는 F! 체육대회서 피구참여를 할 때 상대팀을 압살하겠다는 매서운 눈빛으로 모두가 하나되어 우승을 차지합니다!



MBTI - J

계획, 정리가 키워드인 J는 우리반에서는 이상한 부분(?)에서 정리를 하는데... 분실물을 한데 정리해서 보니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린 우리반... 이대로 괜찮은지 걱정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잘 돌아갔다!

1학년 4반



배성규
선생님





1

MBTI - I

우리끼리만 잘 논다.



MBTI - N

미래지향적. 미래의 나에게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기말 후 시험 망하고 사업 차리자, 현서 제품 이름 작명.



MBTI - F

감정적.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공부 너무 안 했다고 울고 남 우니까 울고 위로해주다 감정 이입해서 울고. 형진이曰, “계산기는 우는 거 아냐!!!” 홀수 면학 시 배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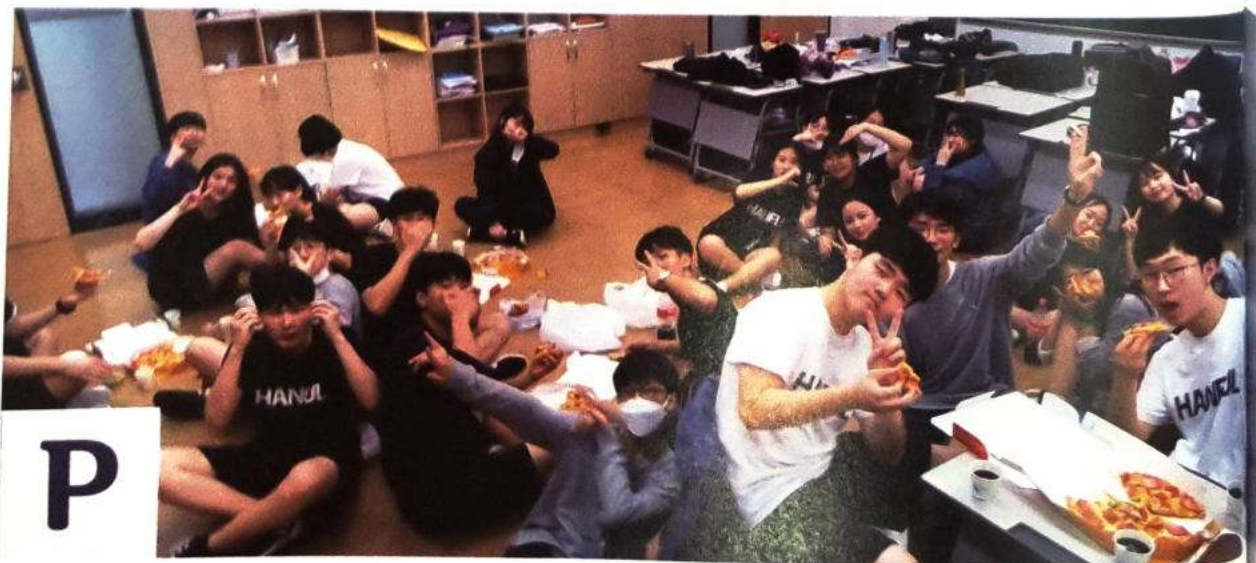


MBTI - P

일을 즉각적으로 처리.
갑작스런 이벤트 - 성규쌤 응원 피켓,
짜수 면학 박주영 연장 계획.

1학년 5반

이현영
선생님



P



일요일 아침 5반에 들어오면 불을 키지도 않아서 음침한 교실의 구석에 각자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5반 친구들을 볼 수 있다. 물론 309교실에서도 가장자리 구석에 앉아 있는 학생들은 모두 5반이다...



면학시간만 되면 5반 친구들은 항상 꿈을 꾀다. 자신의 목표를 이루어 하늘고등학교를 빛낼 위인이 되는 꿈, 좋아하는 친구와 기숙사로 함께 걸어가는 꿈, 어느날 갑자기 학교가 불타버리는 꿈... 우린 이런 꿈을 '망상' 이라고 한다.



단체로 하는 활동에서 5반 친구들은 꼭 개인행동을 한다. JH컵 응원을 혼자 참가하지 않고 수학문제를 풀기위해 끝까지 면학실에 쓸쓸히 남아있던 이나경... 단체사진을 찍는데 정복을 입고 오지 않은 송한경... 열띤 학급 회의 중 말없이 양치하러 떠난 송윤지... 그리고 떠드는 친구들 사이에서 잘 자고 있는 고분 안혜승...

P

항상 준비하자는 말만 할 뿐 아무런 계획도 준비도 없이 당일날 Jh컵과 Sh컵을 참가했고, 미니 체육대회 연습 한 번도 안하고 1등을 한 5반 친구들. 수행마감 전날 면2시간에는 면학실에 5반 친구들 자리는 비어있다. 수행평가 하러 모두 309로... 게다가 이 건 비밀이지만 이 페이지를 채우기 위한 학급회의도 마감 당일날 진행했다...

1학년 6반



배준범
선생님

N





E



코로나로 인해 짧지만 행복했던 조성철 교생선생님과
의 2주간의 추억! 2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6반 특
유의 친화력으로 교생선생님과 금방 친해져 놀러오셨
을 때에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N

면학실 끝자락의 6반 라인, 이곳에서는 대학, 미래에
대한 망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6반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F



항상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6반! 이 넘치는 승부욕
과 감성으로 JH컵에서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다.
#JH컵 #1등먹음



P

교지에 실을 사진을 찍기로 한 6반, 호기롭게 교실 밖
을 나섰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있던 사람이 아무
도 없었다..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그 누구도 집중하
지 않은 채 산만한 모습이다...

1학년 7반

하정선
선생님





지구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코 모씨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체육대회를 날려버렸지 모암..ㅠ0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인가?! 미니 체육대회를 한다네?! ㄴㅇㄱ 바~~로 응원 들어갔지ㅋ 내가 봤을 때 응원상이 있었다? 하면 우리컨데 하..아쉽게 없네? 아쉽지만 다음기회를 노려보지 뭐 ^^



이번 시험은 잘 볼 줄 알았는데... 터졌어열~(정우쌤st) 보고 눈을 107번 비볐는데도 바뀐 게 없더라구열...ㅋ 그때부터였어요. 우리 반이 수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게. 선생님의 수학 노트 대량 구매로 미친 듯이 수학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구여? 성적떡상!!! 전과목 평균 1등!!!!!!



평화롭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반에 분쟁이 일어났다. 무슨 큰 일인가 싶어 달려갔는데 그 분쟁은 바로... "사자와 벌꿀오소리중 누가 더 세냐?"였다. 궁금한 건 못 참는 우리 반 특성상 바로 유튜브 노빠꾸 돌진, 내셔널지오그래픽 들어가서 확인 작업 실시. 그때부터인가? 내셔널 붐이 일어난게...?



우리 반 아이들의 자리..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으나 한자원-아정원-남현우 말하지 않아도 대부분 알 것 같다.. 정리를 그때그때 안 해서 반이 심각하게 더러웠던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우리 반 규칙을 세워 청소를 하고 있다. 아침에 우리 반을 보면 이게 바로 장족의 발전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앞으로도 깨끗하길

1학년 8반



최상규
선생님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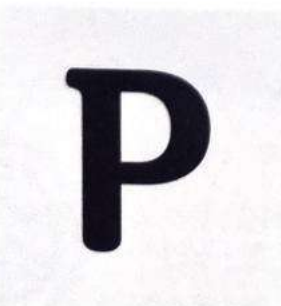
너무 활발한 8반! 너무 뛰어 놀다보니 부상도 많다. 심지어 허리에 금도 가서 병원입원, 전치4주인 친구도....



망상의 나라가 펼쳐지는 8반. 주제만 던져주면 소설책 한 권 똑딱! 전학생을 원했던 8반은 전학생에 대한 망상을 왕창 하기도 했는데... 결국은...?!



너무 감성, 감정적인 8반... 전학, 휴학, 자퇴를 하겠다는 사람과 한 사람이 역대급으로 많다..ㅠㅠ 우리 상규쌤이 힘들다고 발언할 정도...! 시도때도없이 반 인원수가 바뀌어서 수업시간마다 인원체크가 필요하다는 전설이...?



즉흥적인 8반! 다같이 밥을 먹자, 다같이 캠핑을 가보자, 마니또를 해보자!라며 모두 실행에 옮기고자 하나 하나같이 HZBZ(호지부지) 끝난지도 모르게 마무리된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다'라는 말은 8반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



프로듀스 201



최성태 선생님

정수정 · 노민욱 · 조무현 · 손인서 · 최준원 · 장민서 · 조희서 · 사수현 · 서영 · 신민주
 양창효 · 하수진 · 노종현 · 최경진 · 배연욱 · 이승찬 · 권수진 · 공선영 · 권혁 · 윤승환
 김지나 · 이민아 · 박서진 · 이승준 · 신한울 · 장효리 · 송민규 · 오재원





2학년 1반 - 이 연습생, 어때요?

정수정 → 노민욱 /알고보면 따뜻한 사람이죠 feat.천상미

노민욱 → 조무현 /꽃미남이에요

조무현 → 손인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반장입니다.

손인서 → 최준원 /노래를 잘한다는 반전매력(?)의 소유자

최준원 → 장민서 /외출을 나가면 텐션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친구인 것 같다.

장민서 → 조희서 /시크한데 재밌고 웃겨요

조희서 → 사수현 /늘 성실하고 착한 회장님

사수현 → 서영 /5번 염색체 결실로 묘성 증후군을 가지고 있지만

작은 키와 반비례하는 열정을 가진 소중한 러닝메이트(같이 뛰는 친구^^)입니다.

서 영 → 신민주 /우리 민주는요.. "아 진짜~" 이 말투만 보고 챔민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기하의 신!민주였어요

신민주 → 양창호 /자신을 닮은 뽀로로를 매우 좋아합니다.

양창호 → 하수진 /항상 긍정적이고 반 친구들을 잘 챙겨줘요

하수진 → 노종현 /이 시대의 쿨남

노종현 → 최경진 /처음 볼 때는 되게 무서워 보이지만 사실 친해지기 엄청 쉽고 엄청 든든한 친구

최경진 → 배연욱 /정~말 잘 먹어요. 매일 아침밥을 최소 3번은 먹는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입니다.

배연욱 → 이승찬 /환상적인 룸메이다!

이승찬 → 권수진 /공부하는 시간이 저의 10배쯤 되는거 같은 대단한 연습생입니다

권수진 → 공선영 /세상 귀여움. 귀엽고 뽀작한 행동으로 주변 사람을 기절시키는 매력의 소유자

공선영 → 권혁 /생각보다 몹시 깐죽거림

권 혁 → 윤승환 /축구를 매우 잘하고 아주 착합니다!

윤승환 → 김지나 /항상 공부를 하는 모습이 열정적이라서 보는 사람도 공부를 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김지나 → 이민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이민아 → 박서진 /사진작가 뽀치는 사진 실력과 반 친구들을 항상 찍어주려는 예쁜 마음씨를 가진 친구

박서진 → 이승준 /빛나는 캐릭터 : 진지3, 2물

이승준 → 신한울 /그저 빛난다

신한울 → 장효리 /착한친구이네요

장효리 → 송민규 /근육돼지, 어때요?

송민규 → 오재원 /항상 진지하지만 제일 귀엽고 깜찍한 친구

오재원 → 정수정 /일 년에 말 서너 마디 섞어 봤네요...



000 연습생에게서 이것만은 빼앗고 싶다!

- 공선영 → 정수정 글씨체. 면학실 뒷자리에서 쪽지를 건네주곤 하는데 글씨체가 정말 예쁘고 정갈하다.
- 권수진 → 조희서 화려한 말빨 고과기반탐구 때 희서의 말빨에 반해버려서 ♥언니 멋있어용♥
- 김지나 → 송민규 얇디 얇은 발목. 한번쯤은 얇은 발목에 또각 구두를 신고 거리를 거닐고 싶어요.
- 박서진 → 윤승환 열정.. 끈기.. 다리를 다쳤는데도 끝까지 축구를 하는 열정과 끈기를 뺏고 싶다.
- 사수현 → 공선영 아침에 무의식 중에 말하는 귀여움. 427호에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겠다고
한 시간 + 최소 20분 > 이 시간 동안 선영이의 아무 말 대잔치가 벌어진다.
- 서영 → 권수진 매일을 알차게 살아가는 열정. 나도 권수진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 보람차게 지내고 싶다.
- 손인서 → 박서진 그녀의 TMT(Too Much Talker) 기질... 나도 언젠간 친구의 귀에서 피가 흐르게 하고 싶다.....
- 신민주 → 최준원 최경진을 향한 마음과 사수현을 홀린 그의 매력. 나도 여심 저격수 준원이처럼 멋있어지고 싶다.ㅋㅋㅋ
- 이민아 → 노민욱 성태쌤도 무서워하는 험상궂은 인상. 애들이 내가 정색을 해도 루피 같다고 놀린다...
- 장민서 → 노종현 노트북을 담임쌤께 뺏기는 능력. 나도 노종현쌤에 들어가고 싶다.
- 장호리 → 양창호 흰색. 어둡고 까만 창호는 어떨까 궁금하다...
- 정수정 → 이승준 체육 실력. 체육을 잘해서 조금만 연습해도 수행 만점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 조희서 → 이승찬 일반화학 책. 베개 그 자체.
- 최경진 → 조무현 일찍 일어나는 능력 나도 내 의지로 일찍.. 일어나 보고.. 싶다..
- 하수진 → 최경진 캐리력. 운동, 일, 놀기까지 3박자가 완벽한 그녀는 대체...
- 권혁 → 신한울 그의 이름. 아름다운 순 우리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난 내 이름이 더 좋다는 사실..)
- 노민욱 → 신민주 강한 멘탈과 사교성. 친구들이 장난을 쳐도 잘 받아주고 항상 친절하다.
- 노종현 → 장민서 착한 인성. 평소에 착하게 살고 행동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다.
- 배연욱 → 사수현 전교 회장직. 권력에 취한 수현좌의 모습을 보며 쿠데타를 꿈꾸게 됨.
- 송민규 → 오재원 훌륭한 경제지식 재수하고 돈 굴릴 때 써먹어야지!
- 신한울 → 이민아 징징이 찡찡되면 너무 시끄러워서 부탁을 안 들어줄 수가 없다.
- 양창호 → 김지나 자신감.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이 멋있다.
- 오재원 → 장호리 르꼬꼬 계란말이 색 슬리퍼. 그냥 갖고 싶은데, 이유가 있어야 하나.
- 윤승환 → 손인서 2학년 1반 반장직 우리 반에서의 권력 남용이 너무 부럽다.
- 이승준 → 서영 작은 키 한번쯤은 나도 아랫 공기를 마셔보고 싶다.
- 이승찬 → 배연욱 배연욱이 조난당했을 시를 대비하여 신발 깔창 밑에 숨겨둔 비상금 3000억.
연욱이라면 3000억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서.
- 조무현 → 하수진 하늘도 놀라게 하는 물리 성적. 내 물리 성적을 알아봐.
- 최준원 → 권혁 군대를 면제받을 기회. 너무 말라서 군대를 안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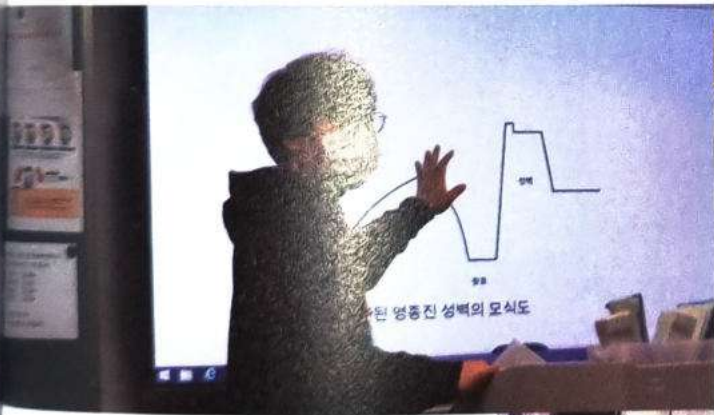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1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위 - 1반, 짜릿한 역전 드라마를 쓰다

이유: J.H컵 첫 번째 경기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둔 후, 다함께 강강술래 PARTY~!!!
우리반 모두가 얼싸안고 기뻐했던 순간!



2위 - I.I.R 발표회(feat. 성태쌤의 멋진 피드백)

이유: 1년간 운요호 사건을 주제로 각 부서가 열심히 준비해온 I.I.R 연구 성과를 발표했던 날~! 묵묵히 듣고 계시던 성태 쌤의 애정이 듬뿍 담긴 피드백까지~? 모든 게 완벽했던 순간

3위 - 1반의 우당탕탕 피자 사수기

이유: 1반은 이상한 반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점심 먹으러 갈 때 완벽한 줄서기를 했더니 교장 쌤이 쏘시는 맛난 피자를 GET! (저희는 절대 피자를 먹기 위해 줄을 열심히 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던 대로 했을 뿐...^^)





프로듀스 202



황혜경 선생님

김수진 · 김지유 · 노은서 · 박서연 · 박은별 · 배유리 · 송효은 · 신동은 · 안재은 · 안채연
이현아 · 정예은 · 한다인 · 김동욱 · 김민서 · 김중섭 · 김현우 · 박정민 · 안세일 · 이재욱
이정훈 · 최석준 · 최세현 · 최정우 · 한태경 · 현준서 · 노한빛





2학년 2반 - 이 연습생, 어때요?

김수진 : 반장, 학생회, 오케 등 이것저것 다하는 다인이의 이름은 사실 多人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
존경합니다!!!

김지유 : 수진이는 성실하고 가끔 유쾌한 친구

노은서 : 지유는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있어보이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

박서연 : 은서는 항상 계획만 세우고 실천은... 하고자 노력하는 계획형 인간

박은별 : 우리 서연이는 끊임없이 먹고요, 힘은 사내 아이랍니다!!^^ (서연이한테 까불면 저처럼 돼요)

배유리 : 은별이는 밝은 모습과 돌기 가득한 모습으로 반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친구

송효은 : 우리는 귀여운 목소리로 분위기를 밝게 해주는 친구!!

신동은 : 효은이는 의외로 유튜브 많이 보고 아이돌 좋아하는 문명인!!

안재은 : 동은이는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친구들의 일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

안채연 : 재은이는 나와 다르게 자리가 정말 매우 엄청나게 깔끔한 친구(하지만 내가 매일 더럽힌다 ㅎㅎ)

이현아 : 채연이는 옆에 앉혀두고 노래만 시키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힐링되는 목소리를 가진 친구

정예은 : 현아는 더러운 자신의 면학실 책상을 놔두고 공석에서 공부하는 귀차니즘 가득한 친구

한다인 : 예은이는 팔과 다리가 길어 은근 체육에 소질 있는 재능인

김동욱 : 한빛이는 다정하고 큐티한 마우이 족장

김민서 : 동욱이는 많이 먹고 대가리 크기가 크고 근육이 많은 자칭 미남

김중섭 : 민서는 나랑 평생 롤체 같이 할 친구

김현우 : 중섭이는 하늘고의 노란 카시야스

박정민 : 현우는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안세일 : 정민이는 비정상 집합소인 면학실에서 가장 정상적인 사람

이재욱 : 세일이는 동글동글해서 귀엽고 나보다 게임을 더 사랑하는듯한 친구

이정훈 : 재욱이는 커피를 손에서 놓지 않는 카페인 중독자

최석준 : 우리 정훈이는 2003년에 태어난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운 친구

최세현 : 석준이는 매점에서 만나면 자신의 카드를 주면서 맛있는걸 잘 사주는 배려심 넘치는 친구

최정우 : 세현이는 2반 공식 안경 안 쓴 쌤

한태경 : 정우는 착하지만 어딘가 사악해요^^

현준서 : 태경이는 은근 잘 챙겨주고 입이 가볍지만 상대방의 고민을 잘 들어주는 친구

노한빛 : 준서는 과묵한 척하는 수다쟁이



이 연습생의 장래는 어떨까?!



김수진 : 다인이는 한다인을 넘어 두다인으로 진화!! 했을 것 같다.

김지유 : 수진이는 엄청난 성실함과 근성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어있을 것 같다.

노은서 : 지유는 패션 브랜드를 차려서 뽕뽕이랑 콜라보한 옷으로 패션쇼를 열 것 같다^^

박서연 : 은서는 미래에 모든 것에 flex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어미새 같은 사람이 될 것 같다.

박은별 : 서연이는 매일 다이어트 한다고 밥은 안먹고 직장 쉬는 시간마다 간식을 먹고 있을 것 같다.

배유리 : 은별이는 지금 베이비페이스 그대로일 것 같다. 그리고 만나면 노래방은 필수코스일 듯 ㅎㅎ

송효은 : 유리는 특유의 목소리와 말투로 상사들의 픽에도 꼽힐 정도로 귀여운 사람일 것이다.

신동은 : 효은이는 아이돌을 좋아해서 일 쉬는 시간마다 유튜브로 아이돌 영상을 찾아보는 의사가 될 것 같다

안재은 : 동은이는 열심히 노력해서 잘나가는 무역회사 본부장이 되어있을 것 같다.

안채연 : 재은이는 대학교수님의 사랑스러운 제자이자 똑부러지고 정의로운 판사가 될 것 같다.

이현아 : 채연이는 비긴어게인 시즌9 짬에 에펠탑 앞에서 버스킹 때리고 조회수 355만 찍을 것 같다!

정예은 : 현아는 NASA에 출근해서 매일 아침 화장실을 왔다 갔다 거리고 있을 것 같다.

한다인 : 예은이는 매일 아침 신문을 보며 브런치를 즐기는 여유로운 직장인이 될 것 같다

김동욱 : 한빛이는 사났던 주식이 대박나서 슈퍼개미가 될 것 같다.

김민서 : 동욱이는 정육점 사장님이나 고기 굽는 채널의 유튜버가 될 것 같다.

김중섭 : 민서는 내거야, 졸업하자마자 나랑 동거

김현우 : 중섭이는 하늘고 체육쌤이 되어있을 것 같다(노란 이주호쌤)

박정민 : 현우는 운동,오락,노래 등 만능유튜버. 돈보다 재미를 추구하며 가끔 허당끼 넘치는것이
킬링 포인트

안세일 : 재욱이는 대학교가 담기에 너무 큰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월드 스타가 되어
만인의 남자친구가 될 듯

이재욱 : 세일이는 주식과 게임에 대한 관심을 결합해 주식 관련 게임을 제작해 대박이 날 것 같다!

이정훈 : 정민이는 대한민국 최초의 필즈상 수상자가 되어있을 것 같다.

최석준 : 정훈이는 미래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병원에서 일만하며 존경받는 의사가 될 것 같아요~

최세현 : 석준이는 강남에 동물병원을 차려서 동물을 사랑하는 돈많은 수의사가 될 것 같다.

최정우 : 세현이는 누구보다 인자한 치킨집 사장이 될 것 같다.

한태경 : 정우는 성실하고 키 큰 건장한 청년이 되어있을 것 같다.

현준서 : 태경이는 힘들게 지리 선생님이 되어 학생들에게 매일 놀림당할 것 같다.

노한빛 : 준서는 성공한 남자가 될 듯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2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 구름 한점 없이 맑았던 어느 한 가을날 우리는 운동장에 나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충성~!!!

2. SH컵 우승을 바라보며 달렸던 우리 2학년 2반, 준우승이지만 최고로 잘 싸웠다!



3. 초록초록한 어느 여름날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오신 용훈쌤! 2020년 가장 행복했던 14일, 언제나 그래왔듯 밝은 모습으로 쌤과의 마지막 날을 보내며, 다 함께 찰칵~~!!!





프로듀스 203

이상미 선생님

N번 연습생(to) --> BY 연습생(from)



- 0번 이상미 - 상미쌤께 부끄럽지 않은 3반이 되자. 선생님 1년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BY 3반 일동
- 1번 권도경 - 도경아..앞머리 태워먹어서 미안. 꿈에 나오지 말아줘 BY 성채현
- 2번 권민서 - 지과메이트로서 너무너무 좋았어 항상 옆에서 조는 날 깨워줘서 고마웁 BY 최강희
- 3번 김다민 - 뭔가 새로운 느낌의..? 4차원을 느낄 수 있었어 ㅋㅋㅋ! 1년동안 정말 수고했고,
고3 생활도 열심히 해! BY 전영진
- 4번 김선아 - 아~친해지고 싶었는데 아쉽지 모야~ BY 김희찬
- 5번 김호민 - 2학기 부반장.. 정말 열심히 하시는 모습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성실한
맥반석.. ㅎㅎ 1년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BY 허승준
- 6번 박윤서 - 고3 파이팅, 박윤서 고3 파이팅! BY 박준영
- 7번 배정인 - 배정인 진짜 열심히 사는 모습 너무 멋지고 성격도 쿨다고 다정한거 너무 좋은 것 같애!
고3때도 열심히 해!! BY 한채린
- 8번 백지우 - 아 ㅋㅋ 1년동안 재미있었음ㅋ 3학년 되서도 긍정적인 모습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 BY 박민
- 9번 서유빈 - 유빈언니~ 면학실에서 자고 있으면 항상 깨워줘서 너무 고마워 남은 1년동안 아프지 말고
밝고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 BY 배정인
- 10번 성채현 - 2020년도 같은 반 돼서 재미있었고 누나 대접해줘서 고마웠지? ㅎㅎ 나 같은 동생이 어딴니.
2021년에는 잠 그만 자고 수능 대박 나서 좋은 대학 가자 올해에는 동생 좀 챙겨. BY성승현
- 11번 이소정 - 너 농구 너무 잘해... 은둔고수 였던 거야..? 1년동안 열심히하는 모습 멋있었고,
3학년때도 기대돼! 1년동안 수고했어! BY 한성주





BY 연습생(to) --> 연습생(from)

- 12번 이은서 - 1년동안 정말 수고했다! 고3 공부와 생활 모두 열심히 하고 꼭 원하는 꿈 이루길..! BY 김진섭
- 13번 최강희 - 세상에서 핑크색 제일 좋아하는 사람 ㅋㅋ1년동안 고생 많이 했고! 너무 고맙웠다! BY 이소정
- 14번 한성주 - 우리 귀요미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많이 사랑해 BY 백지우
- 15번 한채린 - 3학년 되서도 행복한일들만 있길 바랄게! 1년동안 수고 많았고, 고맙웠어! BY 김다민
- 16번 구민희 - 첫인상과 가장 다르고, 재밌는 애 같아ㅋㅋㅋㅋ BY 김선아
- 17번 김진섭 - 여러분 이 친구가 3반 피구의 숨은 공신입니다와!!! JH컵 주호컵 준우승 3반 만세!! BY 서유빈
- 18번 김희찬 - ㅋㅋㅋㅋ 진짜 ㅋ밖에 안나옴 ㅋㅋㅋㅋ 아 너 덕분에 재밌는 1년이었음 고마워 BY 권민서
- 19번 박민 - 솔직히? 대학가면 여친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상상은 접어두셈^^ㅋㅋ 장난이고 1년동안 재밌었다 3학년 가서도 열심히하셈 BY 박상현
- 20번 박상현 - 포보스 선정 역대 하늘고 재학생중 가장 자비없는 남자 TOP3 선정, 19시즌 박상현의 품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 2020년. 눈 크기와 비례한 거대한 성공을 거두길 바란다..! BY 최성안
- 21번 박준영 - 1,2학년 같은 반하고 맨날 붙어다녀서 개꿀잼이었다 ㅋㅋㅋㅋ 너 챙기느라 고생한 나에게 고마워하도록! 그리고 2년동안 너 얼굴에 가려져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ㅋㅋ 제발 내년에는 그만 좀 잘생겨~~~ BY 정민호
- 22번 성승현 - 성승현 씨, 1년 동안 무척이나 재치 있는 그대 모습이 인상적이었기에 부디 그대께서 희망 하시는 대학 꼭 가시기를 응원합니다. BY 이은서
- 23번 이승현 - 공식 일류 서기 승현씨.. 작년부터 글씨로 유명하셨는데 직접 보니 더 놀랐습니다.. 1년동안 정말 수고하셨고,3학년때가서 더욱 성공한 결과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BY 김효민
- 24번 전영진 - 영진아 다리는 많이 나왔니?? 너의 웃는 모습은 나를포함해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어. 널몰랐을때는복도에서 마주치면 솔직히 키도 크고 해서 쫓았는데 이제는 네가 엄청 착하다는 걸 알았어. 같은반이어서 행복했다 안녕 BY 권도경
- 25번 정민호 - 정민호ㅋㅋ 힘 부기장 수고했다 잘생기긴 했는데 알다시피 준영이 때문에 묻히는거 보고 마음이 좀 아프네.. 그래도 너만의 색을 찾아 빛나길 바란다ㅋㅋ 3학년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가라~~ BY 한승우
- 26번 최성안 -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너무 수고했다는 말과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어. 너가 학업을 위해 힘써주어서 편안하고 즐거운 1년이었어! 3학년때도 너답게! 꾸준히 귀엽게! 살아가길 기도할게 고마워! 안녕 BY 박윤서
- 27번 한승우 - 누가 뭐래도 우리 반 최고의 젓가락은 너다 BY 구민희
- 28번 허승준 - 허승준, 공사와 마세라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인가.... BY 이승현



Q1. 졸업 후 가장 오랫동안 솔로일 것 같은 사람

- 권도경: 박상현 / 눈이너무커서 들여다보고있으면 뭐랄까.. 취조받고있다는느낌? 그렇게 완벽한 사백안은 처음봤다 아무튼그렇다고.
- 권민서: 박준영 / 신은 연애를 하지 않아.
- 김다민: 이승현 / 현재 대학생들에 비해 보수적인 성격
- 김선아: 김선아 / 그냥 평생 못할 듯...^^
- 김효민: 이승현 / 보편적으로 그렇다.

Q3. TV에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 사람, 그 이유!

- 이소정: 김희찬 / 뉴스, 전과가 없음에 감사하자
- 이은서: 김진섭 / 버라이어티(예능)에 많이 나올 것 같음. 왜냐하면 예능에서 팝핀 댄스를 기깔나게 추고 있는 진섭이의 모습이 인상적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최강희: 구민회 / 교수님되서 강의하러 나올 것 같음
- 한성주: 김희찬 / 뉴스특보, 정상이 아니다. 그러나 심성은 매우 착한 친구
- 한채린: 김희찬 / 그알, 본인피셜로 못참는다함

Q5. 지금 모습과 첫인상이 가장 다른 사람

- 정민호: 최성안 / 1학년에 급식실 줄 서다가 처음으로 봤을 때 내 핏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정도 순조로웠지만 최근에 사춘기가 왔는지 싸엿새가 됐다. 제발 돌아와줘....
- 최성안: 정민호 / 1학년때 급식실 줄 새치기한 안경 공부, 진지충 정민호,,, 그 때 그의 광기를 느끼지 못한 것이 패착이었다. 내 하늘고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은 사람..
- 한승우: 구민회 / 마냥 까칠한 줄 알았더니 머랭마냥 부드러움
- 허승준: 배정인 / 처음에 개우서왔는데 지금은 정반대

Q2. 졸업 후 가장 많이 변할 것 같은 사람

- 박윤서: 박윤서 / 그냥 많이 바뀌고 싶다는 소망이자 포부! 3학년때 많이 배우고 성장해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 되고싶어:)
- 배정인: 김효민 / 효민이가 화장을 전혀 하지 않는데 성인이 되어서 외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맥반석 계란같은 순수한 얼굴에서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ㅎㅎ
- 백지우: 최성안 / 성인 이후 벌크업 예정, 심지어 해병대,뽕짝한 이미지(2-3 귀요미) 탈피 상상 불가
- 서유빈: 권도경(권뚝앵) / 미래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1도 안감ㅋㅋ 그래도 우리 뚝앵이 는 어딜가서 뭘하든 잘 할 것같아서 걱정은 안된당!
- 성채현: 김다민 / 완전 자유롭게 꾸미고 다닐 것 같다.

Q4. 이성을 가장 많이 울릴 것 같은 사람

- 구민회: 박준영 / 이성에 무관심 + 이성과 동성을 동일시하는 태도
- 김진섭: 박준영 / 좋은 쪽으로건 나쁜 쪽으로건 이성에게 상처를 줘서 이성을 울릴 것 같다
- 김희찬: 구민회 / 이성을 울릴것같은 건 민회 마성의 매력이 있기때문ㅋ
- 박민: 구민회 / 자비없는 남자임.
- 박상현: 구민회 / 나보다 더 자비없는 남자임.

Q6. 주사가 가장 특이할 것 같은 사람

- 박준영: 최성안 / 얼굴이 빨게지고 텐션이 올라갈것 같다.
- 성승현: 최성안 / 취하면 어떤 물건이든 잡고 대성통곡할 것 같다.
- 이승현: 한승우 / 엄청 간죽거릴거같다.
- 전영진: 권민서 / 술 마시면 권도경 될 듯.



3. 최고의 교생 프로듀서님 민우쌤과의 작별을 하며 송별회를 하고있는 연습생들의 모습이다. 모두가 스트릿 편지를 준비하여 권도경 학생의 민우쌤 초상화와 함께 마음을 담아 드렸다. 특히 성승현, 이승현 연습생이 짓고 낭독한 시들에 마음이 웅장해졌다.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3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 2-3반 김승우 부프로듀서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연습생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맛있는 간식들과 연습생들의 축하 공연덕에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특히 김희찬 연습생의 승우쌤 초상화가 빛나는 순간이었다.



2. 다사다난했던 1학기의 종지부 기말고사가 끝난 화창한 여름날, 연습생들이 산책을 하러 아고라로 모였다. 하늘고의 아름다움이라고 불리우는 여름정복을 입고 여름방학에 대한 설렘을 느낄 수 있던 하루였다. 특히 한승우 학생의 표정이 돋보였다.





프로듀스 204



이강봉 선생님

김규리 · 김선경 · 김세정 · 노주현 · 노혜빈 · 이지윤 · 이채연 · 이하람 · 장명교 · 정윤영
차미나 · 최민서 · 최현진 · 한지연 · 홍효진 · 국예성 · 김광민 · 김태원 · 박성현 · 박준한
송영조 · 송호진 · 양현서 · 최승인 · 차수민 · 하지승





2학년 4반 - 연습생 자기 PR

김규리 : 누구나 반해버릴 상큼한 미소와 앙큼한 눈웃음으로 보는 이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드는 그녀!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반의 에너지이저를 담당하고 있는 그녀의 옆에 있으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방학 때 기르던 머리를 자르니 청순 소녀에서 귀요미로 변신!

김선경 : [홍치뽕]으로 데뷔한 우리 반 대표 귀요미이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그녀에 대한 애정을 뽐내는 사랑꾼으로 운이 좋아 근처 자리를 선점하게 된다면 그녀의 사랑을 나누어 받을 순 있으나 H양 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다. 드물게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 입으로 MBTI는 I였으나 E로 전향했다고 밝혔다.

김세정 : 처음에 매우 소심한 친구인줄 알았지만, 알고보니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엄청난 친구! 주변 친구들에게도 초콜릿을 망설임없이 나눠주는 우리반 대표 대인배! 면학실에서는 항상 신기한 자세?로 공부해서 깜짝 놀라고는 한다, 거의 연체동물 ㅎㅎ

노주현 : 대부분의 면학시간을 열인강반과 열공반에서 보내는 노력파! 면학시간에 실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멋진 친구이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친구이다. 공부 열정만큼 춤과 노래에 대한 열정도 엄청나서 모두를 깜짝 놀래키기도 한다.

노혜빈 : 4반의 고유 말투를 유행시킨 인물이자 (하지승 왈) 여자 면학실에서 남자 면학실까지 들릴만한 큰 목소리로 늘 반을 화기애애하게 만든다. 랑데부 대장이자 동아리에 매우 열정적인 모습이 멋있는 그녀... 그녀의 무지개빛 양말이 포인트인 패션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

이지윤 : chocochoch한 입술을 소유한 헬로키티는 H녀와 유일하게 touch my body가 가능한 사람이기에 귀요미의 감시를 24시간 받는다. 면학실에서 항상 해구튀드 머뭇돌기를 빙글빙글 돌리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다. 언젠간 한번 그녀의 머릿결에 맞아보고 싶다(부끄부끄)

이채연 : 우주 최강 아름다우신 자칭 절세미녀! 지나가다가 한번 보면 시선강탈 모두를 숙연하게 만드는 숨막히는 미모의 소유자! 그녀의 흔들리는 머릿결 속에서 느껴지는 삼푸향은 아찔함을 넘어 치사랑 수준이다. 그녀의 매력을 조심하라.

이하람 : 매력적인 호피 담요를 두르고 차분하게 교실 한편에서 책을 읽는 그 모습이 매력 그 자체! 소크라테스의 환생을 보는 듯한 시크함으로 못 여성들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 4반의 자칭 귀요미의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정작 H 본인은 달갑지 않은 듯 하다.

장명교 : 앙양한 포메라니안을 닮은 우리 명교는요, 우주와 함께 동고동락하느라 24시간이 모자라 오우 베이베♡ 혜빈이의 자리를 넘보는 엄청난 흥의 소유자.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춤을 보여주지만 요리 실력만큼은 미술랭☆☆☆

정윤영 : 2-4반을 대표하는 라면 중독자. 항상 매점에 나오는 신메뉴들을 꿰뚫고 있으며 점심시간마다 밥을 안 먹는 편식쟁이다. 한편으로는 항상 남을 위해 배려하고 남을 잘 챙겨주는 우리 반 천사. 날개는 선경이와 룸메 시절 선경이에게 도난당했다고...



2학년 4반 - 연습생 자기 PR



차미나 : 그렇게 사랑스럽게 웃지말아용.. 너무 무해해서 DMZ 비무장이 차미나의 미소 때문이라던데. 마시마로를 연상시키는 말랑말랑하고 무해한 모습 뒤에 숨겨둔 철두철미함이 거의 제임스 본드급. 안 반하고는 못 배긴다고, 사랑해용

최민서 : 누구든지 부러워할 만한 자연 갈색 머리카락을 소유한 그녀는 웃을 때 보이는 귀여운 송곳니로 상대방도 저절로 웃게 만든다. 최근에 헤어스타일을 바꿔(a.k.a 앞머리) 반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이내 "앞머리 너무 잘 어울린다! 요즘 완전 리즈다"라는 말을 들으며 날마다 상큼한 미모를 갱신 중이다.

최현진 : 평소엔 조용해 보이지만 친한 친구랑 같이 있다면 시끄러워지고 NCT를 보면 기분이 UP되는 친구! 반에서는 눈에 띄는 리액션으로 선생님들을 기분 좋게 만든다. 아기자기한 파인애플(알타리)인형과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다.

한지연 : 처음에는 조용한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활발해서 깜짝 놀란 친구! 부끄럼이 많아서 발표할 때마다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가끔 덤벼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것 또한 그녀의 매력이다.

홍호진 : 첫인상과 같이 1년 내내 착하고 친구들에게 항상 잘해주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웃음이 많아 주변 친구들에게까지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어울리는 흔히 볼 수 없는 친구이다.

국예성 : 자칭 타칭 소유하고 싶은 포켓남! 초코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마다 늘 입 주위에 초콜릿을 바르는 아찔한 반전 매력을 소유하고 있다. 거울 속 자신을 5분도 넘게 바라 보며 머리와 쌍꺼풀을 정돈하는 섬세함까지 갖췄다. 맨발로 굽 높은 슬리퍼도 신고 헬스도 열심히 하지만, 포켓남 타이틀을 버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광민 : 어떤, 누구의 이야기도 경청하며 들어주는 착한 친구! 1년간 영어부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조용한 카리스마가 있는 친구이다.

김태원 : 동아리에 한몫 바쳐 일하는 멋진 기장님, 학교에서 그를 찾으려면 일단 동아리실로 가야 한다. 보기보다 매우 감성적이며 생각이 참 많다.. 궁금한 건 무조건 질문하고 보는 우리 반 공식 이의제기 ☆요정☆이다!

박성현 : 하늘고 몇 안되는 로봇맨들 중 한명! 컴퓨터와 로봇에 관심이 많아 미래의 기술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 줄 것 같음. 또, 어느 수업이든 선생님 말씀에 열심히 귀기울이고 질문하는 성실한 학생!

박준한 : 큰 눈에 비해 얼굴이 심각하게 작은 2-4반 도련님(공식 양현서 애인). 걷기만 해도 넘쳐흐르는 귀티로 복도를 순식간에 런웨이로 만들어버리니 반할 수밖에 없다. 주변 남자친구들에게 귀엽다는 말을 일삼는 그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심장 폭격기???

송영조 : 18년 농구 외길 인생을 걸으신 이 시대의 농구 천재. 우월한 피지컬과 흰칠한 외모로 대중들의 사랑을 듬뿍 받음.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체육부장을 역임하며 리더십도 보여주는 화려한 퍼포먼스의 소유자.

송호진 : 한 평생 축구의 길을 걸어온 2-4의 주장이자 하늘고 대표 네이마르 심지어 그의 이름까지 송축구..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가 될 때까지 리프팅을 멈추지 않고 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기도 한다.

양현서 : 자칭 박준한 애인이자 "꾸띠현서"라는 이름으로 활동중인 하늘고 공식 연예인(사생 팬클럽 보유). 현지인 급 영어실력과 공간분석에서 두드러지는 해박한 상식으로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될 인재이다. 아줌마 입담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는 우리 반 대표 재간둥이다.



홍인 : 집중하면 귀가 뿔개지는 귀요미 천재! 집중하고 있을 때는 말걸면 안되지만 아닐 때는 먼저 말 가는 친구이다. 남강이처럼 때로는 귀엽고 때로는 날카로운 반전매력을 뽐내는 그는 촌데레의 정석이다!

추수민 : 배사에 열성적이며 남 눈치 보지 않고 끝까지 하는 모습이 멋진 친구! 위대한신 생활관 자치위원으로서 불합리한 일에는 교장실까지 찾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나이,, 그는 과연 말을 거는 것일까, 혼잣말을 하는 것일까?.....

하지승 : 비버를 닮은 귀여운 외모에 8등신 모델 비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장본인. 섬세하고 연약한 눈빛을 뽐내는 맥 알함과 반대로 안경을 쓰면 냉철한 눈빛을 뽐내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이기도 함.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4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찍은 단체 사진. 어딘가 어색하지만 나름 괜..찮다... 날은 흐렸지만 기분만큼은 화창했다. 단체사진의 정석인 동복을 입고 찍지 못해서 아쉽지만 하복만의 청량함이 돋보인다.



2. 붕땀을 위해 붕붕이 모양으로 특수 제작한 배베로! 서프라이즈로 준비했는데 나름 엄청난 감동을 드린 것 같다.



3. 축구: 모두가 목숨 걸었던 승호컵 승부차기. 아쉽게 우승은 놓쳤지만 슛은 프리미어 리그를 방불케 한다. 열정만큼은 우승이다!





프로듀스 205

김승호 선생님



강예빈 · 권세은 · 김소은 · 김예린 · 김유진 · 김희연 · 서 희 · 양선우 · 엄채영 · 오수빈
윤은지 · 이다빈 · 김도훈 · 박기태 · 박남교 · 박은오 · 박재준 · 배현우 · 손준호 · 유현석
정동진 · 정준원 · 한영운 · 한큰별 · 황교빈 · 정윤선





2학년 5반 - 이 연습생, 어때요?

김소은 > 강예린: 겹차이. 겉으로는 시크해 보이지만 다가가면 나타나는 따뜻한 성격과 약간의 허당기...!

김예린 >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매력의 소유자랍니다.

김예린 > 권세은: 원래 실눈캐가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소은 > 김소은: 모르는 것이 있어도 절대 굴하지 않고, 선생님들과 다른 연습생들에게 물어보면서 스스로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연습생.

김소은 > 김예린: 언뜻보면 조용한 친구같아 보이지만, 진짜의 본모습은 생활관에서 보여줍니다. 샤워할 때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

김예린 > 김유진: 내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배려심 있고 세심함 유진진 꼭 데뷔하면 조켓어용

김유진 > 김희연: 5반 확신의 갱얼쥐 상 아닌가요? 똥꼬발랄 갱얼쥐 상이에여ㅋㅋ

김희연 > 서희: 서희요? 멋있죠 1차 발표식에서 순위 떡상할 거 같아요,.. 댄스가 진짜...

서희 > 안하은: 포근함과 표현할 수 없는 그 동실동실한 말투..(하트)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 기분이 절로 좋아진답니다.

양선우 > 엄채영: 연습생 10번 엄채영 애교 넘치고 똥똥한 비주얼 센터 공주...!!

엄채영 > 오수빈: 수빈이는 온순하고 순둥순둥한 일상생활을 보내다가 가끔 완전 반전 매력을 선보이는 귀여운 친구예요~

오수빈 > 윤은지: 윤은지 연습생은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녀요! 누구든지 매력쟁이로 만들어주는 윤은지 연습생의 촬영 실력에 여러분도 빠져들 거예요<

윤은지 > 이다빈: 공허한 눈동자로 돌아다니지만 뭐든지 척척 해내는 다재다능한 반전매력의 소유자 다빈이, 이 연습생 어때용.

이다빈 > 이지민: 고양이가 사람을 닮은 건지 사람이 고양이를 닮은 건지 부드럽고 따뜻한 우리 지민언니~ 언니의 고양이가 되고 싶어요!!!

이지민 > 정윤선: 큰 키와 복싱으로 잘 다져진 근육으로 농구도 어어어엄청 잘해서 2-5 대표 농구선수, 농진녀의 에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김도훈 > 박기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는 법과 그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것에 탁월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이 연습생이라면 그 어떤 얼어붙은 분위기도 부드럽게 녹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박기태 > 박남교: 박남교 연습생 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것이 생각나죠, 바로 재수~~입만 벌리면 구라!, 근거 없는 자신감까지^^ 같이 있으면 내 자신이 멋있어 보인답니다~

박남교 > 박은오: 자신의 끼를 방출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좋은 연습생 같아요.



박은오 >박재준: 역시 촌데레의 매력이 있죠. 처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지만 나중에는 자석과 같이 딱 달라붙어 매력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가끔씩 겹쳐 보이는 마이클조던.

박재준 >배현우: 누구보다 착해서 욕해도 화도 별로 안내고 사달라고 하면 다 사줘요

배현우 >손준호: 준호 연습생은 되게 쿨한척하지만 사실은 속이 매우매우 깊은 아이입니다! 아마 다른 연습생이 힘들때 이 친구를 찾아가면 해결될 거예요!!!

손준호 >유현석: 다채로운 성격. 옆에 있기만 해도 호기심을 느끼게 하는, 종 잡을 수 없는 성격과 인품. 누구나 그를 보면 감탄을 금치 못한답니다. 연구 대상.

유현석 >정동진: 준비성. 제가 눈이 아파 눈을 비비면 옆에서 스리슬쩍 인공눈물을 건네줍니다... 면학실에서 이 연습생의 옆자리에 앉는다면 보건실에 갈 필요가 없어요.

정동진 >정준원: 정준원 연습생은 smart해 보이지만 살짝 허당기 있는 모습이 매력으로 할 수 있죠. 가끔 실수하는 인간미를 가진 모습이 정말 커여워요.

정준원 >한영운: 외모. 날카로운 턱선과 표현할 수 없는 그의 외모! 섹시한 두뇌 역시 두말할 나위 없죠.

한영운 >한큰별: 귀여움이죠. 얼굴부터 앙 깨물어버리고 싶은 귀여움이 가득한 게 포인트죠. 그에 금상첨화로 달콤한 목소리까지! 여러분도 한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들걸요?

한큰별 >황교빈: 자상함이 넘쳐흐르고 끝을 알 수 없는 자상함. 같이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교빈 >김도훈: 물어보면 뭐든 섬세하게 알려주는 지, 항상 책을 가까이 하며 쌓은 덕, 헬스에 남다른 열정을 가져 터질 것 같은 근육을 소유하며 체까지..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도훈이

205 어워즈



- 1.강예빈: 열려있는 귀상. 친구의 이야기를 정말정말 잘 들어주고 공감해줌.
- 2.권세은: 긍정왕 상. 몸이 아파도 항상 웃음을 유지하며 끝까지 '나 할 수 있어'를 외친 멋진 친구.
- 3.김소은: 스윗함이 몸에 흐르는 사람에게 주는 상. 짱서윗.
- 4.김예린: 웃상. 항상 빵긋빵긋.
- 5.김유진: 항상 웃는상 미소상 웃음상-(절대로 웃음이 헤픈 편은 아니다!)
- 6.김희연: 메타몽상. 언제 어디서든 곧잘 어울리고 분위기를 주도함.
- 7.서 희: 풀네임 서희생상. 희생이라고 본인을 포기하고 챙길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물러날 줄도 아는 거임.
- 8.안하은: 편하상. 뭔가 편해지는 말투와 인상을 통해 타인으로 하여금 심적 안정을 느끼게 해줌.
- 9.양선우: 피사의 사탑상. 슬퍼할 줄도 알고 기울어질 줄도 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음! 강인함!
- 10.엄채영: 날다람쥐상. 완전 귀여운 날다람쥐랑 닮았다.
- 11.오수빈: 최고의 성실상. 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보여주었다.
- 12.윤은지: 동굴 벽화상. 항상 카메라와 함께 아이들의 추억을 기록.



- 13. 이다빈: 마우스마스터상. 아이디어가 크으...
- 14. 이지민: 하늘고 글로벌 리더상. 항상 으쌰쌰!
- 15. 정윤선: 귀에 쏙쏙 스피킹상. 다양한 분야의 영어 어휘들과 자신있는 스피킹!
- 16. 김도훈: 자기관리상. 하기 어려운 건데 열심히 노력하더라.
- 17. 박기태: 분위기메이커상. 웃기다.
- 18. 박남교: 1인 28역상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남교의 몫.
- 19. 박은오: 2학년 5반 '은오와 엄마들'의 은오상. 순수하고 재밌다는 부제.
- 20. 박재준: 수학풀이상. 멋드러진 수학 풀이.
- 21. 배현우: 아낌없이 주는 나무상. 리터럴리 아낌없이 주는...
- 22. 손준호: 신박한 발상. 남들과 다른 사고를 지닌다는 느낌.
- 24. 유현석: 짜장범벅 홍보상. 2짜범+1감동란+2식혜가 가장 적당한 조합.
- 25. 정동진: 상상그이상. 걸모습과는 달리 친절하고 일 열심히 하는 나.
- 26. 정준원: 수학해결상. 응용된 실전 개념을 파악하여 학우들의 수학 학습을 도와줌.
- 27. 한영은: 영혼의 단짝상. 그의 유머감과 넓은 공감대에 많은 친구들이 반해버렸다고...
- 28. 한근별: 화학상. 화학을 향한 열정도 지식도 대단해서.
- 29. 황교빈: 2학년 5반 도라에몽상. 배려심이 넘치고 늘 웃는 모습으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준다.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5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 빠리 이브닝! : 김승호 연습생의 하드캐리!

2. 해피 벌뜨데이!!

승호야 생일 축하해! (죄송합니다ㅠ)

3. 백튀리!!

“그냥 즐겼는데 정신차리고 보니 손에 트로피가 들려 있더라고요.”





프로듀스 206



김지연 선생님

권보경 · 김윤휘 · 남한나 · 박성원 · 배민경 · 백소아 · 석채민 · 신수연 · 염정민 · 이나영
조현정 · 최지혜 · 이승연 · 하지은 · 김경민 · 김규민 · 김수환 · 박준성 · 박태오 · 박현영
엄진욱 · 이도윤 · 이태림 · 장예준 · 최유빈 · 함수혁





연습생끼리 예상해보는 서로의 술주정!

- 권보경->장예준 아련한 눈빛을 하고 노래를 부를 것 같다
- 김윤휘->박준성 말이 엄청 많아져서 2시간 동안 사람 붙잡아 놓고 이야기할 것 같다
- 남한나->이나영 기쁜 날에는 그냥 계속 웃을 것 같고 슬픈 날에는 속사포로 신세한탄을 계속하다가 중간중간에 감정이 벅차올라 화를 낼 것 같다
- 박성원->권보경 잘 것 같다
- 배민경->김규민 하루 종일 깨어있는 모습 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술주정도 별반 다르지 않게 그냥 잘 것 같다
- 백소아->김경민 그냥 계속 웃을 것 같다 (꼭소 X 씩소 O)
- 석채민->염정민 평소에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숨겨진 모습이 나타나면서 노래를 부를 것 같다
- 신수연->이태림 웃을 벗을 것 같다 (방금 옆자리 이*림이랑 뒷자리 최*빈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 염정민->이도윤 안경 벗고 엮드려서 인생에 한 맺힌 영혼처럼 울지 않을까 싶다
- 이나영->남한나 혼자서 조용히 귀신 들린 듯이 실실 웃고 있을 것 같다
- 조현정->신수연 이유 없이 웃음 + 애교일 것 같다
- 최지혜->조현정 얼굴 빨개졌는데 안 빨개졌다고 우기면서 쿠션 두드릴 것 같다
- 이승연->박현영 얼굴 빨개져서 취한 다른 사람들과 어깨동무하고 고래고래 노래를 부를 것 같다
(사실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소리만 빼-액)
- 하지은->김윤휘 에미뼌 랩을 하면서 헤드뱅잉 할 것 같다 (기숙사ver 윤휘)
- 김경민->박성원 (의외로) 조용히 잘 것 같다
- 김규민->최지혜 말이 많아지고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할 것 같다
- 김수환->하지은 옆 사람을 때릴 것 같다
- 박준성->함수혁 평소에 강아지를 닮아서 아마도 술을 마시면 개가 되지 않을까 싶고 취해도 안 시끄럽고 조용히 말할 것 같다
- 박태오->엄진욱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벽을 주먹으로 세게 치고 물건을 막 던질 것 같다
- 박현영->이승연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실실대며 웃기만 할 것 같다
- 엄진욱->백소아 피구를 할 것 같다
- 이도윤->배민경 전 남자친구 이름 부르면서 식당 테이블에 머리 박고 있을 것 같다
- 이태림->최유빈 취하면 자다가 일어나서 혼자 또 마시고는 다시 잘 것 같다
- 장예준->석채민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계속 웃을 것 같다
- 최유빈->김수환 쓰레기통에 머리를 넣거나 심슨, 톱 사진을 보면서 미친 듯이 웃을 것 같다
- 함수혁->박태오 바지를 벗을 것 같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연습생, 어때요?



권보경 → 김윤희 연습생은 압도적인 분위기를 내뿜고 있지만 실은 가장 순둥순둥한 연습생인 것 같아요.

김윤희 → 박성원 연습생은 사치원인 면이 매력적인 연습생이에요.

박성원 → 배민경 연습생은 보기와는 달리 활발한 연습생인 것 같아요. 걷는 모습이 기계 같다고 놀림을 많이 받지만 그것조차도 매력적인 연습생이에요.

배민경 → 백소아 연습생은 운동도 잘 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노래도 잘하는 만능인인 것 같아요. 피구공 던질 때는 세상 같지만 알고보면 3인칭도 쓰는 귀요미랍니다.

백소아 → 석채민 연습생은... 강아지를 꼭 닮아서 순하게 보이는데 똑 부러진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

석채민 → 신수연 연습생은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로해주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에요! 한 마디로 정리하자면 마음이 제일 따뜻한 연습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신수연 → 염정민 연습생은 키가 커서 비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뎅한 콧날과 예리한 턱선도 아주 예쁜 연습생입니다.

염정민 → 이나영 연습생은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주변에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언제나 솔직하고 밝은 점에 사람들이 저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이나영 → 이승연 연습생은 잠이 많은 연습생...? 그리고 다리가 정말 길쭉길쭉한데 웃을 때 나오는 투턱이 너무 귀여워요!

이승연 → 조현정 연습생은... 초딩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저한테 초딩이라고 하는 진짜 초딩입니다. 주토피아 종합 버전 조현정 연습생이 2021년에도 파이팅해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발전한 상태로 만나고 싶네요.

조현정 → 최지혜 연습생은 세심하게 하나하나 잘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면서 모든 걸 열심히 하는 연습생이에요.

최지혜 → 하지은 연습생은 노력에 노력에 노력을 하는 엄청난 노력파 연습생이에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너무 달고 싶습니다.

하지은 → 김경민 연습생은 사계절 반바지 입는 핫가이고 항상 특3에서 공부하는 멋진 끈기맨이에요.

김경민 → 김규민 연습생은 하는 행동은 귀여운 다람쥐 같지만 목소리만 들으면 늑대도 그런 늑대가 없어요~

김규민 → 김수환 연습생은 저에게 역시 천재는 남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해줬으니 둘+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네요.

김수환 → 박준성 연습생은 아무리 봐도 포비를 너무 닮은 것 같아요.

박준성 → 박태오 연습생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마성의 매력이 있는 연습생인 것 같아요.

박태오 → 박현영 연습생은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관중끼가 넘치는 연습생이에요.

박현영 → 엄진욱 연습생은 웃기고 까만 연습생이에요. 그래도 사람인데 속은 하얗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엄진욱 → 이도윤 연습생은 도사님의 향기를 풍기는 남다른 지적 이미지를 가진 연습생인 것 같아요.

이도윤 → 이태림 연습생은 남자답게 생긴 다부진 외모와 각진 몸을 뽐내고 약간 노출증이..ㅎ 아무튼 매력적인 연습생입니다.

이태림 → 장예준 연습생은 저녁 시간마다 교실을 노래방으로 만드는 연습생이에요. 아 그리고

장범준 노래를 제일 잘 부르는 것 같아요.

최유빈 → 함수혁 연습생은 맨날 잠만 자고 선생님이 아무리 혼내도 죄송합니다...만 하고 넘기는 연습생이에요.

함수혁 → 권보경 연습생은 조용하고 차분한데 재주가 많은 연습생인 것 같아요.



6반의 BEST 3 사건을 소개합니다



1. 2020년 X월 김수환 연습생이 개인 유튜브에 게시한 영상이 연일 주목을 받았는데요, 썸네일만 봤는데도...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별안간 쓰레기통에 머리를 박음)



2. 코로나 시대에 발맞추어 진행된 각 대학 프로듀서님들과의 미팅에서 엄청난 필터로 열풍을 일으킨 그 주인공, 엄진욱 연습생과 최유빈 연습생입니다. 지금 보러 가시죠! (줌에서 가상 배경 설정)

3. '조별 과제는 이렇게 하는 거다!'의 진수를 보여준 6반, JH컵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공무 뿐만 아니라 운동까지 잘한다니, 대체 이 연습생들의 능력치는 어디까지일까요?!?!





프로듀스 207



김경희 선생님

강민주 · 경윤서 · 권현영 · 김소희 · 김하늘 · 박가은 · 손민재 · 손채현 · 신현지 · 심서현
이서영 · 이수민 · 장서현 · 정채윤 · 정혜진 · 최서영 · 김승민 · 문원국 · 서기범 · 안홍상
이동규 · 이승준 · 이재용 · 이한석 · 정경원 · 채문철 · 최장원





2학년 7반 - 이 연습생, 어때요?



- 1 강민주 : 본인만 본인 웃긴 거 몰라요 쿨하고 심플해요
- 2 경윤서 : 많이 팔려서 사장님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지만 나만 알고 싶은 맛집
- 3 권현영 : 그 연습생... 혹시 수술했어요..? 날개 제거 수술???
- 4 김소희 : 공부 꽤나 하던데요? 견제 중이에요
- 5 김하늘 :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다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 6 박가은 : 도도한 듯 다른 연습생을 챙겨주는 모습이 일류 같습니다
- 7 손민재 : 가끔 두리번거릴 때 동물의 숲 NPC 같아요.
- 8 손채현 : 볼 때마다 늘어 있는 매력에 매번 놀라고 있어요.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한 1004개 정도...?
- 9 신현지 : 영어도 잘하고, 센스도 좋고, 성격도 멋있어서 가끔 벽이 느껴져요...완벽...☆
- 10 심서현 : 가끔 웃으면서 다른 연습생들의 수면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쿨하고 멋있어요 ㅎㅎ
- 11 이서영 : 평소에는 쿨해보이지만 저번 삼행시 보니까 귀여움도 장난 아니던데요
- 12 이수민 : 마이웨이가 확실한 연습생, 돈을 내지 않고도 기분 좀 낼 것 같은 타입
- 13 장서현 : 약간 인싸 같아요. 드립도 꽤나 잘치던데요? (아 물론 실패할 때도 있던데... ㅎㅎ)
- 14 정채윤 : 워낙 포커페이스라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인터뷰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하네요. 아 아무 생각도 안 하려나?
- 15 정혜진 : 애정표현을 해도 다 튕겨내는 매력이 있어요. 언젠가는 정복해보려고요.
- 16 최서영 : 아 너무 쿨해서 스쳐 지나갈 때조차 쿨워터향이 난다는 그 연습생이요? (긋속말로: 사실은 그 내면은 누구보다 따뜻하다구요.)
- 17 김승민 : 영어 못하는척 하지만 엄청난 실력자
- 18 문원국 : 평소에는 쿨하고 도도한 성격이어서 멋있으면서도 가끔씩 하는 유머가 정말 재밌어요 정말 매력적인 연습생이라니까요?
- 19 서기범 : 영어 쫄쫄오오 하는 연습생이었어요. 미국에서 온줄 알았어요 haha
- 20 안홍상 : 종례시간에 없어서도 없어진지도 모르더라고요 본 사람중에 젤 쿨해요
- 21 이동규 : 위트와 유머, 팩폭과 격려 사이를 끝없이 넘나드는 멀티 엔터테이너.
- 22 이승준 : 가끔씩 친구들 이름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크게 될 친구예요. 인생은 마이웨이.
- 23 이재용 : 거의 수냉쿨러 급 시원함이 느껴지는 그 포스 정말 부러워요
- 24 이한석 : 아직 제 새 발의 피에도 못 미치네요
- 25 정경원 : 쿨하고 속깊은 매력있는 사람이죠. 어떤 일이라도 잘 이겨낼 것 같더군요.
- 26 채문철 : 김경희 연습생.. 강력한 데뷔픽이라 견제되네요 딱기다려
- 27 최장원 : 너무 쿨한 나머지 가끔 연습생의 이름을 헛갈리더라고요 ㅎㅎ



7반 친구들이 동창회에 나왔을 때 예상되는 모습은?

- 1 강민주 → 이수민 : 지금이랑 똑같은 것 같다 그때도 자기만의 세상이 있겠지...
- 2 경윤서 → 이재용 : 으음 오늘 동창회였어?
- 3 권현영 → 장서현 : 조용조용하게 술 마시다가 갑자기 취해서 잠든다
- 4 김소희 → 문원국 : 이과이지만 지리학 교수가 되어있을 것 같다.
- 5 김하늘 → 손민재 : 배구선수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 미래의 김연경
- 6 박가은 → 김하늘 : 배우가 돼서 대기 시간에 잠깐 하고 나타날 것 같다
- 7 손민재 → 심서현 : 술 취해서 문철이랑 춤출 것 같어
- 8 손채현 → 이동규 : 혼자 애들 뭉까지 계산하다가 애들한테 들켜서 계산서 뺏길 것 같다.
- 9 신현지 → 김승민 :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신나 하다가 술 마시고 취해서 울 것 같다.
- 10 심서현 → 강민주 : 청첩장을 들고 "야 심서현 나 결혼한다."라고 말하며 올 것 같다.
- 11 이서영 → 최서영 : 술 취해서 헤헤 웃으면서 2시간 동안 동생 자랑하고 있을 것 같다.
- 12 이수민 → 이승준 : 술 잘 마시다 여친과 조용히 빠져나갈 것 같아...
- 13 장서현 → 이서영 : 굉장히 정갈하게 입고 올 것 같다. 하지만 알고 보면 4차까지 즐길 수 있는
미친 체력의 소유자 일지도?
- 14 정채운 → 경윤서 : 제일 일찍 동창회 장소에 도착해서 인원체크 하고 있을 것 같다 ㅎㅎ
- 15 정혜진 → 정채운 : 안 취한 줄 알고 "정채운!"이라고 불렀을 때 "에헤"하며 돌아볼 것 같다.
친구들까지 속이는 그녀의 포커페이스.
- 16 최서영 → 채문철 : 한 손에는 책을 들고 목에다 헤드폰을 걸고 반짝반짝 손을 흔들며 올 것 같다.
- 17 김승민 → 권현영 : 술 많이 마시고 많이 떠들다가 갑자기 픽 쓰러질 듯
- 18 문원국 → 최장원 : 그때쯤이면 너를 좋아하는 여자친구랑 만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겠지?
동창회 때 서로 웃는 얼굴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박장원!
- 19 서기범 → 정혜진 : 다이어트 서..성공해서 못..못알아볼듯! ㅎㅎ
- 20 안홍상 → 손채현 : 엘레강트한 여인으로 나올 것 같다
- 21 이동규 → 서기범 : 웃은 고민하다가 결국 울블랙, 웃을 뚫고 나오는 엔지니어의 아우라는 숨길 수 없을 것.
- 22 이승준 → 정경원 : 안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무언가 심경에 큰 변화나 문제가 있었을 것 같다. 파이팅!
그때까지 우리랑 연락은.. 해 줄거지?
- 23 이재용 → 이한석 : 둘의 품격을 지킬 거라고 믿어, 앞으로도.
- 24 이한석 → 안홍상 : 맨날 공부만 하더니, 아직도 하고 있네... 여욕시 안홍상은 공부가 딱이야
- 25 정경원 → 김소희 : 언제나 그랬듯이 웃으면서 활기찬 모습이겠지. 열심히 살면서
- 26 채문철 → 신현지 : 웃으면서 남들 알콜 페이스 맞춰주지만, 결국 최후의 생존자는 현지였다.. (진정한 끝판왕)
- 27 최장원 → 박가은 : 외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영어로 인사하면서 올 것 같다.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7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1. 경희 선생님 생신 축하 파티

컨퍼런스를 앞두고, 10월 3일 경희 선생님 생신을 맞이해 미리 생신 축하 파티를 한 날! 과자 가방과 꽃바구니, 롤링페이퍼, 오예스 케이크 등 정성을 담은 선물부터 생신 축하 노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감동하신 경희 선생님의 말씀에 오히려 7반 친구들이 더 감동했다는 후문. 즐거운 컨퍼런스에 화룡점정을 찍은 생신 파티까지, 정말 더할 나위가 없는 날이었다.



2. 민정 선생님과 작별

7반의 여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셨던 민정 선생님과 작별의 마지막 날. 언제부터가 익숙해진 선생님과 조희부터 참관수업, 점심시간을 이용한 사진 촬영과 친구들의 무대까지 모든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리고 작별 인사... 애써 담담한 분위기였던 교실이 결국에는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다.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끝내 와버린 민정 선생님과 작별이 있었던, 절대 잊지 못할 날이었다.



3. JH CUP 경기

대망의 JH CUP 경기가 열렸던 날! 체육 시간과 자유 시간을 이용해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전술을 짜며 기다려왔지만, 결과는... 비록 광속 탈락이었으나 체육대회가 없었던 2020년을 달래줄 수 있는 팔지만 붉은 추억을 만든 날이었다. (가은이와 한석이의 패기 넘치는 응원도 덤.)





프로듀스 208



이지현 선생님

강소희 · 권가인 · 권시은 · 김규리 · 김예림 · 김윤서 · 김창은 · 박세희 · 박지영 · 백지민
이가현 · 이다원 · 이정은 · 정다빈 · 지모경 · 최지니 · 고동범 · 권성민 · 김동현 · 김상훈
김태윤 · 나규민 · 남정현 · 박성주 · 박찬휘 · 안재익 · 조석현 · 함지성





2학년 8반 - 이 연습생, 어때요?



- 1번 강소희 : 전생에 머슴이었을 것 같은 사람
- 2번 권가인 : 자리가 가장 더러울 것 같은 사람
- 3번 권시은 : 동생에게 소개 시켜주고 사람
- 4번 김규리 : 피에서 초코가 흐를 것 같은 사람
- 5번 김예림 : 삶을 제일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
- 6번 김윤서 : 싸이코역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
- 7번 김창은 : 남정현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
- 8번 박세희 : 먼데이키즈랑 노래로 맞짱뜰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 9번 박지영 : 진보파인 유교소녀
- 10번 백지민 : 본인 필통이랑 닮은 사람
- 11번 이가현 : 남친하고 가장 많이 싸울 것 같은 사람
- 12번 이다원 : 권성민이랑 씨름해서 이길 것 같은 사람
- 13번 이정은 : 웨딩드레스보다 군복이 더 잘어울릴 것 같은 사람
- 14번 정다빈 : 원으로 이루어진 사람(스마일 감자)
- 15번 지모경 : 대학가서 클럽 많이 갈 것 같은 사람
- 16번 최지니 : 우리반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 17번 고동범 : 기숙사에서 거울보고 자아도취 잘 할 것 같은 사람
- 18번 권성민 : 엉덩이로 이름쓰기 젤 잘 할 것 같은 사람
- 19번 김동현 : 대학가서도 연애 못 할 것 같은 사람
- 20번 김상훈 : 술마시면 개가 될 것 같은 사람
- 21번 김태윤 : 공포영화에서 가장 먼저 죽을 것 같은 사람
- 22번 나규민 : 동창회때 람보르기니 타고 올 것 같은 사람
- 23번 남정현 : 주식했다가 전재산 날릴 것 같은 사람
- 24번 박성주 : 전생에 공주님이었을 것 같은 사람
- 25번 박찬휘 : 가장 진화가 덜 된 사람
- 26번 안재익 : 나중에 성형할 것 같은 사람
- 27번 조석현 : 빌보드차트 1위 할 것 같은 사람
- 28번 함지성 : 클럽 죽돌이 될 것 같은 사람



앞번호가 뒷번호에게!



- 1번 강소희 : 조용하지만 강하고 아우라가 장난 아니에요
- 2번 권가인 : 항상 발랄한 웃음소리로 모두를 즐겁게 해줍니다! 귀여운 외모를 닮은 활발한 성격은 안봐도 국프들의 마음을 훔쳐갈수있겠죠? 평소에도 끼와 흥이 넘치는 권시은 연습생은 당당하게 데뷔하게 될겁니다.
- 3번 권시은 :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요. 리액션이 좋아서 나중에 예능하면 잘할 것 같아요.
- 4번 김규리 : 인성 갑!! 정의의 여신ㅠㅠ 예림이 노트북엔 내 사진이 켈 많다고 했다! 넘 좋다ㅎㅎ 앤 내 거다!!
- 5번 김예림 : 소녀시대멤버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숨겨진 반전매력을 드러내기 위해 환불원정대에 합류 하면 좋을 것 같은 연습생이죠...아무도 이 연습생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DON'T TOUCH HER!
- 6번 김윤서 : 밝고 유쾌해서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 7번 김창은 : 말이 필요한가요? 이미 제 최애입니다.(궁서체)
- 8번 박세희 : 생각이 깊고 항상 노력하는 소신있는 멋진 사람인거 같아요.
- 9번 박지영 : 귀에 이어폰 꽂고 MP3 만지는 모습이 매력적이에요.
- 10번 백지민 : 공부면 공부 노래면 노래 완벽 그 자체인 거 같아요.
- 11번 이가현 : 아닌 척 하는데 본인이 귀여운 걸 잘 알아요.
- 12번 이다원 : 볼 때마다 자고 있는데 할 일은 다 하는 신기한 연습생 같아요.
- 13번 이정은 : 끼가 많아 뭐든 잘 해내는 엘리트 연습생! 팬서비스도 놓치지 않아서 데뷔도 하기전에 팬덤층이 두툼한 그녀는 연습생들의 롤모델이에요.
- 14번 정다빈 : 친구에 대한 우정이 깊고 함께 놀면 두배로 즐거운 친구인거 같아요.
- 15번 지모경 :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본 적 없어요 가끔씩 허당인 점이 너무 귀여워요
- 16번 최지니 : 흥이 많아 보이고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자기일에 열심히 하는 연습생이에요.
- 17번 고동범 : 반에서는 무심해보이는 연습생이지만 면학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매력이 많아요!
- 18번 권성민 : 같이 있으면 편하고 나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거 같아요. 장난 속 그의 의리.. 엄~청 끈끈해요^^
- 19번 김동현 : 물리를 잘하는 귀엽고 깜찍한 김상훈제오징어... 의외로 사랑꾼이에요.
- 20번 김상훈 :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있는것 같아요.
- 21번 김태윤 : 면학실에서 가장 보기힘든 얼굴.. 멀티실에서 자신만의 공부를 하는 모습이 멋있어요!
- 22번 나규민 : 드디어 두둥등장! 화려한 조명이 감싸는 이 연습생, 어때요?
- 23번 남정현 : 귀엽고 부티나서 친해지고 싶어요.
- 24번 박성주 : 슬픈 눈과 씩씩한 미소.. 사연이 많아 보여요.





25번 박찬휘 : 전교에서 화해를 가장 많이한 친구인 거 같아요.

26번 안재익 : 땀땀함을 빼면 시체인 연습생이에요! 그래도 그 땀땀함이 그의 매력이랄까?

27번 조석현 : 공부, 게임, 예능감, 노래까지. 뭐든 잘하는 8반의 만능 지방이, 강력 추천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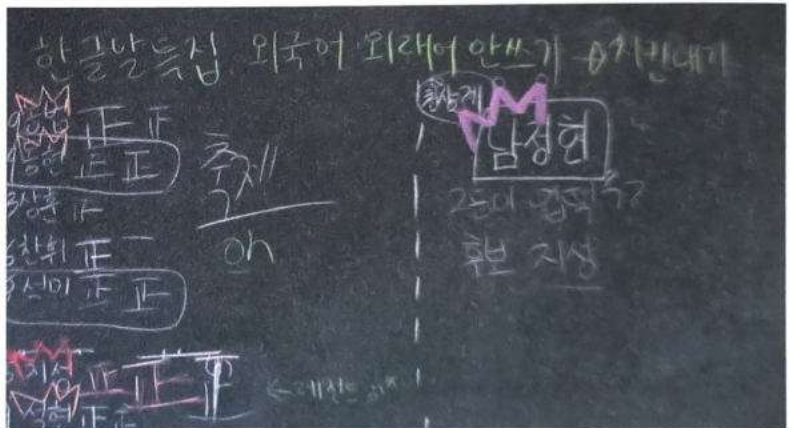
28번 함지성 : 앞뒤 안 가리고 직진하는걸 걸 보니 전생에 장군이었을 것 같은 연습생이네요.

연습생들이 뽑은 2학년 8반의 베스트 모먼트 TOP 3



강소희 모의재판사건

지난 1학기 말, 수요일 자율연장 하는 날이었다. 연장을 결심한 강소희는 자신의 절친 정다빈이 기숙사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친구의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사명감에 그녀를 붙잡았다. 그러나 강소희는 11시 40분 넘게 그녀를 손잡고 붙들었다. 결국 다음날, 비연장을 하던 강소희는 정다빈 외 연장 친구들에게 붙잡혀 기숙사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고, 선생님이 잡으려 올 때 갑자기 자는 척을 하는데(!) 결국 벌점과 함께 새벽 3시까지 호통을 듣게 된다. 의리를 위해 자신이 희생을 한 강소희는 많은 영웅으로 추대받게 되었다. 그런데, 2학기 중반, 자치법정이 열리게 되었고, 강소희는 자치법정에 자신의 사연을 올리게 된다. 이를 보고 감동한 김동현 위원장은 자치법정을 열어 그녀의 억울함을 풀어주려 한다. 결국 변호사도 섭외하고, 종인 박찬휘도 소환한다. 그런데, 빌런 박찬휘는 강소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고, 강소희는 201청소 5일을 선고 받는다. 결국 강소희는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김동현, 박찬휘, 정다빈은 뒤에서 음흉한 미소를 짓는다.



한글날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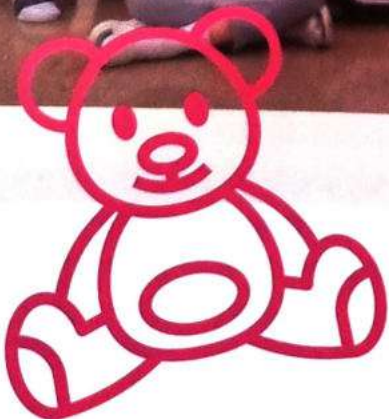
10월 10일, 한글날을 아쉽게 보낸 8반의 몇 아이들은 갑자기 외국어 안쓰기 내기를 시작하게 된다. 호기롭게 내기를 시작했던 것과 달리 외국어를 안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남정현은 이 내기를 포기하고, 함지성이 2등을 하였다. 한글날을 기념하여 하루종일 말을 골라 한 그들은 이후에 매점에서 정현이랑 지성이가 사주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담임쌤이 바뀌었다고?

반배정을 받은 그 날, 설레는 마음으로 교실에 갔고, 담임선생님은 누구실까 생각했던 그 날이 기억납니다. 앞문을 열고 촌데레 표정을 하시면서 뭔가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수쌤이 들어오셨고, 저희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수쌤이 담임쌤이라니! 하지만 비잔류자였던 저는 문자 한 통을 받게됩니다. 담임이 바뀌었다고요. 바뀐 담임쌤이 지현쌤이라고요. 저는 제 인생에서 담임선생님이 바뀌는 일이 있을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개학을 하고 민수쌤은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현쌤은 뭔가 어색해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희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가끔 우리 담임쌤이 민수쌤이었다는 걸 떠올리곤 합니다. 지현쌤, 민수쌤 사랑해요!



301



김창재 선생님



내게 힘이 됐던 것...



아이유 - 에잇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권가은: 친구들

김기수: 구름처럼 포근한 응원과 마음을 울리는 편지

김민영: 들썩들썩 신나는 지윤이와의 하룻길

김유민: 아...지현쌤 쫓아다니는지 벌써 3년째?

김윤지: 그거 바로 너~

남유진: 동그랑땡

류민주: 안녕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던 그 기억에서 만나 (아이유-에잇)

박서현: 고요하게 즐기던 밤산책

신예원: 생각날 때마다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양지민: 했다..그랬으면 했다. 친구들과 기숙사에서 먹는 라면 맛이 영원하기를..

그렇지만 집에서 먹는 라면은 그 맛이 아니다.

이유빈: 어제와 같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친구들

이한나: 앞날창창한 인생을 살자

임다소: 으음~ 담 넘고 먹으러 간 엽떡으로 3년 버텼다

임해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나의 하늘고 생활에 대한 빠른 적응력

장유리: 웃기만 하면 하늘고 파파라치 카메라 들고 등장~!

조하영: 으리 넘치는 멋진 친구들*

하지은: 면회가 큰 힘이 되어주었다♡

김준원: 서울대 가는 상상

박건우: 만족..내게는 너무나도 크지만..작디 작던 친구..!

박민준: 나같은 사람도 잘 받아준 친구들 & 음악

배재원: 자암

송한솔: 꼭꼭 씹어먹는 급식

안지민: 동교랑 희찬이, 종학이

오동교: 창재쌤에게 혼날 각오하고 했던 수많은 일탈들과 함께한 친구들

윤주원: 회에다 소주 한잔 하는 20살의 내 모습

이서준: 나날이 흘러가는 시간만이 영원한 내 편이다

정세민: 와우 아이스크림!

조민서: 사색에 잠기기도 하다 때론 친구와 수다떨기

조현근: 랑케처럼 나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았어!

최진서: 해가 바뀌어도 함께해주는 내 친구들



302



조기성 선생님





@@에 이렇게나 미쳐봤다!



몬스타엑스 - RAMARAMA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 게~

고유진 : 아이돌에 미쳐서 2학년.. 수학 시험 전날에 멀티실에서 멜류 봤다 ..

고은솔 : 수능 3개월 전에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끌려서 엑소 오세훈한테 미친 내 인생 레전드..

고하연 : 고양이 처음 키웠을때 고양이에 미쳐서.. 고양이 사료 내가 먹어봄..

김예은 : 공부에 미쳐서 코피 터져보고 싶다.. 고 생각했지만 내 코는 너무 건강하다..

김한아 : 3학년이 되어 공부의 참맛을 알게 된 나...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공부에 미쳐봤다!

일석이조로 성적도 수직상승!

서한나 : 갑자기 제노에 미쳐서 기숙사에 슬로건 걸어놓고 말까지 걸어봤다

심유리 : 고양이에 미쳐서 친구에게 고양이 포카까지 받아봤다

윤석영 : 배달음식에 미쳐 한주에 4번 배달 시켜먹었지

이다영 : 브런치에 미쳐서 수능 일주일 전에 무단외출했다

이명륜 : 그게 되나 적당히 좋아하는게 잠에 미쳐서 새벽 3시까지 310호에서 잤다..

임우진 : 드라마에 미쳐서 수능 3주 전에 구미호던 봤다 ...

장유선 : 사랑의 불시착에 미쳐서 겨울방학에 넷플릭스로 멀티실에서 보다 눈물흘렸다 ...

정재영 : 오빠들에 미쳐서 수능 10일 전 온라인 콘서트 봤다

정태희 : 와플에 미쳐 무단외출의 스타일을 알게 된 나 .. 2주에 한번씩은 필수로 나갔다!

채윤지 : 3학년때 시험 전날... 면학실에서 위의 친구와 수다파티를 하였다...

최소민 : 배달음식에 미쳐서 육회비빔밥까지 먹어봤다

최푸른 : 무뚝뚝감자칩에 미쳐서 생일날 매점에서 무뚝뚝감자칩 품절시켜 봤다

구진모 : "면학실에서 하는 메이플이 제일 재밌어"

김민준 : 게임에 미쳐서 수능 이틀 전에 노트북으로 게임했다

김승민 : 피파에 미쳐서 수능전날에 10판하고 영어 잘 찍었다 ^^

김채영 : 2학년때 식욕보다 축구욕이 강해서 하루종일 굶고 축구했다

나윤성 : PC방에 미쳐 3학년.. 3층 미스를 피시방으로 만들었다

박수찬 : 코로나에 미쳐 겜하느라 공부를 안했다

신중욱 : 나는 대학교에 미쳐서 고3동안 공부를 지니 갱했다

이동규 : 2학년 봄 방학때 롤에 미쳐서 하루종일 협곡을 돌아다녔다

이제현 : 돼지로 변해가던 3학년 ... 급식보다 친구들과 외부음식을 더 많이 먹었다

이한결 : 축구에 미쳐 밥도 안먹고 축구해봤다

정지호 : 외부음식에 미쳐서 한달동안 9번 시켜먹었다

지상혁 : 대학에 미쳐서.. 뽕뽕이가 되어버렸다

최경호 : 외부음식에 미쳐서.. 면학 2타임 도서관에서 몰래 치킨, 곱창, 족발에 피자까지 먹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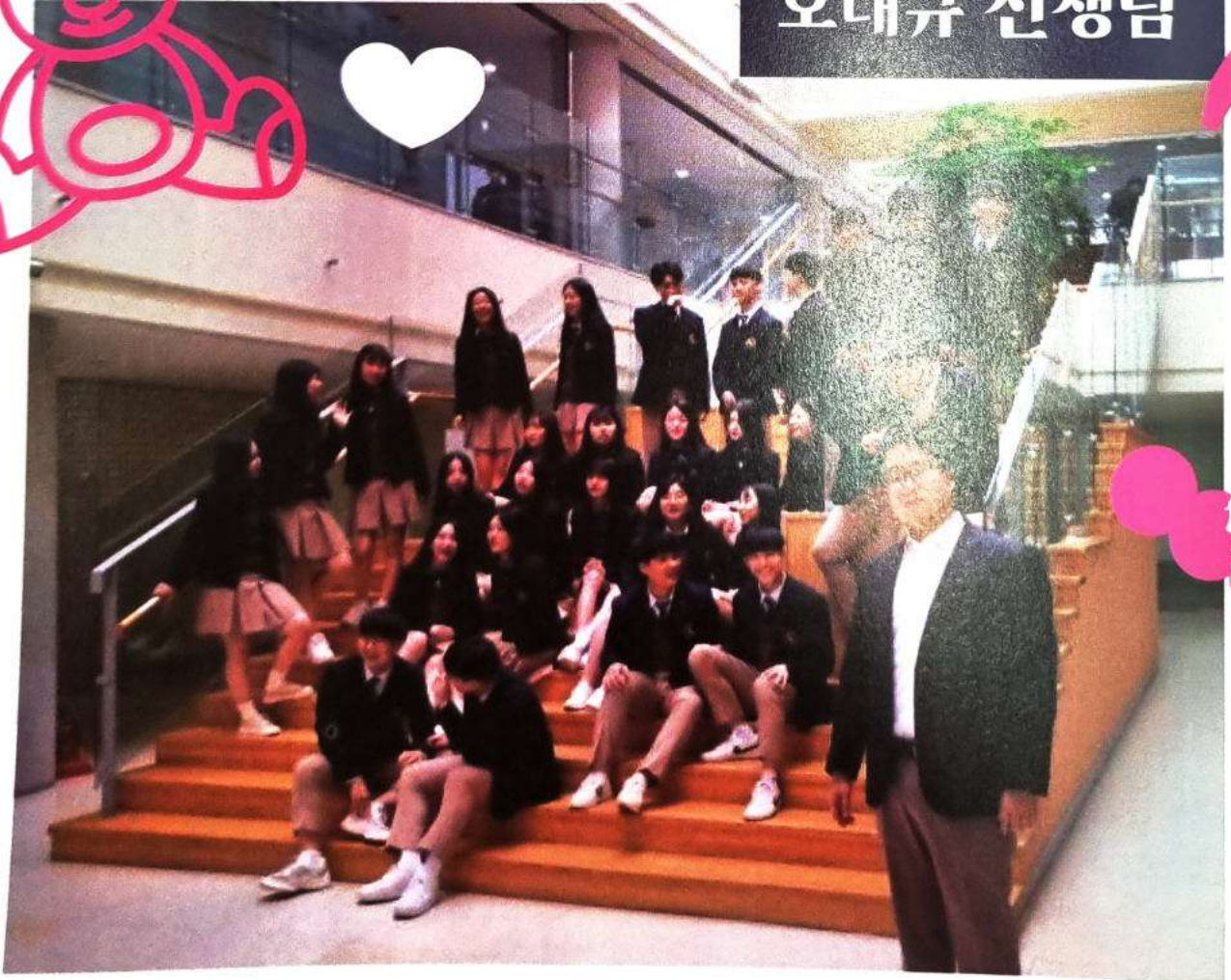
경비아저씨랑 숨바꼭질도 해봤다.



303



오대규 선생님





3년 동안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DAY6 - Best P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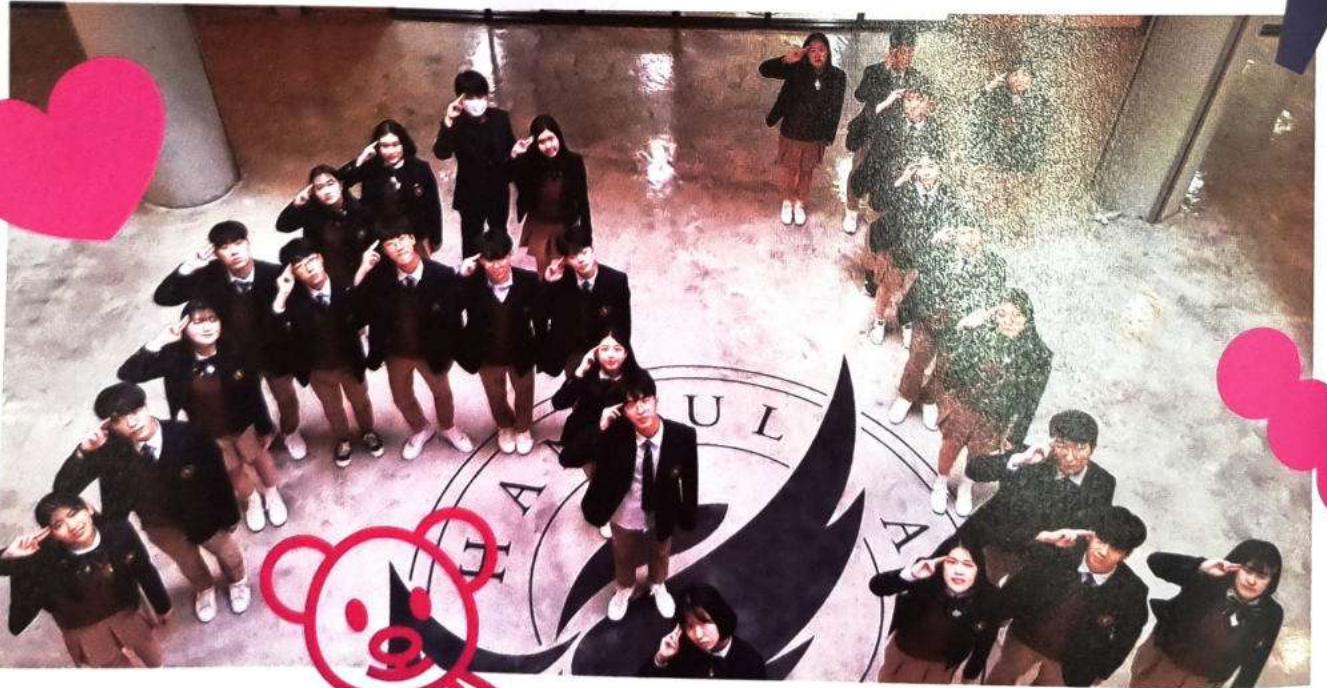
한순간도 나에게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아

- 강선우 : 2학년 올라가기 전 봄방학이었나? 그때 잔류해서 뽕씨방으로 아한이랑 호이해서 셋이 맨날 같이 잤는데, 내 생일날 깜짝 생일파티 해주게! 편지땀에 눈물 쏟고ㅋㅋㅋ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고 고맙다!
- 김가은 : 모두가 공부하는 시험 전날 예나와 소리지르면서 운동장을 가로지른 것
- 김민지 : 하늘고 축제에서 공연보면서 방방 뛰었던게 기억에 남고 재밌었다.
- 김예린 : 매주 토요일 밤마다 룸메들과의 식사파티(ft.317하트이모티콘)
- 박예나 : shouting
- 박원경 : 자유시간 친구와 소소한 매점텔이가 Best part
- 박지원 : 안 좋은 일이 있을때마다 친구들과 매점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같이 풀었던 날들이 행복했고 학교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 우아한 : 2학년 때 친구들과하고 낙엽 던지며 사진 찍었던 것! 넘 예쁜 장면으로 추억되는 일들 중 하나 :)
- 유소희 : 룸메들과 외부음식
- 윤지원 : 일요일 라면은 빠지지 않고 투밥한 것 ^_^
- 이나현 :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얘기했던 모든 시간이 하늘고 3년에서 유일한 낙이었다.
- 이소현 : 108208303
- 임다솜 : 'Luminant' 노래 만들고 녹음한 일! 준비과정도 재밌고 예뻐던 추억이다 'v'
- 전 솔 : 별 의도 없이 생일자 특식이었던 롤케익으로 밤에 룸메들끼리 파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코로나 1인 1실로 룸메 공중분해 된 탓에 찐 마지막 파티가 되어버린 일
- 정휘수 : 수능 4일 남기고 저녁시간에 했던 마지막 일탈. 1층 계단 아래에 앉아서 먹은 허니컴보랑 엽떡 쫄맛탕..(대규쌤 죄송합니다 ㅎㅎㅎ)
- 홍예령 : 심유리 놀리려고 최푸른, 박지원이랑 짜고 가위눌린 척하다가 실패했다싶어 발버둥쳤는데 엑소시스트인 줄 알고 놀라서 유리, 푸른 뛰쳐나가고 지원이도 같이 나가려다 막혀버렸던 일...
- 홍지수 : 시험 일주일 전에 면학실 자리에서 날개미 5마리와 접촉하고 울면서 청소함.. 앞으로 깨끗하게 써야겠다는 교훈을 얻음 ππ (그때 같이 정리해준 너희들.. 고마웠다)
- 김민중 : 101 HO CAFE에 방문해서 흑성탈출3 먹었던 일
- 김예준 : 배달음식시켜먹은거
- 김준호 : 하늘고 3년 내내 모든 시간
- 노희찬 : 3학년 3반 친구들과 함께한 모든 일
- 박정현 : 2학년 라크로스 대회에서 1점 차이로 4등을 했을 때... 아쉬웠지만 가장 의미있었던 순간이었음
- 손현준 : 1학년 때 113호에서 친구들과 하늘고 생활 중 처음으로 먹었던 교촌치킨 레드콤보와 그때 나누었던 수다
- 신원민 : 공사 1차 합격후 사관팻과 10km 달리기 훈련과 삼겹살 먹기 (feat 주호쌤)
- 엄성준 : 2학년 때 기숙사에서 축구보고 혼났던 일, 그 일을 계기로 생활면에서는 상당히 개과천선할 수 있었음. 사실 안전불감증이 생겼다. 그래서 한번쯤은 크게 혼나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 이우진 : 소설(written by 우이진)과, 독자들과 함께한 시간들.
- 장성길 : ★라크로스 은퇴경기 포스코전 결승골★
- 장해민 : TED-x 연사로 전교생 앞에 섰을 때, 나와 마주친 하나의 조숙한 눈빛: 고개를 돌리시던 교장 선생님.
- 정인수 : 육사 1차 합격 후 친구들과 함께한 체력훈련 ㅎㅎ (feat.과학교..)





304



김경훈 선생님



하늘고 라일 손에 꼽을 노빠꾸 경험!

이달의 소녀- Why Not?
눈치는 보지 마 크게 중요해~



1. 강성은 : 면학 시간에 운동장 한가운데에 누워서 별 봄
2. 김설지 : 공강 8교시 무단외출해서 엽떡먹으러가기
3. 김연주 : 월담하고 치킨 먹어봄
4. 김은진 : 선생님께 배달 받아달라고 부탁함. 쌤 감사해요 덕분에 맛있게 먹었습니당 남남
5. 목소연 : 3년 휴대폰 소지. 휴대폰 2번 사용 적발로 퇴사 후 학교 근처 호텔 등교.
6. 박유하 : 학교에서 애들이랑 몰래 배달음식 시켜먹을 때가 제일 짜릿해
7. 송다영 : 면1에 별똥별 보겠다고 탈주. 결국 한 개도 못 봄.ㅠ
8. 송다울 : 면2때 화학실에서 룸메랑 치킨먹음
9. 윤정연 : 새벽에 기숙사에서 룸메들이랑 미리 시켜서 곱창이랑 쌈싸먹음
10. 윤준영 : 면학시간에 몰래 집 갔다옴ㅎ
11. 이민진 : 저녁시간부터 면2까지 게임함 큐브 이스케이프 꿀잼
12. 전준아 : 체육관에서 몰래 치킨 먹다가 걸렸는데 쌤이 봐주심♥
13. 조다빈 : 수업시간에 눈사람 만들고옴
14. 한정연 : 맹이랑 같이 큐브 속으로 들어감
15. 강경래 : 연장시간에 동규와 함께 면학실에서 라면먹음 스릴만점
16. 김도원 : 손수민 임해욱 윤민석이랑 면2때 운동장에서 라면끓여먹음
17. 김윤서 : 면학시간에 반애들이랑 박스헤드 리그 옴 재밌었음 ㅎㅎ
18. 문형민 : 축구 보겠다고 호이해서 소리질렀다가 선도감
19. 변한준 : 면학시간에 동규랑 진이랑 교실에서 불 꺼놓고 피나치공 개꿀맛
20. 손수민 : 기숙사에 닌텐도 스위치 들여와서 밤마다 룸메들이랑 마리오함 ㅋㅋ
21. 신동혁 : 수능 2주전 주말 외출해서 영화보고옴
22. 오준석 : 창체시간에 집 갔다옴
23. 윤민석 : 면2때 체육관에서 애들이랑 라면먹음
24. 이태경 : 체육관에서 치킨먹고 동아리실에서 노래부른거
25. 임해욱 : 애들이랑 면2에 운동장 가운데에서 별보며 라면먹음
26. 최우빈 : 면2에 애들이랑 몰래 체육관가서 불키고 농구함

305



심주석 선생님



첫인상 끝인상 차이가 가장 큰 사람?



Stray Kids - Boyer

순한 양이었다가도 목표 앞에 맹수 마왕~

고근영 : <김수아> 약간은 엄격한? 인상 → 말랑콩떡오리

김민지 : <서미소> 그녀가 궁금하다 → 섬세하고 자상한 언니미 + 은근한 생활애교 + 질투대왕 + 츤대래

김수아 : <김민지> 동물 애호가 → 엄청난 오리빠순이

김예은 : <심주석쌤> 강렬한 존재감 → 소리없는 크룩스

박지우 : <윤동건> 세상에 불만이 아주 가득해 보이는 눈으로 패려보던 무서운 친구 → 발다친 작고
쏘중한 동건인 작소동건 친구

방주희 : <심주석 선생님> 감히 쳐다볼 수 없을 것 같은 EBS 최고 인기남 → 강렬한 빨간 후드 집업

서미소 : <주석쌤> 과탐 2개 안끝내면 내 목숨이 위험하다ㄷㄷ... → 정말 열정적인 분 주석쌤 짱 X

서지민 : <이규화> 지극히 정상인 줄 알았는데 멈추라는 주석쌤 손에 하이파이브하고 지나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이우경 : <서지민> 착하고 공부 잘하는 정상적인 범생범생 모범생 → 눈 마주칠때 마다 마스크 뒤에 숨어서
팩 소리내고 아닌척하는 라이라이 또라이

이한비 : <방주희> 자기관리 철저한 뇨자 → 의외로 단순하고 귀여운 뇨자

이형경 : <윤동건> 왜 하필 같은반..ㅠ → 같은반이라서 좋다..ㅎ

정세인 : <이한비> 약간 차가운 도시의 여자 → 아주 밝고 해맑고 귀여운 구석이 있는 기여미

정현희 : <심주석 선생님> 첫인상 멋진 3학년 부장 선생님!*** → 심심한 주서기

황인서 : <서미소> 처음엔 차가워 보여서 무서웠지. 하지만 알고보니 너, 좀 먹을 줄 아는
푸드파이터였구나?! (미소야 더럽해..ㅎ)

나상준 : <나상준>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내라는거 안보냄

박도현 : <이규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 → 사이코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박세호 : <서지민> 반에 간식 기부해주는 착한 친구 → 반전 떡순이

박주용 : <이용현> 조용할 것 같지만 알고보니 헛소리를 잘 하는 아이..^^

변석원 : <박도현> 최경호 → 권혁제

신동원 : <이규화> 나와 같이 인생을 즐기는 친구 → 씹재능충

윤동건 : <변석원> 마카롱 성애자 → 컵라면 성애자

이규화 : <이우경> 공부 열심히 하는 조용한 친구 → 주변 친구를 웃게하는 유머스럽고 착한 친구

이용현 : <황상하> 무서웠음 1년동안 인사도 못해볼것 같았음 → 착한듯, 인사도, 얘기도 해봤음!

정경석 : <이우경> 처음 봤을때는 무뚝뚝해 보였는데 생각보다 다정하고 소심했다

황보은 : <서미소> 공부밖에 모르는 차가운 친구 → 추운 친구를 도와주는 따뜻한 친구

황상하 : <나상준> 나랑 한번도 말 안 을 줄 알 → 말해보니까 좀 예능캐





306



김민희 선생님

우리가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



- 강유진 - 친구랑 가끔 무용실 가서 스트레스 풀기, 룸메들이랑 외부음식 먹기
- 김명지 - 피자랑 치킨 배달시켰는데 형주쌤께 들켜서 못먹을뻔 했다가 계단 밑에 숨어서 친구들이랑 먹었던 기억.. ㅎㅎ 너무 많아서 그때 배터지는 줄 알았다ㅋㅋ
- 박채연 - 3학년 되자마자 미니쌤, 승주쌤께서 나랑 경민이 테라스 금지하신 것. 경민이와 비밀연애하듯 보냈던 3학년 시간들(피나치공 등등..), 힘든 수험생활 속 활력소가 되어준 3학년 쌤들과의 잊지못할 추억들 ㅎㅎ
- 서정미 - 룸메들과 맘스터치 펼쳐 놓고 테라스에 둘러앉아 조마조마하며 수다떨었던 추억!
- 연다운 - 민희쌤 생일파티 준비할 때, 크리스마스 당일보다 크리스마스 전날이 더 신나는 것처럼, 편지 쓰고 풍선 불고 꽃길 만들고 민희쌤 언제 오실까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 윤수민 - 짜장면 반입 작전이 완벽범죄로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몇 달 뒤 배달의민족에 올린 후기 인증샷 때문에 교무실 쌤들께 들킨 것
- 이민경 - 연재x하현x준아와 함께 개추운뎀 결성한 것
- 전가을 - 친구들과 함께 미니쌤 과자가방 만들기
- 정현희 - 코로나 때문에 학교 밖에서 보내는 특별한 스승의 날
- 조연재 - 민경x하현x준아와 함께 개추운뎀 결성한 것
- 조하현 - 민희쌤 생신파티, 룸메들과의 생일파티와 밤늦게까지 나누던 이야기들, 인생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호실이등
- 최운서 - 면학시간에 친구들과 몰래 밖에서 라면 먹었을 때&별뿔별 보러 나갔을 때 ㅎㅎ
- 최정은 - 정은이와 아이들에게 생일축하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함께한 모든 추억들 (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b)
- 한지민 - 매일 5시 40분에 일어나서 6시 5분부터 영어 단어 외우다가 출석 체크하고 나가서 면학실 불 키고 에어컨 키고 국어 문제로 하루를 시작했다.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을 때도 6시에 일어났다. 심지어 4~5월에는 공항철도 타고 영종도 스카로 등교했다. 위넌 친구들 우리 추억 알지? 나 3학년 때 진짜 열심히 살았다.
- 경성운 - 동건이 휠체어 타고 하늘고 이곳저곳 산책했던 거!!
- 권혁제 - 컨퍼런스 데이 나갔을 때
- 김종현 - 시험 하루 전에 학교 탈출했다가 걸려서 개혼남
- 박주훈 - 수돗물 유출로 생수로 양치를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이병하 - 매일매일이 같은 날의 반복이었기에 딱히 없당
- 이재현 -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깜깜한 교실 베란다에서, 쭈그러 앉고 비를 맞으며 김치 왕뚜껑을 몰래 먹던, 3학년 어느날의 연장 면학시간
- 이호준 - 대놓고 호실 바닥에서 라면 먹다가 걸린 거
- 장우빈 - 기숙사 친구들과 밤새 떠든 것
- 장현우 - 206호 다같이 라면먹다 쌤한테 딱 걸린 거
- 정예준 - 하늘고 입학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강 침대에서 라면 먹다 1학년 중에서 최초로 벌점 받은 거
- 채희준 - 친구들과 함께 구름다리에서 라면을 먹으며 노을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던 아름다운 추억!
- 최홍서 - 컨퍼런스 데이, 애들하고 같이 라면먹던 날들.






307



최승주 선생님

성인이 되어도 멈추지 못할 그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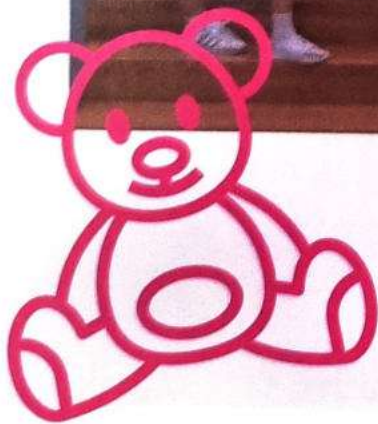
 TWICE - MORE & MORE
멈추지를 못해 More and more~

1. 광나현 예쁜 야경 찾아다니기! 하늘고 야경 및 노을 명소를 발견해 낸 경험을 살려 야경과 별들을 찾아다닐 것 같다!
2. 권수민 EDM 고막 터질 정도로 뽕뽕하게 듣기!!! Trap 없인 못 살아... 이명은 덤☆ :(
3. 김유민 권수민 괴롭히기. 반응이 재밌다☆
4. 김지원 노래방가기! 스트레스 푸는데 직빵! 아이유의 좋은날은 필수ㅎ(소찬휘파저리가라)
5. 박지윤 DRAMA보기! 드라마 추천 언제나 환영이요!!(장르불문)
6. 박지은 친구랑 산책하기! 기분전환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7. 송연수 슬라임처럼 장소불문하고 퍼질러 있기
8. 송혜린 해리포터 과몰입하기! 난...ㅇㅏ 직도... 부엉이 편z | 를 기다린ㄷr...☆☆ 부엉...
9. 오영은 운동 자극 받기!., 운동 해야 하는뎡ㅎㅎㅎ(항상 마음만은!)<
10. 유경민 음악 듣기! 3년 내내 음악과 함께했으니 앞으로도 쪽-
11. 유채은 덕질ㅎㅎ 초딩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선적이 없당..! (방탄♥)
12. 이안나 노을 구경하기! 하늘고에서만큼 예쁘진 않겠지만..
13. 조가원 아침의 마무리는 항상 yogurt! (애플망고 강추)
14. 김도원 늦잠 자기! (밤낮 원래대로 되돌려놔야되는데...)
15. 김용우 게임이요. 같이하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16. 김재민 맛집 탐방하기! 영종도 맛집 추천은 나에게
17. 김정환 나의 꿀 같은 피부를 유지하는 비결...? 바로 이슬! 이슬을 끊을 수가 없는
내가 너무 밍다 . T.T
18. 김현국 농구, 늘고 생활이 지치고 버거울 때 항상 나를 붙들어준 운동임ㅋ
19. 남동균 심성깊고 착하게 살기, 어찌 제 올곧은 마음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헛소리 그만...)
20. 박건용 친구랑 놀기
21. 송석현 운동하기. 항상 건강해여죠..
22. 신진 잘생기기 (그만 좀 잘생겨야 할텐데;;)
23. 유지성 공부하는 척 노트북으로 짤짓하기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면...)
24. 임세화 남자라면...운동.게임.먹방
25. 한정우 게임이랑 노래방가기 (코로나라서 노래방은 못가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먹기만해서 ㄹㅇ 돼지가 될거같음)





308



서연희 선생님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AKMU - 불 만난 불고기

내 이름을 기억해줘~



- 강민지 면학실 책상 공간활용
- 김민서 자린고비 정신, 난 돈이 좋아...
- 김수민 눈썹 정리
- 김윤서 면학실에서 콘서트 열기+초록색 외계인 춤
- 박신민 말투 중독성 감. 너 왜 나랑 말투 똑같아?
- 송진호 섹시 찰찰 이마
- 신서연 유충발견.. 왜 나한테만 보이는겨?
- 안규원 방배정 행운아/ 3년내내 한번도 기숙사에서 벌레와 마주친 적이 없음^^
(못본거 일수도..암튼 난 못봄)
- 유지수 넷플릭스 미드 시즌 다 봐버리기!
- 이서진 내가 똥머리를 하는 날이면 한번은 무조건 듣는 내 수식어 '똥머장인'.
- 이하린 느릿느릿 행동하기
- 이현진 그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할 말도 많당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심심해
- 이희영 임수린이랑 면학실 핫플만들기. 수린이랑 내 면학실 자리는 정말 아늑해서 아무
도 그냥 지나치질 못함. 그래서 한 번 우리 자리로 오면 쉽게 떠나지 못했지X
- 임수린 이희영이랑 면학실 지키기. 교실면학 409면학 하는 친구들 많아지면서 면학실
에 나랑 희영이만 있을때도 있었음. 공부(조금)-)떠들기 무한반복 덕분에 유튜
브 알고리즘도 똑가타!
- 김기찬 여름엔~ 춥게~ 겨울엔~ 덥게~ 남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한결같이 9월에 패딩,
1월에 반바지를 입고, 목만 있는 목폴라를 유행시키려 했으나 실패한 진정한
패션 테러리스트!
- 김동윤 말 안해도 알지? "동쏘"
- 김성민 하늘고 매점 매출 1등 공신
- 김중학 공부하는 척하기
- 김형찬 기숙사 2층 전화부스 쪽 세탁실, 왼쪽에서 첫 번째 드럼세탁기 접수
- 노갑민 (자)타공인 하늘고 최대 인기남 '경성윤'을 접수했다...!
- 안재영 장소를 가리지 않고 노트북하기
- 오대환 도서관VIP
- 장성찬 기숙사 서열 1위
- 정원식 공부할 장비만 1등, 딴짓할 장비도 1등...
- 조용준 현우진 판서 따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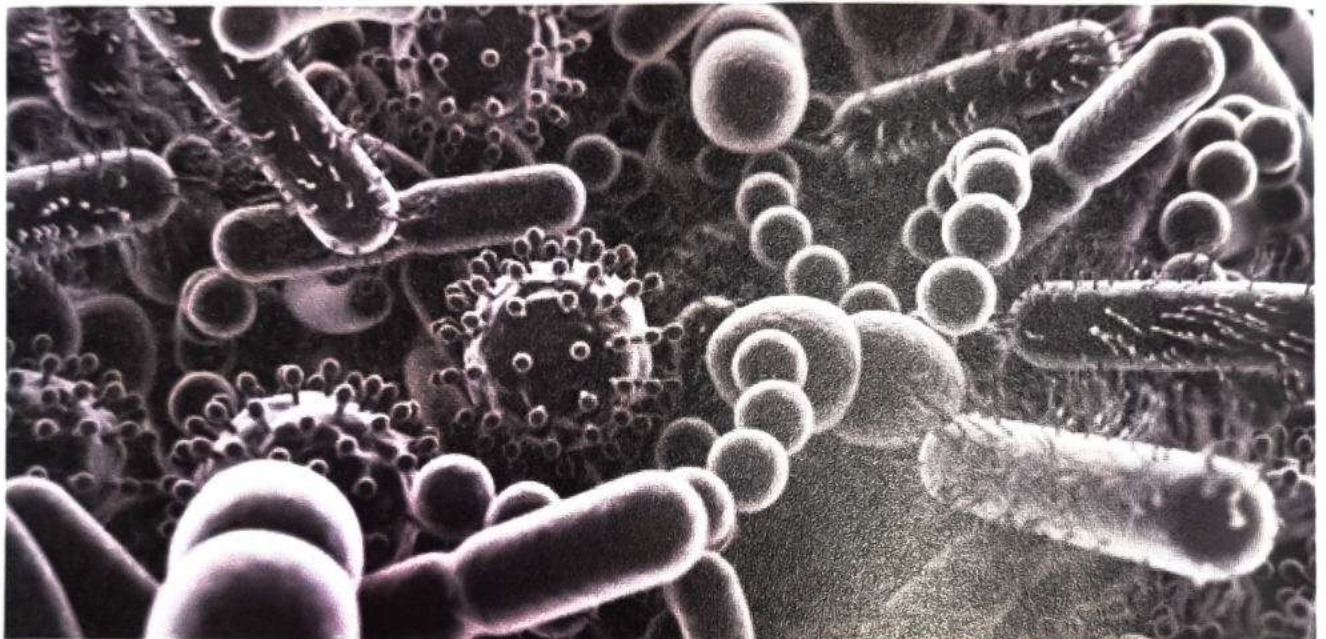
INKLING

2020
haneul academy
9th, 10th

FINAL MAGAZINE

"The newspaper is a greater treasure to the people than uncounted millions of gold."

-Henry Ward Beecher



Russia has been exporting natural gas to Europe since the Soviet era, and that volume has begun to increase rapidly since the 1990s. As of 2017,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25 percent of the EU's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one-third of that natural gas imports depend on Russia. Because of this, the European Union has been receiving constant energy security threats from Russia. In 2006 and 2009, Russia shut down gas valves because Ukraine did not pay for natural gas on time. This seemingly only affects Ukraine, but other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Italy, have been hurt by Russia's actions.

GAS WAR by Yerin Kim

THE KEY OF DISEASE, "MICROBIOMES"

Microorganisms distributed within a single intestine are called microbiome, and bacteria in this intestine, which are also classified as one organ of the human body, have an ecosystem within the intestine. It also has a valid correlation with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in many ways, and the number is estimated to be well over 10 times that of the human cells that make up the human body. - by Jiyeon Lee

In KAIST, the researcher made artificial nanomaterials using Tubulin protein. Tubulin is a unit of the microtubule and looks like a ball. The microtubule has a long tube structure that forms a cytoskeleton. The researcher observed the principle that how the Tubulin folds. So, by controlling the degree to which tubulin folds and the number of folds, they can make nanomaterials that have different function and shape from the microtubule. This is called Tubulin-based NanoTube(TNT). TNT has an anti-cancer effect. When TNT enters the inside of a cancer cell, it releases anti-cancer agents in it, destroying the structure of cancer cells.

Tubulin-based NanoTube using Tubulin protein by Junsoo Park

OTHER ARTICLES

MUTATION

MINSEO JANG

PANDEMIC

JIWOO OH

DOCTOR vs DENTIST

YOUNSEO B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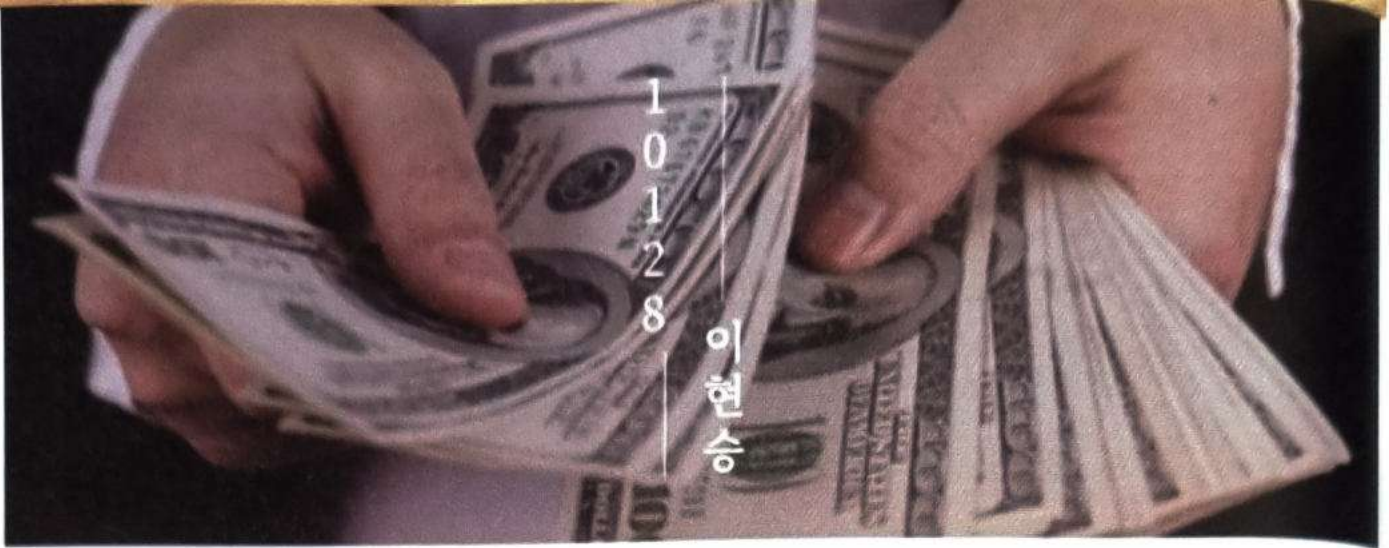




Real Estate Increasing-Based On Economic Common Sense

The economy is in a state of instability these days. Symbolically, we can see our economy by looking at the current real estate. Currently, real estate prices are on the rise overall. Think about it, why is rising real estate prices economically unstable? To put it simply, one reason is that buying a house will become more difficult in the future. However, if you think about this economic aspect a little more arithmetic, you can see another reason. The money that is traded on the market, ie the money on the market. It is due to the decrease in the volume of calls. Can you understand? Why does the economy become unstable when the amount of money decreases? Can you explain why? A little economic knowledge is needed to understand our economy as it is now in our country's real estate. Let me give you a brief explanation.

The economy can exist only when there is demand. To put it simply, there are chicken restaurants, clothing stores, restaurants, and other places that benefit from consumer consumption, but if there is no demand, all stores will be in the red. In the end, many shops are closed and this situation can be seen as a visual impact of the economy. A de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means less demand. Therefore, a decrease in the amount of money makes the economy unstable. It is a time when real estate prices are soaring, and many people are trying to benefit from the difference between real estate growth and loan interest rates by investing in real estate even if they take out loans. However, taking out loans and investing in real estate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amount of money. This is because money for speculative purposes, such as real estate, is not the amount of money, but rather the amount of money tied to prevent it from circulating.



1
0
1
2
8

이
현
승

Real Estate Increasing-Based On Economic Common Se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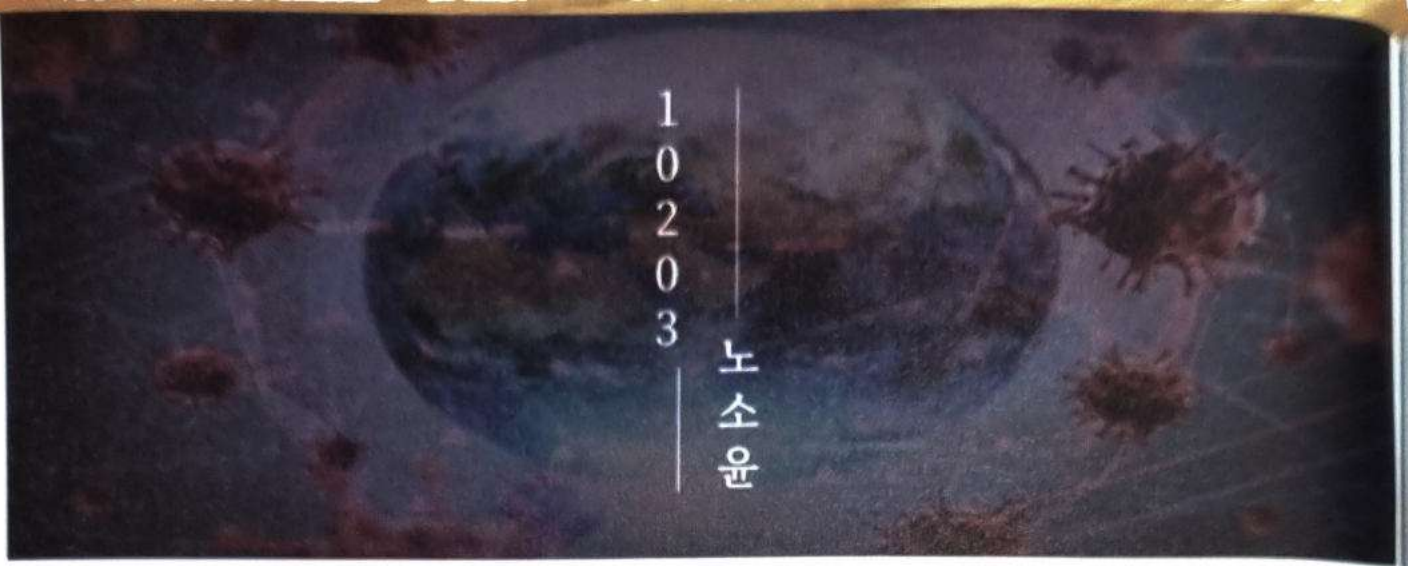
As a result, the government tried to prevent rising interest rates on home loans, but it was useless. This is because most of the upper class, who have high risks such as real estate, can invest in large-scale investments without taking out loans rather than middle-class people who need to take out loans. How long will our country's endless rise in real estate last? In this article now, we put real estate for investment purposes, but in the future of our lives, it will be our home. As I write this article, I am only concerned about the impact of this soaring real estate market on our generation.

Our Society Changing with Covid-19

A year has already passed since the Covid19 crisis broke out. As seen in the movie, everyone is wearing masks, and the number of confirmed corona in the world is increasing endlessly. Korea is also living in an era of Covid19, which is almost over after several outbreaks. Is it possible to return to pre-Corona society? What kind of society has changed since Covid19 ended?

'New Normal' is more likely to arrive after Covid19. The term "new normal" refers to a new standard that emerges with the changing times. In order to predict what will happen after Covid19,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how long the current changes will continue. Experts say it is not certain when the vaccine will be released. It seems that It is almost caught to some extent in Korea, but if it doesn't end up overseas, they can't say they're done completely. We don't know whether another infectious disease will occur. If the changes we are experiencing now last for years, this change is not temporary, but a new balance that we welcome in this way can be called 'new norm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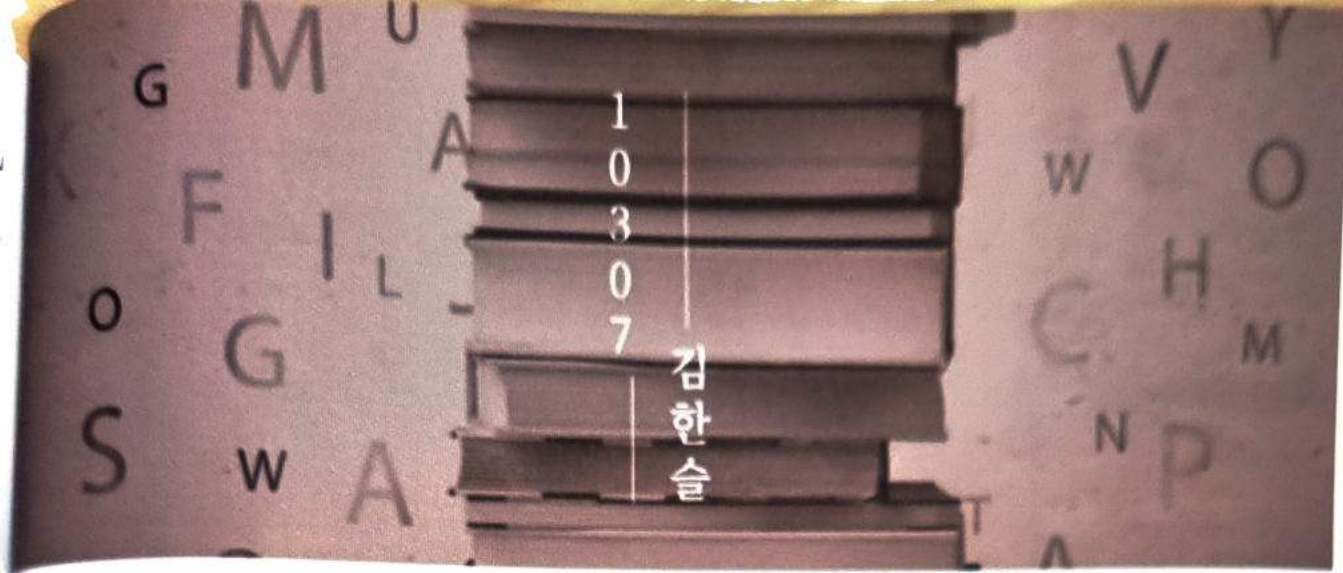
A major change since Covid19 has been the conversion of many things to 'uncontacts'. As 'Uncontact' may seem like a sudden trend emerged with Covid19, but non-face-to-face services such as home delivery and online banking have continued to develop. Restraints in outside activities have led to widespread telecommuting, and online markets such as online shopping malls and delivery food markets have emerg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e e-commerce market has achieved remarkable growth. As interest in content that you can enjoy at home increases, its value is increasing.



Our Society Changing with Covid-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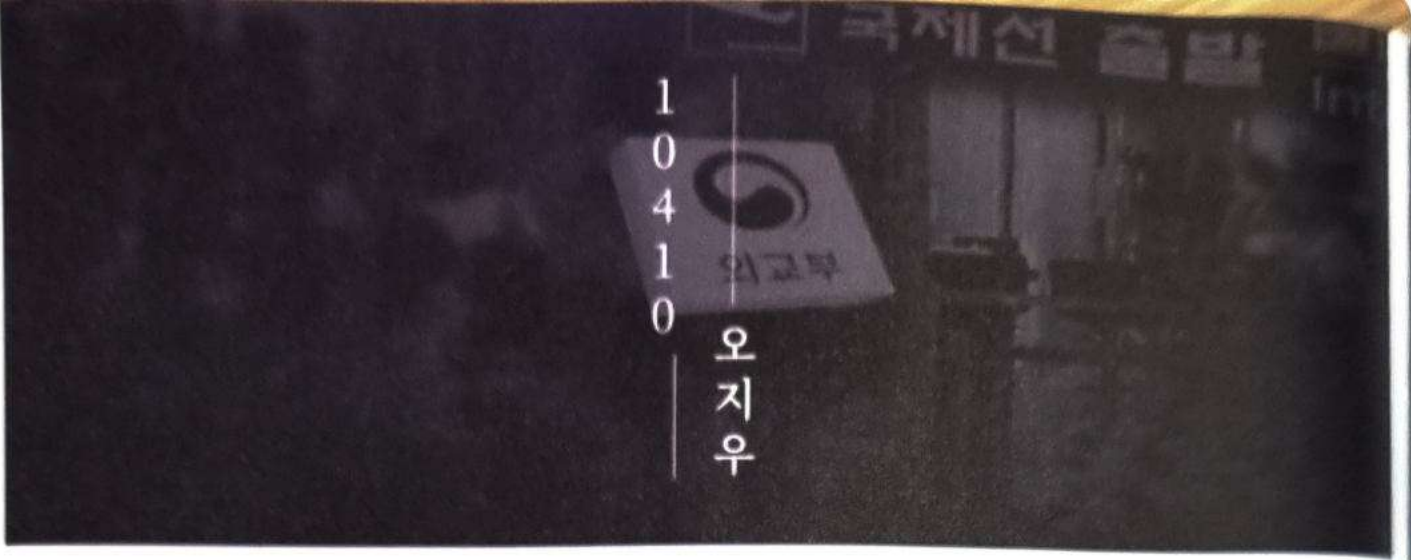
With the Covid19 craze, school classes have also been replaced by online. This has increased the number of online learners and the online demand of students with limited classes. This is due to the explosive growth of the online education industry. In addition, in the midst of growing preference as a freelance profession, the number of freelance professionals is increasing and demand for online educators is increasing. Online education threatens the structure of traditional studies and schools by expanding the scope of materials and educational content. The proliferation of online education is accelerating, and the trend of online education will benefit more and more people than ever.

Korean society seems to be stagnant as news about Covid19 is still circulating. However, we must not stay still, but prepare our future for a changing society.



The influence of language which made people become the highest levels of the ecosystem

Human has three kinds of skin colors, white, black, and yellow. The reason why human has this skin color is because of evolution. Just as there are white, black, and yellow, the origins of ancient mankind have been co-existed by various species of mankind: Homo erectus, Neanderthals, and Homo sapiens. Among them, Homo erectus and Neanderthals were extinct, and only Homo sapiens survived. There is a myth that Homo sapiens were able to survive due to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but that is a false story. Only a few thousand years ago, mankind was not at the top of the ecosystem. It was from the emergence of Homo sapiens that humans became the top layer of the ecosystem, which attacked and killed different kinds of races because they were a very aggressive species, and they collaborated with each other to hunt stronger prey than themselves. And in the end, it reached the peak of the food chain of food. Neanderthals, another species of mankind, were also very strong. It was also much larger than Homo sapiens and was a species with a much stronger body. But the most decisive reason why they are extinct by Homo sapiens is language. Neanderthals had no language. So there was a limit to cooperate together. Also, the birth of language creates common values. For example, they trust each other by creating common values with symbols like God. There was no limit to the number of groups that could be assembled into these lifeless common symbols. Of the three origins of mankind, only Homo sapiens had a common symbol with language. That's why the cohesive homosapiens could easily beat other species like Neanderthals. Neanderthals had a large population due to their strong physical strength, but only about 50 people were in groups. But Homo sapiens could easily win because they were swarming around in groups of hundr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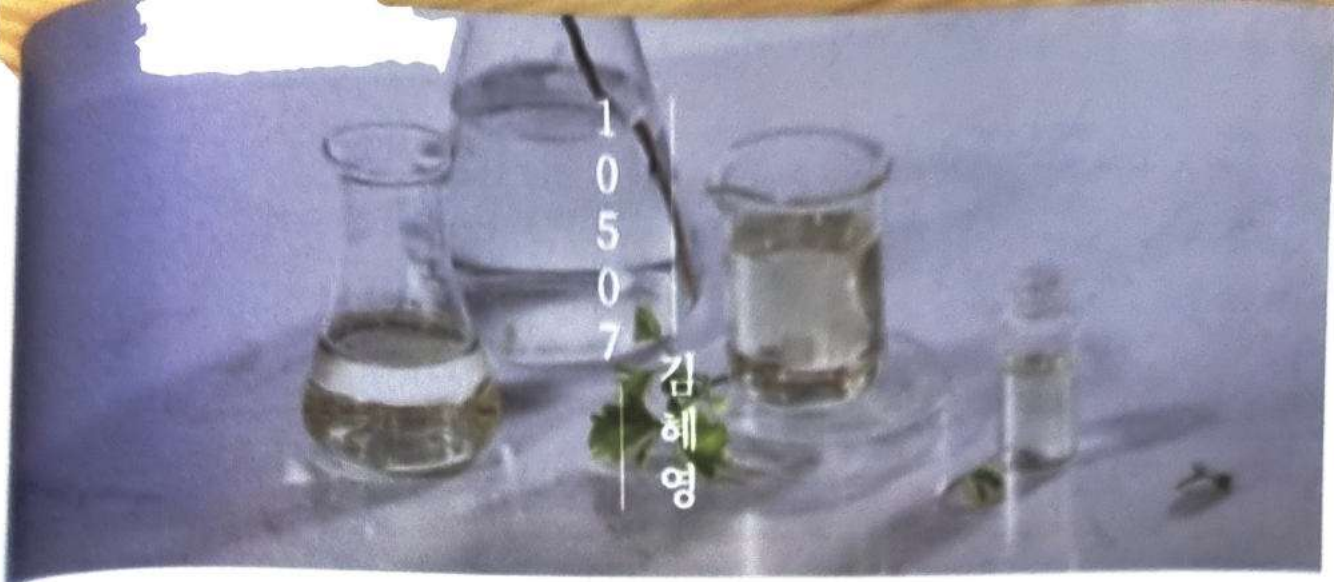
What diplomats are doing in the pandemic

When we say diplomats we usually think of the governmental diplomats who are sent to other countries to attend official meetings. But there are also people called non-governmental diplomats. Non-governmental diplomats usually refer to people who work to promote goodwill with other country in fields such as art, culture and sports activities. In this situation the term could be understood as people working to end the pandemic with no relation to the government order.

Literally anyone with a will can be a non-governmental diplomats. Examples can be the missionaries staying abroad to help those who are put in the danger of the virus. A news report from '국민일보' tells a story from Africa '잠비아'. Korean missionary '김지혜' has donated a cotton masks made by the hands of the local seamstresses to a local hospital. She talked about the patients in the hospital wearing the same masks over a month emphasizing the seriousness of the health of the local communities.

Another Korean missionary in the same country visited children in a community to teach them about social distancing and donated essential household stuffs.

During pandemics like these roles of the diplomats are especially important. We should not only appreciate those who are officially working for the country but also those who are working out of our sight.



Hand disinfectants, it's more dangerous if used incorrectly

As Koreans suffer from humidifier disinfectant cases and insecticide eggs, "chemophobia" is happening everywhere, extremely avoiding chemical substance. Seoul National University's Graduate School conducted a 2018 "National Recognition of Hazardous Living Chemicals" survey, with 54.3 percent of participants saying they try to avoid chemical contact to the fullest extent possible. In addition, as many as 15.4 percent feel physical symptoms, avoidance, and extreme fear.

So what is one of the most recent chemicals that could come close to us? One of them is hand disinfectants. Our school especially disinfects our hands often. The importance of hand disinfectants is emphasized by the spread of corona.

Yoon Seok-joo, a senior researcher at the Institute for Safety Evaluation, said, "Is the biocide enemy? Is this really on our side?" "If you ignore proper capacity and correct usage, it can be harmful to your health," he said. Benzalconium chloride, a toxic substance in 123 types of hand disinfectants, can damage skin and eyes if inhaled incorrectly. Until recently, unlicensed 420,000 hand disinfectants were manufactured and sold. Also, a group of people who earned 1.6 billion won by deceiving with hand disinfectants were arrested. But even with these problems, we cannot neglect the use of hand disinfectants, because of Corona 19. Also it is better to use disinfectants as well as water and soap. As such, hand disinfection plays a really important role in preventing diseases, so we need to know how to use it correctly.



Hand disinfectants, it's more dangerous if used incorrect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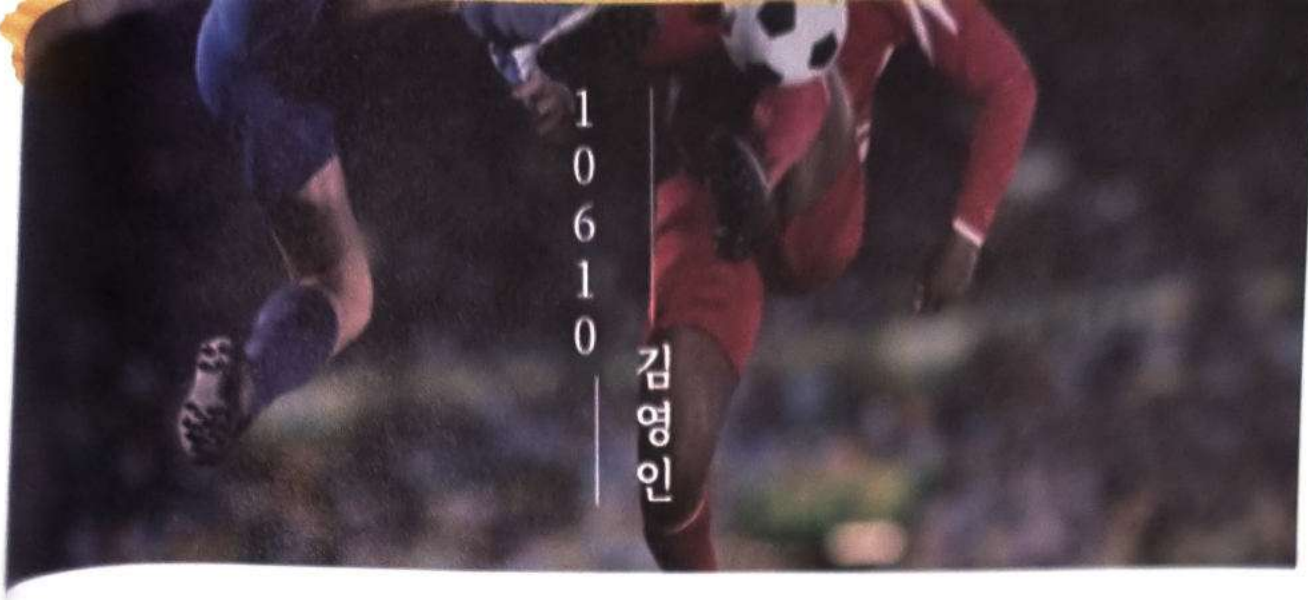
In fact, hand disinfectants and hand sanitizers are different things. We must know and distinguish these two accurately and be able to use them correctly. First of all,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hand disinfectants are one of the medical supplies and hand sanitizers are cosmetics. Disinfectant contains ethanol, isopropyl alcohol, and benzalconium chloride, which degrades the protein of bacteria and loses its function. It is intended to kill viruses. Hand sanitizer, on the other hand, are used to remove viruses from the skin.

The skin has several layers of structure, whereas the lungs are sclerocornea(single layer) so they pass the material well. Therefore, if hand disinfectants are sprayed in the air, they can be absorbed into the lungs in the form of aerosols, which is dangerous. That is, the same thing that happened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could happen.

One person who put candles after applying hand disinfectants was burned all over his body. The skin on both the neck and legs was peeled off and the face became red. A child in Chuncheon suffered burns to his cornea while trying to apply disinfectants at eye level. Ethanol in hand disinfectants kills germs, but it's also a flammable substance, it can cause great damage even by small mistakes, so it should never be kept close to fire and should not be placed at a child's eye level.

As hand hygiene control is defined by the WHO, refers to water, soap, and 'hand friction' through 'hand disinfectant.' So it is also important to rub and dry them sufficiently until they are not left in hand.

Correct hand washing and hand disinfection are said to be the best vaccines. Chemistry will benefit us if we know the right way to use it and make the right use of its effects.



1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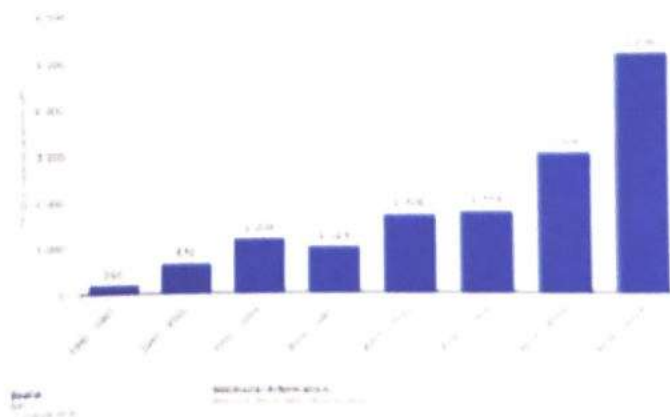
김영인

확대되고 있는 스포츠 시장

경제적인 여유의 증가, 노동 시간의 감소,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여가 활동으로서 스포츠 참여 증가와 같은 사회적 환경 변화를 유도하고, 이와 함께 미디어 특히 TV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로 스포츠가 현대인의 삶에 더욱 깊이 관여하면서 스포츠 시장에서 부의 축적이 가능해지며 스포츠를 활용한 광고나 스폰서 참여를 통한 프로모션 활동이 가능하게 되어 스포츠 산업 규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현상은 현대의 소비 관행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데, 스포츠 비즈니스의 발전은 소매업과 백화점,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와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의 성장과 함께해 왔다.

스포츠 시장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곳은 유럽이다. 유럽은 발전된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이면서 새로운 문화적 위치를 찾으려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기업들은 최고의 클럽에 지분을 확보하고 자산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축구 비즈니스로 몰려들었고 클럽은 상장회사가 되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가 세계적 수준에서 수익이 되는 상품이 되자 유럽 각국의 축구 리그들도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입장료뿐만 아니라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 상품을 통해 수입 증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Premier League TV broadcasting rights revenue* from 1992 to 2019
(in million GBP)



Celebrity rumor

Now that there are more than 100,000 celebrities, it is the celebrity's rumor that there are as many. These two have been inseparable from the past. So, why did celebrities and rumors become this kind of relationship?

Rumors are "news" created temporarily through unofficial and general channels such as YouTube, and SNS when social objects are ambiguous to understand and may be harmful to people. Information that is familiar to the public rather than public and rigid information that is common in the media tends to spread better, and belief tends to grow more depending on whether the rumors are true or not. Also, rumors about celebrities have more features. The so-called "beauty is a painful effect." This is one of the evidence that explains why a celebrity who is more likely to have an attractive appearance is vulnerable to rumors, with more criticism if the expectations are not met. These rumors circulating through SNS or YouTube are hard to know who is responsible for and can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rumors they produce. In particular, as the cases of Choi Jin-ri (Sulli) and VIXX Ravi show, rumors about celebrities are likely to cause mental damage to the parties because of their strong romantic or character-abusive nature. Nevertheless, the attitude to deal with the rumors will be important in the end, as some of them reveal the irregularities and deceit of the hidden celebrities. The key for the public to deal with rumors is to acquire reliable media information, but this may not work effectively in the current situation of low media confidence. Therefore, many experts say that securing the credibility of the media is a priority.



1
0
6
2
0

김현석

일상 속의 기술을 배우는 기계공학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 기관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발표한 '2021 전공별 세계 대학 평가'에서 울산대학교 기계공학과 순위가 상승했다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계공학은 무엇일까? 기계공학이란 물리학·역학 등을 기초로, 기계의 설계·사용법·성능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기계가 성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연구하는 기계설계, 설계한 것의 제작방법을 다루는 기계제작법, 물품을 들어올리고 운반하는 운반기계, 에너지를 이용하여 동력을 얻는 데 필요한 내연기관학, 선박기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계공학과가 포함되는 범위는 매우 넓다. 대학교의 기계 공학과에서는 공학에 관한 지식과 실습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계와 자동차 등을 개발하는 법에 대해 배운다. 학과의 특성상 수학과 물리학을 잘 하고 기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력이 좋은 사람이 가게 되면 좋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건설기계 분야, 사무용기계 분야, 엔진기계 분야, 플랜트 기계 분야, 냉난방 및 공조 분야, 안드로이드 로봇 분야, 자동차 분야에 관련된 업체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졸업 이후에는 연구소,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진출하게 된다. 기계공학과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과를 생각하고 있지만 진로가 뚜렷하지 않은 학생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학과라고 할 수 있다.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 안형준 교수는 “기계공학과는 모든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학문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동차, 철강, 조선, 플랜트 등 모든 산업에서 기계공학이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이 진학해 주셔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계 공학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라며 학과선택을 고려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건넸다.



Doctor vs Dentist

What is same and what is different?

Speaking of doctors, they mean doctors who majored in the department of general medicine, and dentists mean doctors who majored in dentistry in the department of dentistry. A general doctor who studies various medical sciences such as surgery, internal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pediatric science, orthopedics, imaging medicine, nuclear medicine, neuroscience, emergency medicine, anesthesia and pain medicine, dermatology, thoracic cardiovascular surgery, neurosurgery, urology, ophthalmology, orthopedics, and home medicine, and decides on courses when he becomes a resident. And a dentist who majored in dentistry from the beginning. These two are similar but different. First of all, I would like to talk about common points. Doctors and dentists both study the body and treat diseases. The difference is that dentists mainly deal with the oral cavity. Dentists specialize in dentistry, so they have more oral knowledge than other departments.

There was a talk about integrating medical and dental departments and including dentistry in general medicine, but the general medicine and dental departments were different, and Korea, which had adopted the American educational system, decided to separate medical and dental departments as it due to incidents related to American universities. For this reason, the Faculty of Medicine and the Faculty of Dentistry are separated, and doctors and dentists are considered to be different entities, but they cannot be considered separately. This is because diseases in the mouth can lead to damage to other organs, and it is common for the mouth and other organs to be injured at the same time when accidents occur. Therefore, we know what the difference is between doctors and dentists, but we have to know that they are not different at all.



Doctor vs Dentist What is same and what is different?

This can be thought of in relation to the 2020 doctors' strike. The 2020 doctors' strike is an incident in which doctors went on strike one after another against the new government policy. The government criticized this as "a threatening behavior with the lives of patients," and doctors said, "We were just busier and protested the rest of the time.

"At this time, while doctors were demonstrating, dentists once said they were going to get out of the strike. Doctors sarcastically said, "Doctors and dentists are different." The two problems of the 2020 doctors' strike, the progress of hip-shooting government policies and hip-shooting doctors' strike, seem to have further inflated the incident.

If you look at the small conflict between doctors and dentists in the midst of this ongoing strike, you can see that the two are not exactly the same. In the beginning, however, they went on strike at the same time, showing a similar side. As can be seen from the case, doctors and dentists are very different.



1
0
7
1
0
|
신
서
현

The light hidden in COVID-19, Biotechnology

COVID-19 brought us many negative effects. For example, the economy is getting poorer, customers decrease from some specific areas and more. But do we always have to face this situation in a bad way? Most people will ask back, "Then are there any good effects?" If we turn our head to medical treatment and biotechnology, people will understand. It is that development of medical treatment and biotech has been boosted by COVID-19.

With existing biotech techniques, people found new things about COVID-19 that we didn't know before. The thing they found was protein that makes too much immunity substance that it damages our lung after infection.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found that this protein is 'SREBP' which controls our fat in body, and this makes cytokine storm which leads to lung damage. The CT image and various septic indicators in groups classified as critically ill patient showed a rapid increase in SREBP C fragment levels, and monitored the activation level of the regulating protein from the blood of COVID-19 patients. As a result, evidence was found that the protein was related to inflammatory cytokine release and vascular destruction. Also, the discovery of the protein will contribute not only to efficient inflammatory drugs but also in the development of treatments such as seasonal acute infectious diseases.

Researchers at Ohio State University developed a new biotech technique to make vaccine for fighting back COVID-19. The point of this technique is same with preexisting vaccine development method, It's changing specific sequence of mRNAs of SARS-CoV-2, a virus that causes COVID-19. This changed sequence is called UTRs, which produces more antigens, and have shown a better immune response.

The light hidden in COVID-19, Biotechnology

The corona vaccine consists of the genetic material of SARS-CoV-2, and the mRNA of the corona virus is attached to other viruses to lead to an immune response. The purpose of the vaccine is to eliminate the risk of infection, but side effects such as allergic reactions and high temperature also exists. This vaccine was applied with the new technology that was mentioned earlier. Changing the UTR can make the sequence more powerful when inducing an immune response. In theory, the development of lower-capacity vaccines can be done faster to reduce side effects.

Lastly, with the connection of biotech, Korea got a chance to cooperate with England. At the 'UK Life Sciences Webinar 2020' hosted by the British Embassy in Seoul, Ambassador Simon Smith said, "Considering the next generation of innovative treatments, technologies and services, this is the perfect time for Britain and Korea to cooperate." Meanwhile, CEO Andrew Rodham expressed his opinion on Britain's life science industry and cooperation with us in an interview.

There are way more things happened in 2020, which is related to biotechnology and COVID-19 that haven't been mentioned. And still, everyday people do something that's related to biotech. Everyone who are undergoing this COVID-19 will now all be tired of this situation. Then, why don't you not just look toward to the dark side of it, but look toward to a bright side of it? However it might be small, there actually will be a bright side of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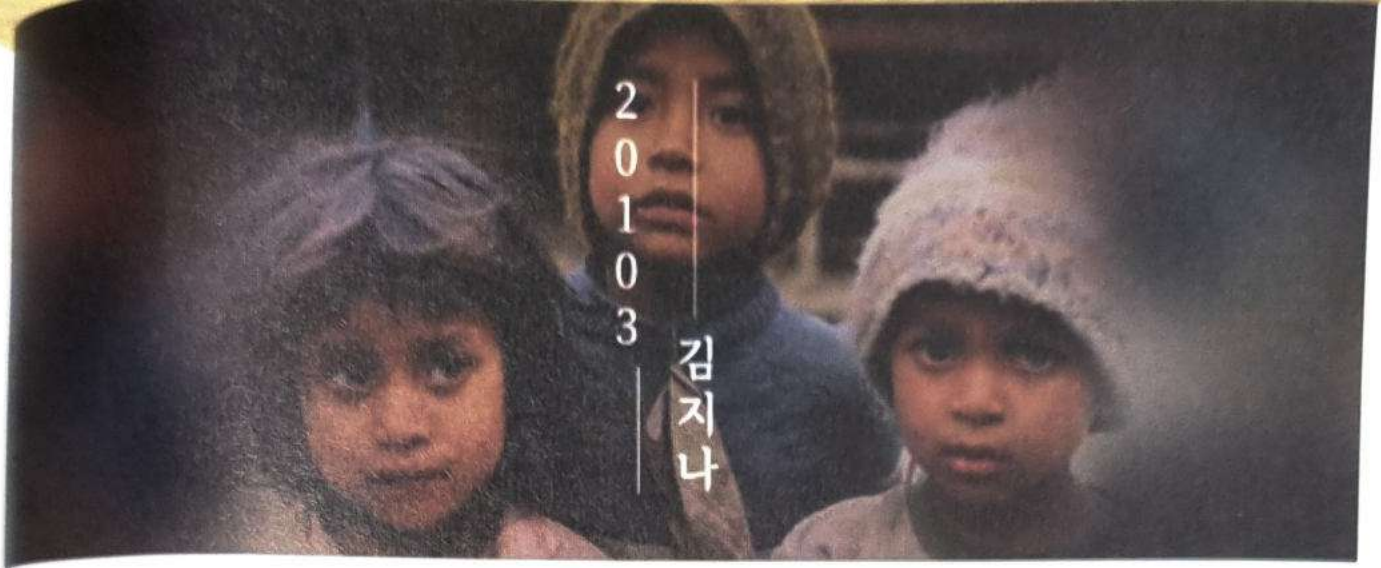


Why the future of french is African?

The former French colony, Cote d'Ivoire, uses French as its official language. Of course, all official documents must be written in French and communicate in French. But a typical Ivory Coast person can speak two languages. Their languages and French. Not all tribes speak different languages, but they have to use French because of poor communication. Many tribes use French as their official language, and at some point, French and Tribal languages mix to create new words and sentences, which are only spoken in Ivory Coast, called "Nouchi."

Nouchi began to be created on the streets in the 1970s. Street bullies and criminals started writing in their own language, but it became a trend in society as a whole, and now it is often used not only on the streets but also in comedies and music, so it can be heard on the air. Originally Nouchi was a Malinké word. The Malinké tribe is a tribe from Liberia and Guinea due to a lack of Mandé languages distributed northwest of Ivory Coast. In the Malinké language, "Nou" means nose or nostrils, and "Chi" means "hair." "Nouchi" means "a strong man" who actually fears nothing in the world. Maybe it's because the first users were either bullies or criminals.

Now Nouchi is often used among close friends. It is also used as a song lyrics, rap in Ivory Coast's music genre "zouglou," and politicians are getting closer to the public by using Nouchi during their speeches. Nouchi is not just a word, but a part of bringing together the people of Cote d'Ivoire, a group of tribes. Regardless of what tribe's words were created, it seems that other tribes also use them together to break down some of the barriers between trib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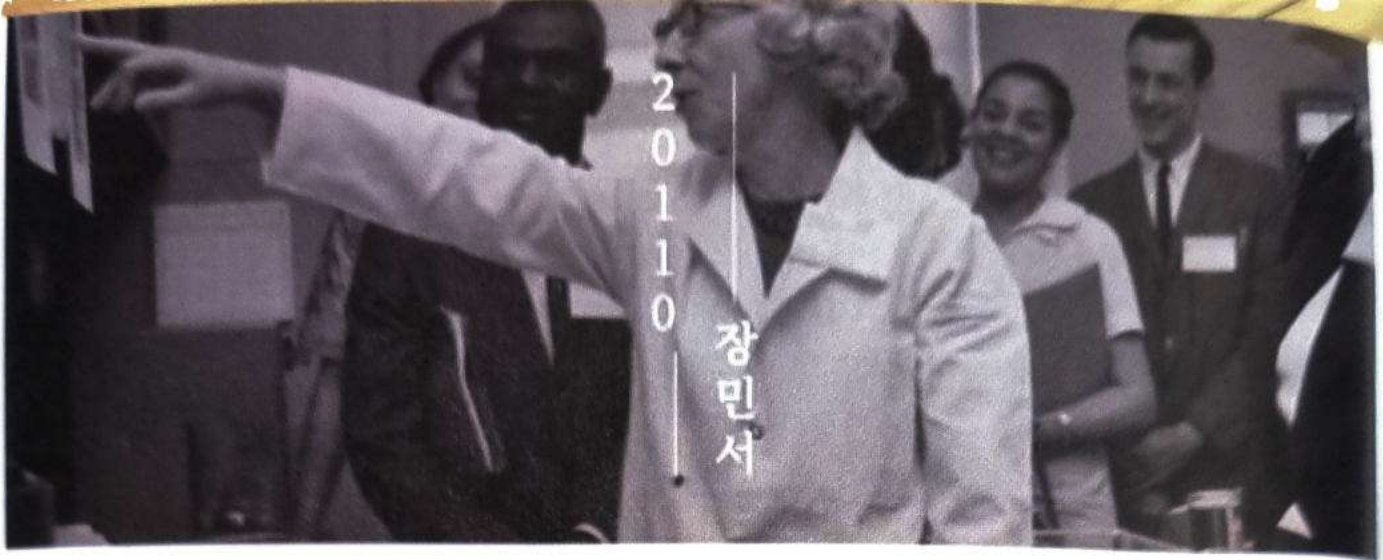


Why the future of french is African?

There are 300 million French speakers worldwide today, up almost 10% since 2014, and a recent survey showed that 44% of them live in sub-Saharan Africa.

By 2050, a full 85% of French speakers could live on the continent, according to an estimate by an organisation that monitors statistics on who speaks the langu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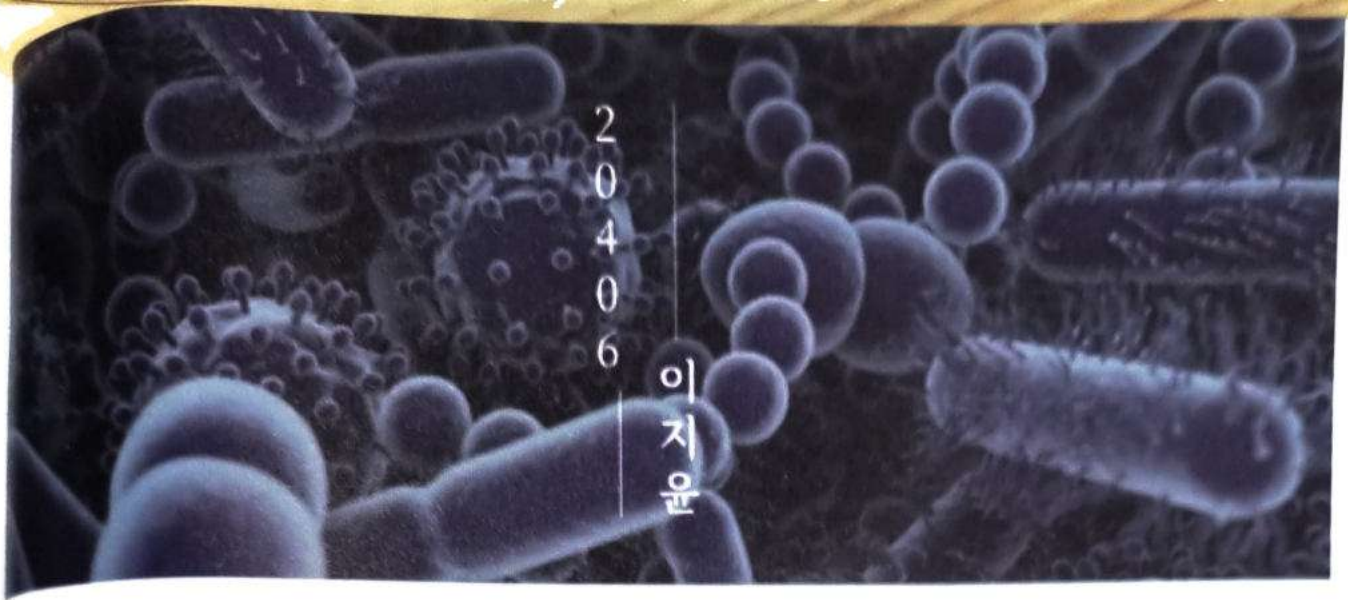
Teachers and linguists say this phenomenon is driven by the high birth rate in French-speaking African countries. So, we can say like “the future of french is African”.



MUTATION: the genetic change

In the late 19th century, a Dutch plant geneticist discovered a very large evening primrose that had never been before while growing it. He named it "mutation", and studies by various scholars later revealed the nature of mutations that indicate genetic changes.

A mutation is a phenomenon in which a genetic trait changes due to changes in the sequence of genes. It occurs by accident in the cloning process of genetic material or by external factors such as chemicals or radiation. In the case of humans, they have four bases, A, T, G, and C, so that the properties of cells vary and body tissues are created depending on the order in which they are arranged. And even a single change in this base sequence can cause mutations. Mutations with superior characteristics are sometimes handed down to posterity, which explains the apparent differences in human beings. More than 80 percent of northern Europe now has blond hair, as blondes first appeared in Europe 150,000 years ago and looked attractive to the opposite gender, according to a study by an English professor's study. These various hair colors, eye colors, and different skin colors can be seen as evidence of genetic mutations in the past. Mutations can also be the cause of the disease or the key to preventing it. The virus, one of the causes of the epidemic, is parasitic on living cells and proliferates in the process, in which mutations occur, avoiding the host's immune system, and AIDS is a prime example. Meanwhile, there are people who do not get AIDS because of mutations in white blood cel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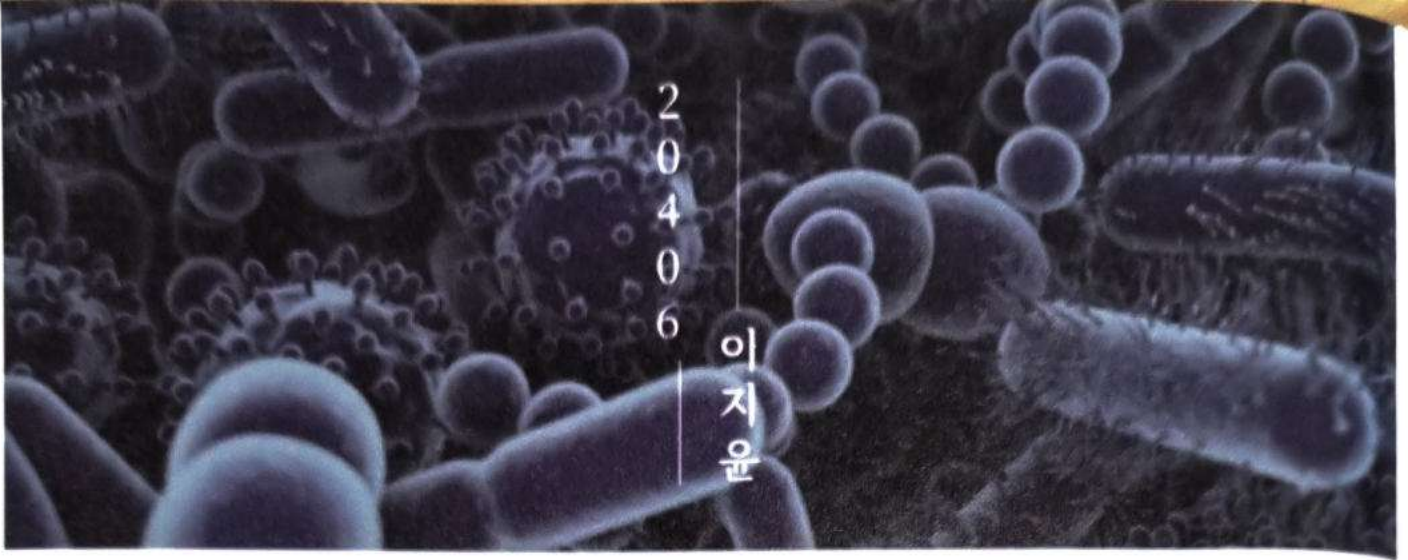


The Key to disease, 'Microbiome'

Humans have symbiotic relationships with microorganisms in various organ systems, including the intestines, and engage in life activities based on their intera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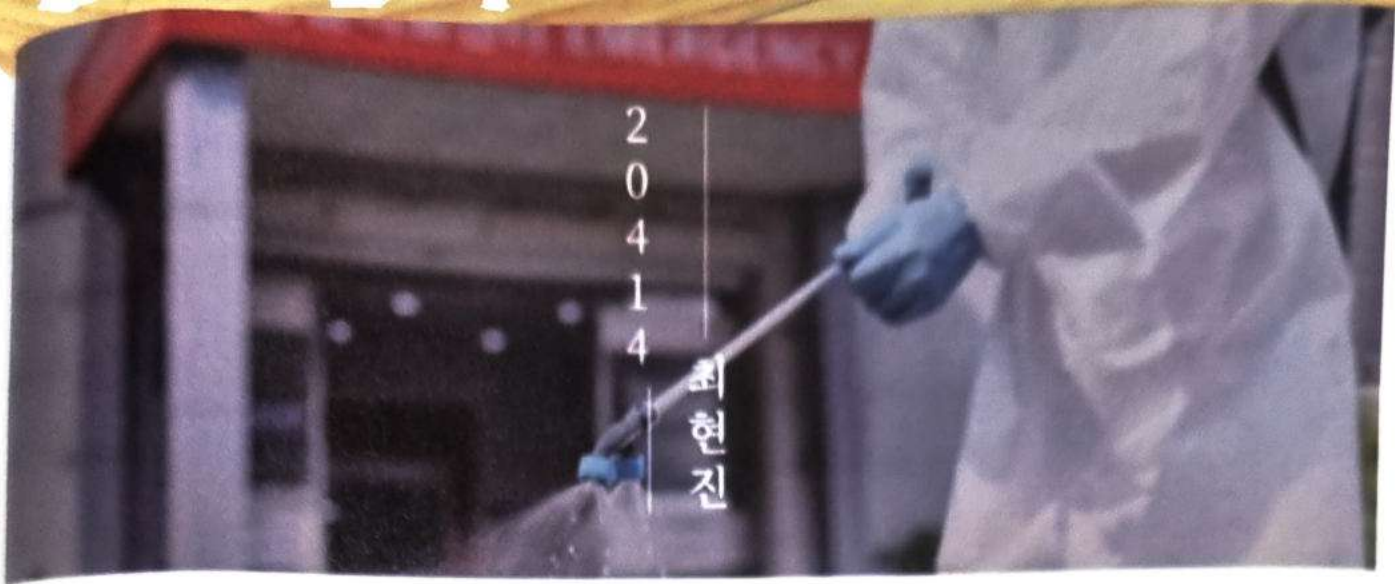
Microorganisms distributed within a single intestine are called microbiome, and bacteria in this intestine, which are also classified as one organ of the human body, have an ecosystem within the intestine. It also has a valid correlation with the health of the human body in many ways, and the number is estimated to be well over 10 times that of the human cells that make up the human body. Recently, studies have shown that it affects not only the environment in the intestines but also the nervous system such as the human immune system and brain have proven its high influence on the human body. Furthermore, the correlation continues to expand through complex co-evolution.

Recent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es in synthetic biology provide the potential to be incorporated into the biomedical field not only in the intrinsic disease prevention function of these intestinal wild-type microorganisms, but also in the sense that furthermore, the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through the engineering recombination of microorganisms is possible. In addition, among the applications of various synthetic biology, in vivo biosensor technology is based on the basic concept of the construction of a genetic circuit that produces output to adapt or change the environment to a given stimulus, based on the idea of an electrical circuit. This is considered a suitable technique for creating engineered recombinant microorganisms that detect intestinal conditions and perform symptom mitigation or treatment through their own diagnosis of certain diseases.



The Key to disease, 'Microbiome'

Microbiological treatments that perform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s directly in the body are significant in that they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non-living therapies. In the case of the transfer of drugs rapidly decomposing in the vascular or upper gastrointestinal tract, it is much more efficient to produce them on-site through intestinal microorganisms. It is also likely to overcome existing limitations in that drugs can be delivered through microorganisms to vulnerabl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be delivered by conventional oral and non-alternative administration, such as colon and tumor centre of tumours. In addition to the delivery of drugs, recombinant microbial treatments have advantages in disease diagnosis. The more accurate and precise diagnosis of diseases is made possible by detecting disease indicators that can be rapidly decomposed, modified and absorbed in the intestines directly through bio-sensors built into gene circuits within the intestines before being separated from the intestines by dynamic intestinal environment. In other words,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non-biological treatment and developing intestinal recombinant microorganisms that quickly diagnose diseases and perform treatment directly in a dynamic intestinal environment is expected to continue to develop in future medicine.



Corona Blue: the new kind of depression

The aftermath of COVID-19 made many people stay at home, refrain from outdoor activities and limit various activities. As the third wave of COVID-19 worldwide is in full swing, more and more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Corona Blue rather than COVID-19. Due to the fear of prolonged infection and the limitations of daily life, this corona blue has emerged as a social problem that surpasses the virus. Corona virus is not just affecting our bodies, but also our mental health.

So, what exactly is Corona Blue? "Corona Blue" is a combination of COVID-19 and "Blue," which means depression, which is a combination of stress caused by infectious diseases, leading to depression. It is said that many people are suffering from the aftereffects of the COVID-19 quarantine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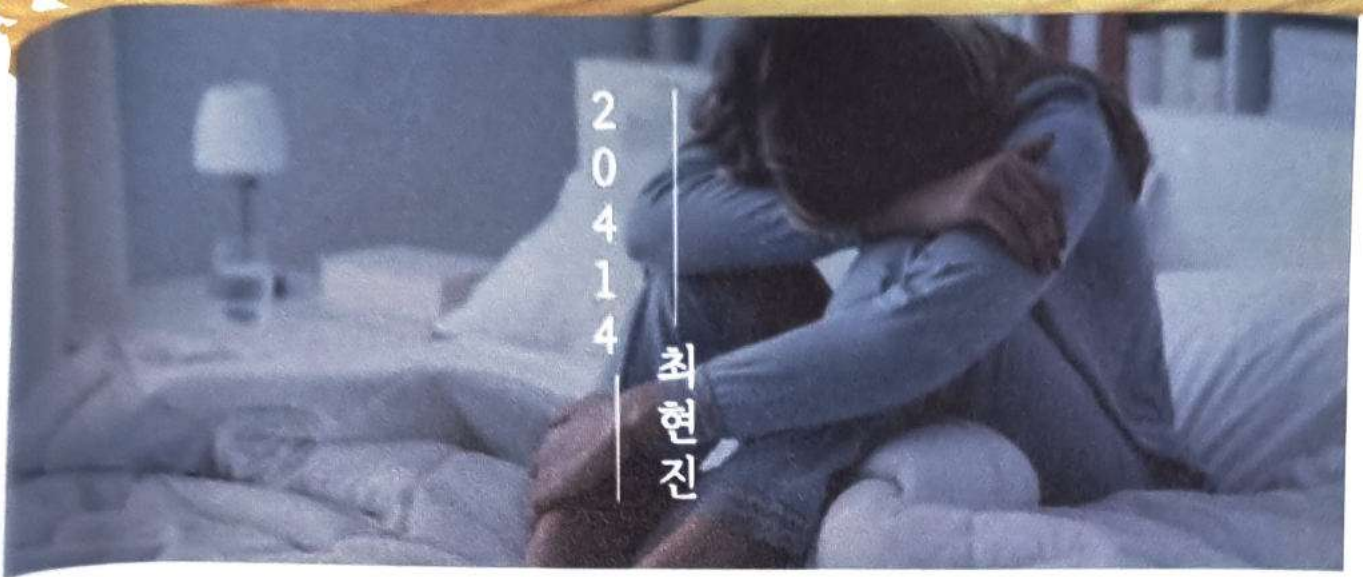
First of all, in Korea, 40.7% of Koreans said that they have experienced depression and anxiety caused by COVID-19.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Promotion commissioned Gallup Korea to investigate 1,031 adult men and women aged 20 to 65 nationwide on "health conditions caused by COVID-19. The survey included the first analysis of whether or not the term "corona blue" is recognized and experienced. 57.6% of all respondents said that they had never heard of the term "corona blue." However, when they explained the meaning of corona Blue and asked if they had any experience, 40.7% of all respondents said they had "experienced" Corona Blue. Women (50.7%) have a relatively higher rate of corona blue experience than men (34.2%), and especially for women in their 20s, 30s and 60s, a majority of them have experienced corona blue.



Corona Blue: the new kind of depression

In the U.S., the aftermath of corona blue is known to be serious.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also pointed out the spread of serious infections in the U.S., saying, "The continental U.S. is leading the increase in global confirmed cases." Under such circumstances, one-third of Americans feel depressed or anxious. In the U.S., the number of confirmed cases reached 4.4 million as of last month, and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has been more than 100,000 for 10 days. According to a Washington Post report on the 26th (local time), 20% of the respondents showed both depression and anxiety in an "emergency household trend survey on the impact of COVID-19 on Americans" conducted by the U.S. Bureau of Statistics and the 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 (NCHS). About 10 percent of respondents showed only anxiety, while 4% showed only depression. A total of 34% of the survey respondents experience at least one of the symptoms of anxiety and depression due to COVID-19.

As the number of newly confirmed cases of Japan has reached 2,000, the number of people making extreme choices is also rapid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2,153 people across Japan ended their lives on their own in October. The figure is higher than the cumulative death toll of COVID-19 from January to April 29. On a monthly basis, the number of people making extreme choices for four consecutive months from July to October increased from a year earlier.



2021

최현진

Corona Blue: the new kind of depression

So, what are the ways to overcome depression caused by social isolation?

First, you have to notice the state of your body and mind. It is important to notice the state of our bodies and minds, especially the changes by stress.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basic menstrual conditions such as blood pressure, blood sugar, pulse and sleep, and to

know how much one's worries, anxieties, anger, anxiety and anguish occupy oneself.

Second, you should have time to stabilize and restore your body and mind as still as possible. After listening to all kinds of negative news, we have to grasp our body and mind's condition, and use the remaining energy efficiently.

Third, we should do physical activities to reduce stress. The activity of using the body begins with breathing and ends with breathing, and a comfortable and easy exercise. We need to exercise for more than 30 minutes a day so that the stress hormone called cortisol in the blood can be reduced, to the point where you sweat a little, and you can feel a slight loss of breath.

Finally, you should engage in activities that give your body and mind a positive energy. Knowing one's condition, calming one's mind, breathing and exercising, the overall state of stress relieves and lowers. In order to keep this condition alive, you have to say something positive to yourself. Positive energy and words form a barrier in our bodies and minds that prevents stress from penetra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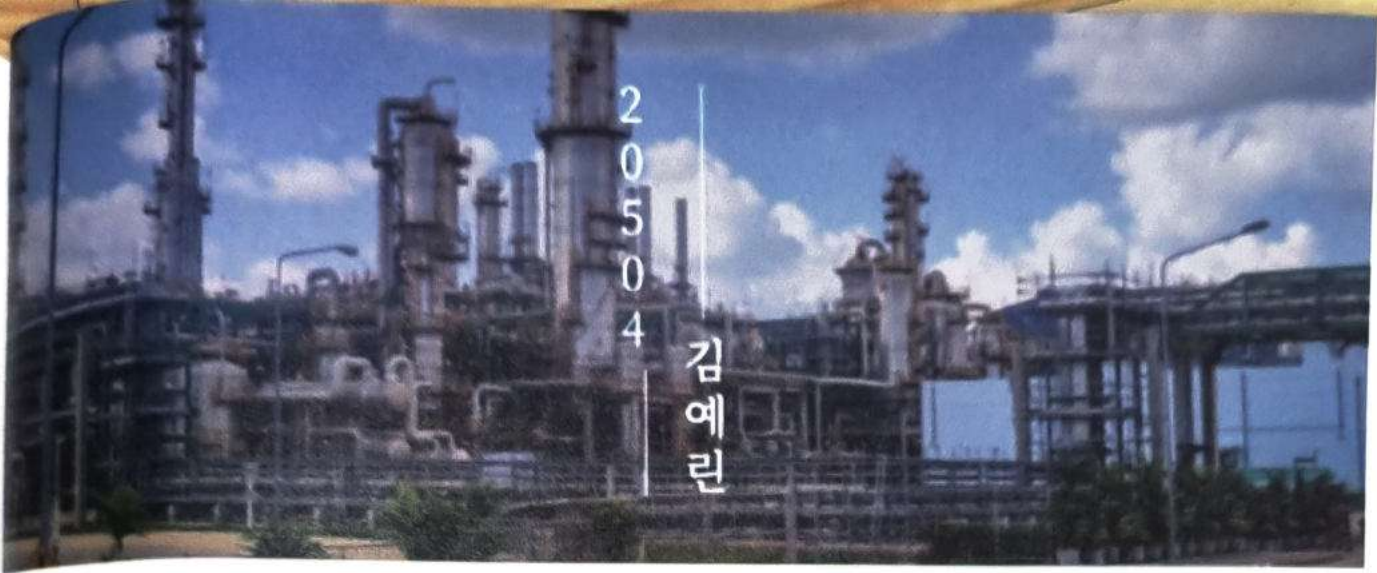
It is important to keep quarantine rules and prevent COVID-19. Why don't we calmly wait for the end of the COVID-19, so that we can relax our mind?



GAS WAR

Russia has been exporting natural gas to Europe since the Soviet era, and that volume has begun to increase rapidly since the 1990s. As of 2017, natural gas accounts for about 25 percent of the EU's total energy consumption and one-third of that natural gas imports depend on Russia. Because of this, the European Union has been receiving constant energy security threats from Russia. In 2006 and 2009, Russia shut down gas valves because Ukraine did not pay for natural gas on time. This seemingly only affects Ukraine, but other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and Italy, have been hurt by Russia's actions. At that time, 80 percent of the gas exported from Russia to Europe could only go through pipes from Ukraine. In other words, shutting down the Ukrainian gas valve meant that it could halt production facilities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As a result, European countries are looking for new sources of gas such as Iran and Central Asia. Other countries, however, had insufficient gas production or were all gas supplied to China, and were forced to use Russia's natural gas.

But it was only in 2009. It has begun extracting shale gas, a new natural gas, from the United States. This shale revolution has caused the United States to plunge in fossil fuel imports. As a result, huge amounts of fossil fuel were exported to the U.S. and shale gas from the U.S. eventually flowed into Europe. Europe began to demand a cut in gas prices to Russia when it was able to import other fuels. Half of Russia's fiscal revenue was oil and gas exports, while a cut in natural gas prices was a bomb to the Russian economy.



GAS WAR

Faced with the crisis, Russia turned to Asian markets, including China, and the U.S. began exporting huge amounts of shale gas to Europe as of 2016.

But this alone did not pose a major threat to Russia. Because natural gas in Europe was 20 percent cheaper than shale gas, and transportation from the U.S. to Europe cost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European countries could not afford to abandon Russia's natural ga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Also, the new natural gas pipeline Node Stream2 being pushed by Europe and Germany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of preventing American shale gas from entering Europe. If Node Stream 2 is opened between Russia and Germany, Western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which had not received natural gas due to the conflict between Ukraine and Russia, could easily obtain Russian natural gas. In other words, Russia's natural gas, which is more economic al than shale gas, was imported by most European countries once it had a way to export it. With the opening of Nordstream 2, Russia has doubled the amount of natural gas it supplies to Germany and has a good relationship with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has been able to export gas smoothly, as well as gain an economic advantage over Ukraine.

However, this aspect will be a big change again after 2017. Trump, who becam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egan to put pressure on Russia to block Russia's influence in Europe and sell shale gas.



2
0
5
0
4

김
에
린

GAS WAR

The United States, which had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Russia since the annexation of Crimea, has also threatened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Western European countries participating in Nordstream 2. Merkel (Germany) and Putin (Russia) have promised to build Nordstream 2 at a time when Eastern Europe supports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Europe supports Russia. But that year Germany was allowed to import U.S. shale gas because of concerns about Ukraine and Trump's economic pressure.

Currently, the Nordstream 2 natural gas pipeline, which covers 1,230 kilometers, has only 150 kilometers left to construct. Against this backdrop, some in Germany are calling for sanctions against Russia due to the Nibalni poison incident. The definite outcome of the gas war between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which is hard to predict how it will proceed, will have to wait and see.



Possibility of treating depression in scp20

Some people may live with scars in the closet. A scar, whether it's in the body or in the mind, can bring people to a head. Scars on the body fade over time, but scars on the mind can penetrate deeper over time and cause depression. There are many kinds of depression that can be found around us, such as pregnancy depression, postpartum depression, and menopause depression. Depression is a disease that can occur anytime, anyone, and the main symptoms are depression, lethargy, anxiety, and remorse, and some patients feel suicidal in severe cases.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ly 15 percent of patients with depression receive treatment. The figure is less than half that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ctive drug therapy is recommended for depression disorder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minimize the patient's adverse effects on antidepressant drugs to increase compliance to minimize recurrence in order to show the patient's clinical effect in effective treatment of depression disorders. Drugs such as selective serotonin reabsorbent inhibitors and serotonin norepinephrine reabsorbent, which are now widely used in treating depression, have improved endocrine profile. But there's also a problem with these drugs: tolerance.

The cause of depression is the degradation of the autonomous regulating role of serotonin systems in the brain caused by serotonin deficiency. Serotonin is a neurotransmitter that is responsible for happiness and emotional stability and serves to control various emotions. Therefore, patients who visit the hospital are prescribed drugs such as serotonin reabsorbent that normalize serotonin, along with psychological counseling.

2
0
6
1
3

조현정

Possibility of treating depression in scp20

This is a drug with a mechanism that prevents serotonin from escaping from the required area where it works and helps prevent reabsorption to combine with the receptor, which is closely related to improving the cause of depression, but has a problem of resistance.

Therefore, academics are focusing on developing natural substances that are highly adaptable to patients' use, and what has recently become a hot topic is the component called scp20, which has been hydrolyzed from natural yeast. It has a mechanism to block the reabsorption of Norepinephrine as well as serotonin, and has 68% effect of the U.S.FDA-approved antidepressants, has no other side effects, and can have similar effects depending on the dependence of concentrations when intake is increased. Tests using actual mice have also shown that scp20 is effective in improving symptoms of depression. In tests using rats, the group of mice that took scp20 struggled to survive extreme conditions. And the human body test also confirmed that scp20 helps improve anxiety. Patients with anxiety disorder changed their mind and body to stable condition, with the HF area rising just seven days after taking scp20. In addition, eating scp 20 for men and women with sleep problems reduced sleep time, decreased awakening during sleep, and increased sleep duration. The experiment lasted three months, and the effect increased even more even though it did not increase the amount of intake during this period. It can be seen that it is a safe substance that is different from sleeping pills such as zolpidem, which can only be maintained if the dose is increas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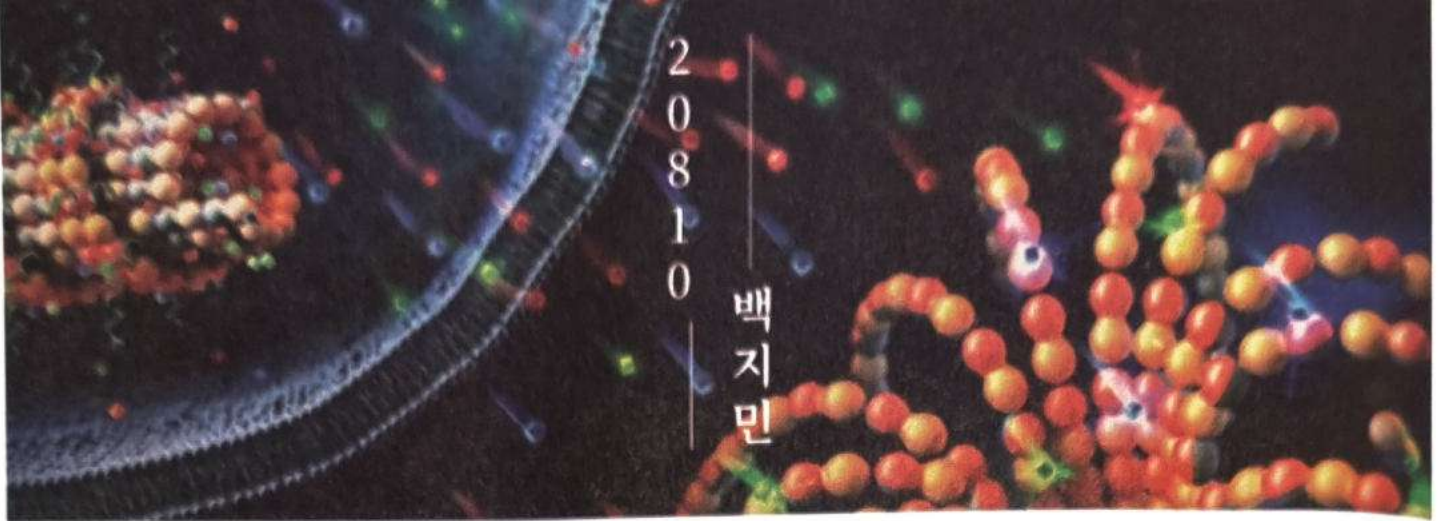
Language and Culture

Language and culture are closely related. We cannot understand culture without considering language. It is also impossible to understand language without considering culture. Today I will discus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First of all, language reflects culture, so we can identify human culture through language. For example, the Korean language has developed farming terms such as '호미, 팥이, 삽', that indicate that our society has maintained its farming culture in the past. Unlike us, Eskimore has many words related to 'snow', and Australia has many words related to 'sand'. Therefore, the vocabulary of all languages reflects what is considered important in culture.

Language also affects culture.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distinguishing humans from other animals is language. It becomes a basic means of communication in all human groups, that enable social life and play a role in the creative transmission, and succession of culture. If humans do not have language, it would be impossible to express their feelings and opinions, or to pass on cultural achievements from one generation to the next. Benjamin Warp, who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language and culture, argues that language is not just a machine for exchanging our thoughts, but an ideas in itself.

Likewise, we should be able to understand and respect these relationships without panic, when facing various languages and cult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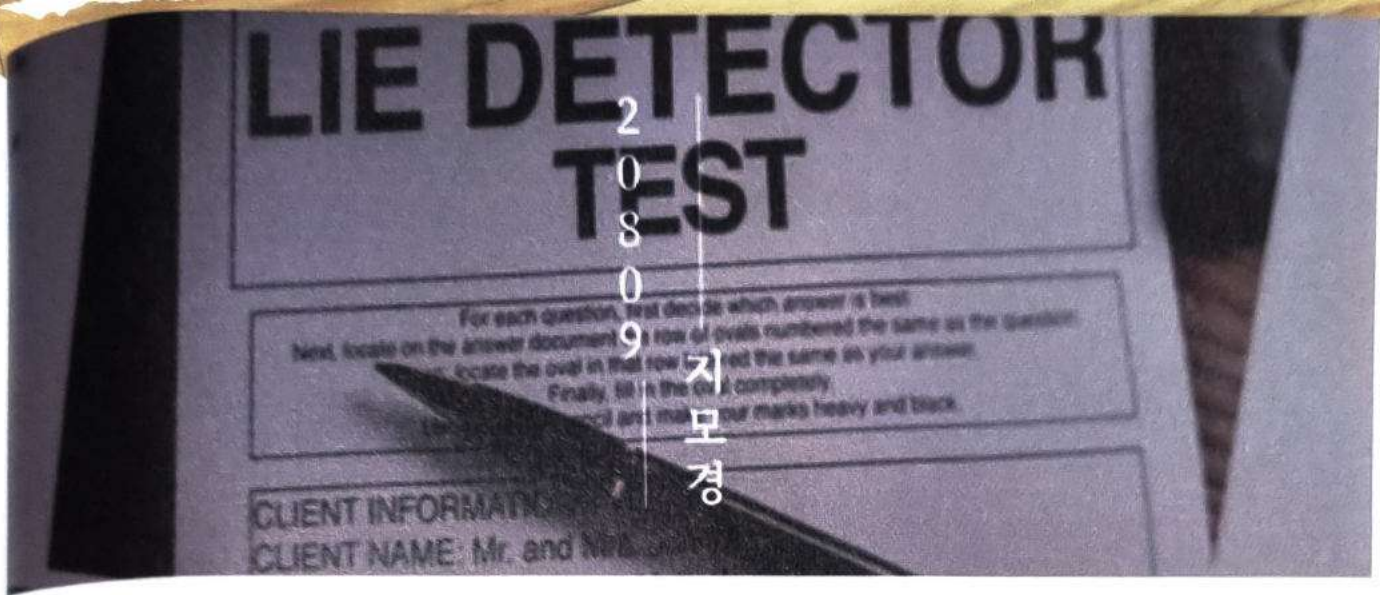
Tubulin-based NanoTube using Tubulin protein

In KAIST, the researcher made artificial nanomaterials using Tubulin protein. Tubulin is a unit of the microtubule and looks like a ball. The microtubule has a long tube structure that forms a cytoskeleton.

The researcher observed the principle that how the Tubulin folds. So, by controlling the degree to which tubulin folds and the number of folds, they can make nanomaterials that have different function and shape from the microtubule, This is called Tubulin-based NanoTube(TNT).

TNT has an anti-cancer effect. When TNT enters the inside of a cancer cell, it releases anticancer agents in it, destroying the structure of cancer cells, The research team conducted an animal experiment using a rat with lung cancer They put the anticancer agent that targets microtubule in TNT. As a result of injecting TNT into the rat, it showed more than twice the effect of suppressing cancer cells of a common anticancer agent.

The principle of TNT is to mix PLL(pegylated poly-L-lysine) in tubulin protein to create a basic TNT structure. It can be used to treat breast cancer and stomach cancer. In additi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can change depending on the amount and type of drugs. Therefore, it will be used as a new treatment for various types of cancer and brain diseases in the future.



거짓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거짓말을 한다. 미국의 심리학 교수 로버트 펠드먼 박사가 쓴 책에 의하면 '우리는 10분에 세 번 거짓말을 한다.'고 한다.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더라도, 거짓말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는 말과 같이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거짓말은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한다. 동화 '피노키오'처럼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려는 노력은 곳곳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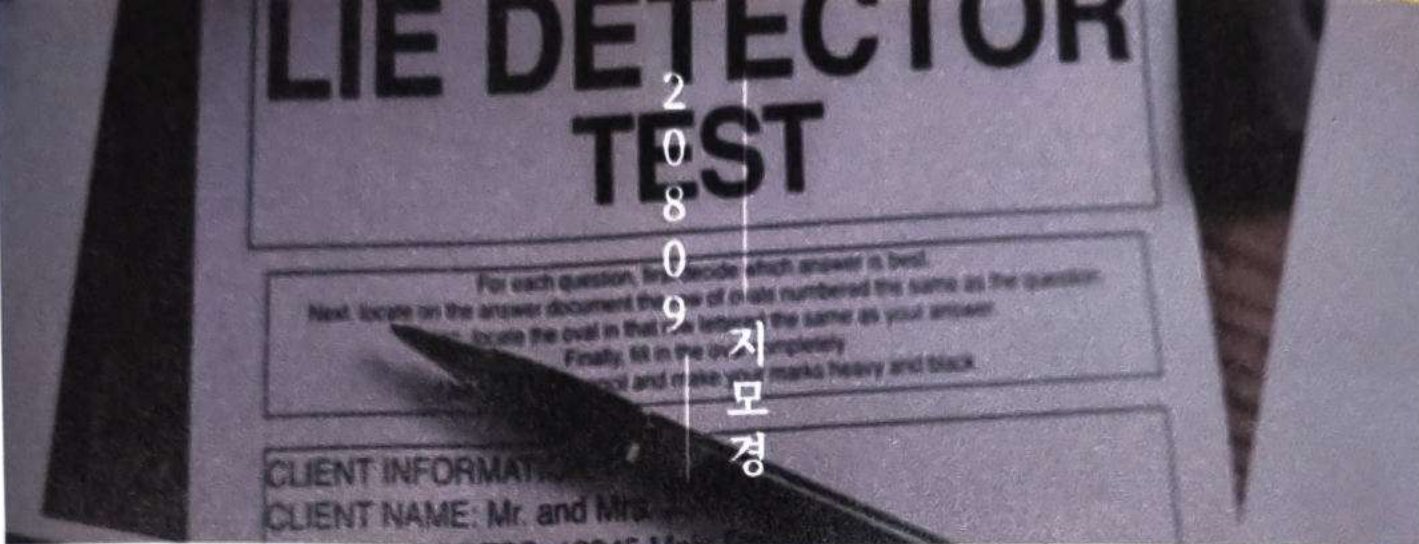
사전적 의미로 '거짓말'은 말하는 의미가 거짓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듣는 이를 사실로 믿게 하게끔 실제와는 다른 발언, 혹은 극히 일부만 사실인 발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거짓말의 경우 어린아이와 청소년 성인으로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 거짓말을 하는 목적이 다르다.

먼저 어린아이의 경우 어른에게 혼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고 한다. 즉, 누군가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나 피해를 주는 것 등의 목적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청소년과 성인의 경우 어느 정도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비슷하다. 어린아이와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반대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매개로 사용하기도 하고 선의의 거짓말로 사회적인 인간관계 등을 윤택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체면을 지키고 누군가를 보호하거나 명성을 높이기 위함 등의 목적을 가진 거짓말들이 여러 면으로 존재한다.

좋은 목적을 위한 거짓말들만 세상에 있다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중엔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수이다. 거짓말이 긍정적인 영향만 끼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이를 은폐하려는 길로 이어진 거짓말은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한다. 정치적인 거짓말도 범죄와 직결된 거짓말도 결국엔 '거짓말'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거짓말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

또한 거짓말의 빈도수가 높은 사람은 잘못된 정신세계를 형성하고 자아가 흔들릴 수 있다. 흔히 말하는 '허언증'이나 '리플리증후군'과 같은 심리적 장애들은 거짓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에서 비롯된다. 또한 *마키아벨리안 성격 등의 경우가 많아지면 '사회'는 본래의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거짓말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옳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 자녀가 거짓말을 한다면 부모는 체벌이 아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논리와 함께 거짓말의 개념에 대해 일깨워주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기에 '상습적인 거짓말'이라는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바른 정체성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거짓말은 습관과 같기 때문에 자신이 의지를 갖고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마키아벨리안: 자신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 남을 조정하는 기술이 탁월한 사람을 일컫는다. 이는 필요하면 도덕 관습도 무시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기회주의적인 성격도 지닌다.



ADVISORS

- John Cowie
- 이상미 선생님

STAFF

WRITERS

- 10128 이현승
- 10203 노소윤
- 10307 김현슬
- 10410 오지우
- 10507 김혜영
- 10610 유혜승
- 10619 김영인
- 10620 김현석
- 10709 변율서
- 10710 신서현

EDITORS

- Editor-in-Chief | 최현진
- Managing Editor | 이지윤
- Student Life Editor | 지모경
- Culture Editor | 김규리
- Features Editor | 김예린
- Social Affairs Editor | 조현정
- Reporter-in-Chief | 장민서
- Science Editor | 백지민
- Culture Editor | 김지나



STAFF

Haneul Connector 김승우 – Manager

Haneul Connector 강예빈 – Editor

Haneul Connector 고별하 – Editor

Haneul Connector 임수현 – Editor

Haneul Connector 남한나 –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윤승환 –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박성호 – Photographer

Haneul Connector 박인애 – Photographer

Support

박채연 · 변석원 · 송진호 · 임해욱 · 정세민 · 조가원

채희준 · 권가인 · 김현우 · 윤은지 · 이다빈 · 사수현

이서영 · 석채민 · 배연욱 · 박현영 · 남현우 · 서현호

정예지 · 최승호 · 이성영 · 이서현

HANEUL ACADEMY
2020

하 늘 나 래

제 8회

지도 교사 김승우

편집 부장 강예빈

디자인 세종디자인랩



22361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277번길 117

전화 032 745 0400